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곽윤경·이아영·구혜란·변금선·전지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구혜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책임연구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4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94-2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40>

발|간|사

삶이 팍팍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점점 더 자주 이런 호소를 만난다. 반면 삶의 무게를 누구와 같이 나누기 어렵고 또는 힘겨운 삶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삶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회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국민의 안정감을 높일지를 파악하고자 시작되었다. 2023년 수행된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 분석한 5년 동안의 연구 중 마지막 해의 연구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국민 중 극빈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지 않은 비율의 국민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불평등, 불공정 등의 측면에서는 불안 인식의 수준이 더욱 높았다. 불평등이 심하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면 삶을 예측할 수 없고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이 심화되면서 경쟁에 더 예민해지고 경쟁에서 이겨 유리한 지위를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자기 보호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기제 중 중요한 기제라고 하겠다.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각자가 하고픈 일을 보다 의미 있게 수행하면서 다른 사회구성원과 연대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사회정책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 것이다. 극빈층이 되어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 지원의 손길을 만날지 몰라 불안이 줄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대적인 지원제도가 필요 수준 이하로

밑돌면 지원제도의 사회적 낙인은 강해지고 집단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 지원을 받는 사회정책 수급 집단의 불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을 규명한 것 외에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사건의 경험, 사회적 관계, 개인의 불안, 대처성향 등 개인의 태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다 평등한 사회와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사회가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단지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이 공히 국민의 불안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사회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분들과 정책을 구상,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구혜란 책임연구원,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부연구원, 그리고 원내의곽윤경 부연구원, 이아영 부연구원,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분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원인 규명과 대안모색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다. 면담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과 자문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3년 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겸허하게 소망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연구 개요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4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 자료	21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23
제2절 1·2·3·4차 연도 연구 개요와 시사점	38
제3절 분석 자료의 구축과 검증	49
제3장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61
제1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	63
제2절 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비교	72
제4장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코호트 간 비교	8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91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107
제3절 사회적 불안 인식 설명 요인 네트워크 분석	115
제4절 소결	122

제5장 개인의 심리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	125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27
제2절 개인 불안심리 유형 특성	137
제3절 개인 불안심리의 예측요인: 사회적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153
제4절 소결	166
제6장 소득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공적 지원의 영향	16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71
제2절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180
제3절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격차	195
제4절 소결	215
제7장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 인식	21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221
제2절 사회적 고립의 유형과 사회적 불안	238
제3절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240
제4절 소결	244



제8장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참여활동을 초점으로 ····	247
제1절 분석 내용과 방법 ·····	249
제2절 사회적 불안 대처성향 ·····	254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	265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분석 ·····	271
제5절 소결 ·····	286
제9장 결론 ·····	291
제1절 주요 분석 결과의 요약 ·····	293
제2절 정책과제 ·····	300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	312
참고문헌 ·····	315
부록 ·····	329

표 목차

〈요약 표〉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전략	7
〈표 1-1〉 연구의 본문 구성	17
〈표 2-1〉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 관련 연구와 측정 방식	29
〈표 2-2〉 사회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 구성(2013년)	32
〈표 2-3〉 사회적 불안 인식 요인분석 결과	43
〈표 2-4〉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	44
〈표 2-5〉 본문 각 장의 분석 주제와 분석 내용 소개	47
〈표 2-6〉 2020~2022년 설문조사의 조사 개요	50
〈표 2-7〉 [우울척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55
〈표 2-8〉 [전반적 생활 만족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55
〈표 2-9〉 [전반적 생활 만족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56
〈표 2-10〉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전망]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56
〈표 2-1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만 20~59세)	57
〈표 2-1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만 19~75세)	57
〈표 2-13〉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만 20~59세)	58
〈표 2-14〉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만 19~75세)	58
〈표 2-15〉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59
〈표 2-16〉 행복한 정도(만 20~59세)	69
〈표 2-17〉 행복한 정도(만 19~75세)	60
〈표 3-1〉 신뢰도 분석 결과	64
〈표 3-2〉 요인분석 결과	65
〈표 3-3〉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67
〈표 3-4〉 문항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68
〈표 3-5〉 사회 불안 문항 간 상관관계	70
〈표 3-6〉 주요 불안 인식 간 상관관계	71
〈표 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73
〈표 3-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이 높은 비율	75



〈표 3-9〉 경제수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77
〈표 3-10〉 경제수준별 불안이 높은 비율	78
〈표 3-11〉 박탈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80
〈표 3-12〉 박탈 경험 여부별 불안이 높은 비율	81
〈표 3-13〉 차별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82
〈표 3-14〉 차별 경험 여부별 불안이 높은 비율	83
〈표 3-15〉 차별/불평등 인식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85
〈표 3-16〉 차별/불평등 인식별 불안이 높은 비율	87
〈표 4-1〉 출생 코호트 구분 및 특징적인 사회적 경험	98
〈표 4-2〉 코호트별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의 사회변화	99
〈표 4-3〉 체계 불안 주성분분석 결과	102
〈표 4-4〉 생활세계 불안 주성분분석 결과	103
〈표 4-5〉 코호트별 기술통계	106
〈표 4-6〉 노드 간 연결이 강한 상위 10개 엣지값	109
〈표 4-7〉 코호트별 강도중심성 지수 순위	111
〈표 4-8〉 코호트 간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순위 유사도	115
〈표 4-9〉 코호트별 4개 하위 영역의 사회적 불안 수준	116
〈표 4-10〉 전반적 사회 불안 인지 문항과 사회적 불안 하위 차원 간 상관관계	117
〈표 5-1〉 분석 틀 설명	130
〈표 5-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131
〈표 5-3〉 사회적 불안, 개인 불안심리 변수 설명	133
〈표 5-4〉 개인 불안심리 변수	134
〈표 5-5〉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	135
〈표 5-6〉 개인 심리·불안의 설명 요인 변수	136
〈표 5-7〉 잠재계층의 개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139
〈표 5-8〉 연령별 개인 불안심리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141
〈표 5-9〉 개인 불안심리(통합)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142

〈표 5-10〉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개인 특성	144
〈표 5-11〉 청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145
〈표 5-12〉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차별 및 박탈 인식과 경험	149
〈표 5-13〉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차별 인식 항목별 특성	150
〈표 5-14〉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불평등 인식 항목별 특성	150
〈표 5-15〉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차별 경험 항목별 비율	151
〈표 5-16〉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박탈 경험 항목별 비율	152
〈표 5-17〉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사건 경험 특성	153
〈표 5-18〉 개인 불안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차별·박탈 인식, 그리고 경험(서열로짓분석)	155
〈표 5-19〉 개인 불안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별(서열로짓분석)	156
〈표 5-20〉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과 차별·박탈 인식(다항로짓분석)	160
〈표 5-21〉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적 경험(다항로짓분석)	161
〈표 5-22〉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별 (다항로짓분석)	164
〈표 6-1〉 지지체계의 유형화	176
〈표 6-2〉 박탈 경험에 따른 조건부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화	177
〈표 6-3〉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분석 방법	180
〈표 6-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182
〈표 6-5〉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184
〈표 6-6〉 19~44세 청년 및 초기중년의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박탈 경험률	185
〈표 6-7〉 45~64세 중년 현재 소득계층과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186
〈표 6-8〉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187
〈표 6-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188
〈표 6-10〉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191



〈표 6-11〉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193
〈표 6-12〉 소득계층,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관계(Multinomial logistic model)	194
〈표 6-13〉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196
〈표 6-14〉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197
〈표 6-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199
〈표 6-16〉 청년층과 노년층의 공적 지원 특성별 사회적 불안 경험자 비율	201
〈표 6-17〉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202
〈표 6-18〉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	205
〈표 6-19〉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206
〈표 6-20〉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청년층 ..	209
〈표 6-21〉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노년층 ..	209
〈표 6-22〉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212
〈표 6-23〉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214
〈표 7-1〉 사회적 고립 개념의 측정 방법	224
〈표 7-2〉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	228
〈표 7-3〉 고립의 유형과 측정	235
〈표 7-4〉 투입 변수와 처리	237
〈표 7-5〉 고립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비교	239
〈표 7-6〉 사회적 고립 유형별 기초분석 결과	241
〈표 7-7〉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243
〈표 8-1〉 주요 활용 변수	252
〈표 8-2〉 전체, 청년 및 중년의 대처성향1)	254
〈표 8-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성향	255
〈표 8-4〉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256
〈표 8-5〉 청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257
〈표 8-6〉 중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258
〈표 8-7〉 노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259

〈표 8-8〉 해결 주제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0
〈표 8-9〉 대처성향 별 삶의 만족도	261
〈표 8-10〉 삶의 만족도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1
〈표 8-11〉 삶의 만족도 '상'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2
〈표 8-12〉 삶의 만족도 '중'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3
〈표 8-13〉 삶의 만족도 '하'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3
〈표 8-14〉 코로나19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4
〈표 8-15〉 코로나19 부정적 경험자의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5
〈표 8-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267
〈표 8-17〉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사회적 불안 수준	268
〈표 8-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270
〈표 8-19〉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271
〈표 8-20〉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272
〈표 8-21〉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274
〈표 8-22〉 사회참여(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76
〈표 8-23〉 사회참여(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	277
〈표 8-24〉 사회참여(주민참여나 활동)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279
〈표 8-25〉 사회참여(주민참여나 활동)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280
〈표 8-26〉 사회참여(공공여가문화시설)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281
〈표 8-27〉 사회참여(공공여가문화시설)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282
〈표 8-28〉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283
〈표 8-29〉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285
〈표 8-30〉 연구 결과 종합	288
〈표 9-1〉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전략	303
〈표 9-2〉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불평등 대응 정책강화	306
〈표 9-3〉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 신뢰 제고	307
〈표 9-4〉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309



〈표 9-5〉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인식지표의 관리와 사회정책
합리화 310

〈부표 1〉 사회적 불안 요소 간 부분 상관관계 329

〈부표 2〉 사회적 불안 영역과 설명변수 간의 부분 상관관계: 전체 샘플 대상 330

〈부표 3〉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영역과 설명 변수 간의 부분 상관관계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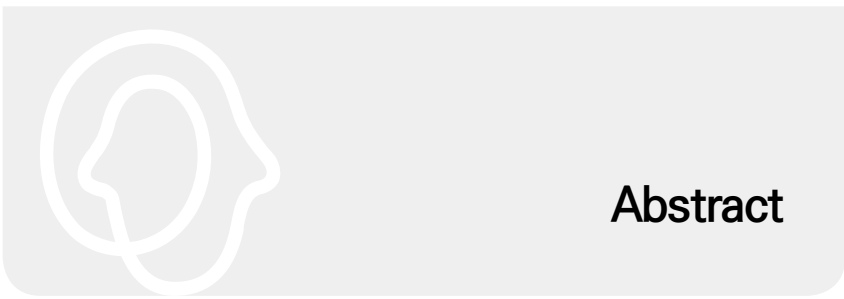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15
[그림 2-1] 주관적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	28
[그림 2-2] 사회적 불안 설명 변수 구성 틀	37
[그림 2-3] 1차 연도 연구 방법의 개요	40
[그림 2-4] 연령집단의 구분과 조사 대상의 구분	49
[그림 4-1] 사회적 불안 분석틀	104
[그림 4-2] 사회적 불안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전체 응답자	108
[그림 4-3] 코호트별 중심성 지수 순위 비교	113
[그림 4-4]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네트워크	119
[그림 4-5]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네트워크	121
[그림 5-1] 연구 모형	129
[그림 5-2]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140
[그림 5-3] 개인 불안심리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143
[그림 5-4] 청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146
[그림 5-5] 후기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147
[그림 5-6] 노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147
[그림 6-1] 소득계층, 지지체계, 사회적 불안의 구조	176
[그림 6-2] 연령 집단별 주요 변수의 특성	183
[그림 6-3] 19~44세 청년 및 초기중년의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박탈 경험률	185
[그림 6-4] 45~64세 중년 현재 소득계층과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186
[그림 6-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	189
[그림 6-6]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192
[그림 6-7]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	193
[그림 6-8]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196
[그림 6-9]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198
[그림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200
[그림 6-11]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203



[그림 6-12]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203
[그림 6-13]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205
[그림 6-14]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207
[그림 6-15]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210
[그림 7-1]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226
[그림 7-2] 사회적 지지 중심 사회적 고립의 변화	227
[그림 7-3] 사회단체 참여율	229
[그림 7-4] 주요 연령집단별 1인 가구 비율	230
[그림 8-1]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사회적 불안 수준	268
[그림 9-1]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 ...	308





Abstract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ies

Project Head: Lee, Hyo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levels, and related factor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 significant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ed high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In this study, perceived social insecurity was assessed in terms of five items: excessive competition, unfairness, unsafety, distrust in government, and ill-adaptation. The level of perceived insecurity about excessive competition was particularly high.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ed high levels of perceived insecurity about their own ill-adaptation, most of whom were likely to have been experiencing socioeconomic difficulties.

Our structural analysi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found 'inequality' and 'distrust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crises' to be the key commonalities found in all cohorts. Core items of perceived insecurity varied across cohorts. For the 1986-2001 cohort, for example, the central item of perceived insecurity was 'continued employment recession.' Individuals with higher anxiety levels had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Young people with high anxiety levels also had a

Co-Researchers: Kwak, Yoon Kyung·Lee, Ayoung·Koo, Hearan·Byun, Geumsun·Jun, Ji Hyun

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highly negative self-perception.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was at its highest for those belonging to low-income groups who had experienced deprivation and were without public or private support. In addition, public support through quasi-universal benefit programs had the effect of alleviating the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perceived social insecurity was confirmed just when social isolation was measured in term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emotional support. Among coping strategies, only social inter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social insecurity.

We conclude this study by outlining five major policy tasks based on our analysis: strengthening policies in response to inequality issues; enhancing public trust in policies; strengthening the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establishing a regular system for monitoring indicator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nd rationalizing social policy implementation.

Key words : subjective social insecurity,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nxiety, social policy, inequality, injustice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이 연구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한국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 중 5차년의 연구로,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며 분석 자료를 소개하는 도입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양상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요인을 규명하는 본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도입부인 제2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진행된 1, 2, 3, 4차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조사자료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요 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주제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이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 불안 인지는 평균 4.01로 평균이 ‘불안하다’의 수준이다.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한 4점 이상 응답자 비율은 거의 80%였다. 사회 불안 척도는 불안의 수준이 평균 3.69이고 4점 이상의 응답은 29.9%였다. 사회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보면, 격차/경쟁

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불안은 응답 평균이 '불안하다' 이상으로 높고 4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64%였다. 적응/도태 불안의 경우 4점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낮아 19.3%였다. 이 집단은 실제 생활상의 불안 요인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인구집단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가인 집단과 비교하여 비자가인 집단, 낮은 소득 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다. 소득 1분위에서는 불안의 영역 중 적응/도태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차별, 박탈의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높았고 차별이나 박탈 경험 유무 자체보다는 차별 혹은 불평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코호트별로 비교하였다. 불안 인식의 구조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재구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 영역뿐 아니라 미시와 거시 수준의 불안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분석 결과,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에서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사회적 불안의 핵심 요소들에서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986~2001년 출생 코호트(19~34세)에서는 취업불황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이, 1947~1956년 출생 코호트(65~76세)의 경우 범죄피해와 정보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불안이 핵심 요소였다. 그리고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이, 1975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의 불안이 높았다.

제5장에서는 연령대별로 개인 불안심리와 사회 불안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청중년은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낮은 자존감과 회복력)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모든 연령대

에서 사회 불안 인식 및 차별과 관련한 인식은 개인 불안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개인 불안은 격차/경쟁 불안과는 부의 관계를 가졌다. 불평등 인식 또한 개인 불안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도태 불안이 개인 불안으로 내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체계 정당성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양상의 불안이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제6장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공적, 사적 지지를 포괄하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 그리고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박탈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계층을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년층에서 일부 확인된 공적 지지의 사회적 불안 완화 효과는 노년층이 경험하는 준 보편적 지원제도 등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고립 유형을 네 가지-정서적 지지의 부재, 사회적 활동 비참여, 1인 가구,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협 경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1인 가구 여부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

립 위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 결과가 견고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 중 사회적 고립은 상대적으로 적음 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제8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선택하는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인은 주로 수면/TV/흡연/과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대처성향이 조금 상이한데 청년은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년은 수면/TV/흡연/과식을 선택하였고, 노년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격차/경쟁 불안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았다. 이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 전문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의 경우 사회적 교류 대처성향을 가진 경우 격차/경쟁 불안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사회참여와 사회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유형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상이하였다.

결론인 제9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불평등 대응 정책 강화, 둘째, 정책 신뢰 제고, 셋째, 민의 정신건강 강화, 넷째, 주관적 인식지표의 주기적 관리, 다섯째, 사회정책 운영의 합리화 모색을 제안하였다. 정책과제별로 정책전략과 이러한 제안의 근거인 분석 결과를 정리,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별 정책전략은 다음의 표와 같다.

〈요약 표〉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전략

정책과제	정책전략
불평등 대응 정책 강화	주거지원과 돌봄 지원의 안정성 확보, 준 보편화 추진
	청년의 취업과 이행기 고려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 강화
	보편적, 준 보편적 제도의 의의 재확인과 준 보편, 보편적 제도 적정 수준 확보
정책 신뢰 제고	정책 안정성 제고
	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 가시성 제고
	정부의 재난, 위기 관리와 대응의 책임성 제고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사회적 지지, 활동참여 제고
	도태, 적응 불안 대응, 예방
	사회적 연대, 문제의식 강화
인식지표의 주기적 관리	주관적 인식의 의의 수용과 지표 개발
	인식지표의 주기적 파악과 반영
사회정책의 운영 합리화	현상 중심의 특정 집단 표적화를 넘어 원인 대응으로 정책 대응 전환
	사회변화 반영 지원 단위의 개선 모색(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를 정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 용어 : 사회적 불안 인식, 불안, 사회정책, 불평등, 불공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이 연구는 2019~2023년, 5년간 진행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중 5차년 연구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불안 인식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사회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낮고 자살률은 계속 OECD 회원국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자살사건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극빈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설명을 목도하기도 한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이 극빈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 자체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정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의 2, 3, 4

차 연도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위협의 경험 여부를 통제하고 도 인식의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개인 정서적 불안에 대한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불안의 객관적인 조건, 즉 실업률이나 불평등 수준과 사회적 불안이 늘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객관적 조건을 파악한다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정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객관적인 불안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OECD나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다. 통상 개인 차원에서 불안이 높으면 왜곡된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과 타인, 외부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도 건강한 정치, 건강한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안 인식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인의 대화에서도 불안에 대한 호소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정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 설계 시에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을 이해하여야 사회적 불안에 더 잘 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정책을 구상할 때도 당연히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구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불안이 사회정책 등 정책과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매우 초보적 단계에 머

물려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주로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양상,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사회심리학을 배경으로 몇 편 시도된 바 있으나 이후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단절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과 현재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크게 변화되었고 당연히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여 표본 대표성이 높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 단위로 수행된 국외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는 비록 시차는 줄이고 있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고용불안 인식이나 박탈 인식 등 몇 가지 문항으로 대체하고 있다. 즉 해당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양상을 파악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제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 비교와 개인 단위의 일부 요인의 영향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행연구들은 국가 내 요인을 이해하기에는 투입 요인의 포괄성이 다소 약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를 규명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의 관계, 고립과 개인의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적, 공적 지지가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정책, 더 넓게는 정책이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려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규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불안 인식의 수준과 높은 불안 인식을 경험하는 국민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자원 관련 요인, 기타 관련 인식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코호트, 소득계층과 사적·공적 지원 수급, 고립, 대처성향 등 주요 요인의 영향을 별도로 심층적 수준에서 파악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을 위하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기존의 정책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과 한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하는 것도 포괄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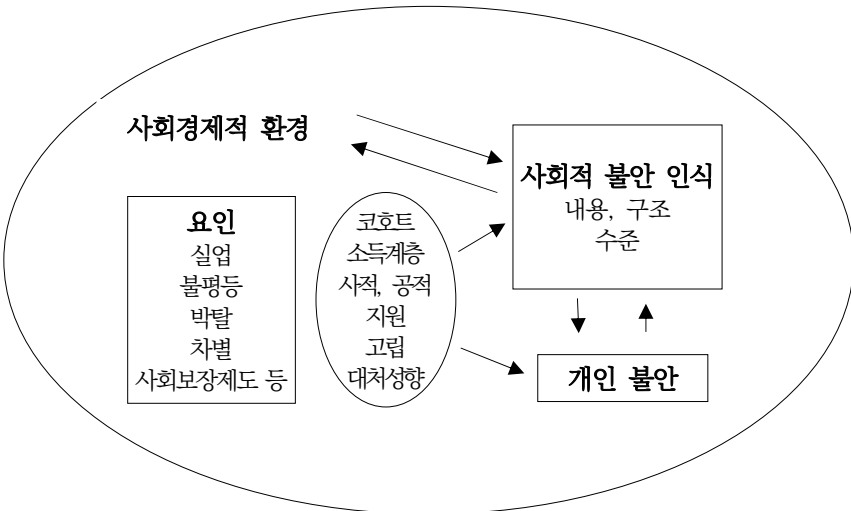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며 분석 자료를 소개하는 도입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양상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요인을 규명하는 본론,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도입부인 제2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이후 이 연구의 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정리에서 이 연구의 1, 2, 3, 4차 연도 연구도 소개하여 5차년 연구인 이 연구의 구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본론의 여러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장의 제3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 3, 4차 연도 조사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한 과정과 통합자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여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론은 제3장에서 제8장까지 총 6개 장으로 구성된다.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사회적 불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구조,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부분이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을 개괄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불안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전체적인 수준과 영역별 불안의 수준뿐 아니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 연령, 지역별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그리고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주요 집단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구조화하여 설명하고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는 구조가 어떻게 상이한지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요 요인들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도식화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과 요인의 관계를 구조로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그림 1-1]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 불안’의 관계를 집중 분석한다. 개인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인과 구조를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과관계로 두 양상의 선후를 정하는 것은 어렵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 연구의 다른 부분들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결과로 두어 개인 불안을 투입,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6장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개인의 정서적 역량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제반 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여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을 규명한다. [그림 1-1]의 원편의 내용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소득계층과 사적·공적 지원의 영향을, 제7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제8장에서는 개인의 대처성향의 영향을 분석의 초점으로 하고 있다. 초점으로 하고 있는 요인들은 불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그리고 자문회의에서 주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된 요인이자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정책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거론되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초점이 되는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면서 관련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반 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인식을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에서 초점으로 하는 요인들은 공적, 사적 지지체계, 고립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와 활동의 부족, 대처성향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가 가능한 요인들이다. 이 연구가 정책적 대안의 모색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주목하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표 1-1〉 연구의 본론 구성

주제	장의 목적과 내용
사회적 불안 인식의 이해	제3장 사회적 불안의 영역 분석 사회적 불안의 수준
	제4장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인식 구조
	제5장 개인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향 요인 규명	제6장 계층별 공·사적 지지의 영향
	제7장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제8장 대처성향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자료: 저자 작성.

결론인 제9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정책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정책적 제안은 분석 결과에 대한 반영뿐 아니라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조사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의 내용 검토와 우리나라 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계량적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하여 조사된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다. 2차 연도의 청장년 조사, 3차 연도의 노인조사, 4차 연도의 중년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여 해당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방식과 조사 시점이 상이한 세 개의 자료를 통합한 자료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합한 자료가 모드효과와 시점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의 영향을 검토하여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독자의 이해에 참고가 되도록 자료의 통합과 특성을 설명하는 지면을 할애하였다.¹⁾ 통합된 자료는 단순한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회귀분석 등 다양한 계량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 분석 방법은 각 장의 분석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와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고

1) 제2장의 제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분석 결과의 해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연구의 주제가 인식이므로 심층 인터뷰는 수량화된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 적지 않은 통찰력을 보완하도록 해주었다. 인터뷰는 인터뷰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8인으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거주자, 성별로 남성과 여성, 연령별로 30~60대, 취업과 비취업, 기혼과 미혼이 골고루 대변되도록 참여자의 구성을 설계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 관련 전문가, 현장실무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 형식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2023년 이 연구의 주요 분석 설계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지속적인 핵심 영역으로 드러났던 공정성, 그리고 객관적 지표와 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사회적 불안 인식의 이해에서 고려한 제 측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해당 포럼은 정책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마무리하였다. 사회보장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의 정책기획과 정책운영의 한계,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포럼의 형식은 아니어도 2000년대 국내에서 진행된 사회적 불안 인식 연구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그 시점에 사회적 불안 인식을 연구한 배경과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 그리고 남겨진 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로운 연구 주제에서 인식과 객관적 조건의 상이성에 대한 수용이 이들 선행연구에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환경은 심리학과 사회학 등 인간의 내면과 외부 조건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용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의 상호 교차 접근은 최근 더 발달하고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전문가가 참여하는 면담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에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정서적 건강을 유지, 강화하는 전략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헌에 대한 분석은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병행된 연구 방법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 매우 넓고, 검토하여야 하는 선행연구의 범위가 작지 않았다. 더불어 기존 정책에 대한 정보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문헌분석을 통하여 얻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 자료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제2절 1·2·3·4차 연도 연구의 개요와 시사점

제3절 분석 자료의 구축과 검증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자료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1. 사회적 불안 인식의 의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사회적 불안은 통상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을 통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하 사회적 불안은 사회와 경제라는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두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불안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인식된 사회-경제적 불안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Perceived socio-economic insecurity 또는 socio-economic insecurity perception, Akaeda & Schöneck, 2022)이나 주관적 불안(Subjective insecurity, Chung & Mau, 2014²⁾) 또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subjective social-economic insecurity, Mau, Mewes, & Schöneck, 2012)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명의 공통점은 주관적 인식을 내포하며 불안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Mau, Mewes & Schöneck(2012)은 불안 인식은 불안의 객관적 지표

2) 이들은 주관적 불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안의 객관적 형태(objective forms of insecurity)를 사용하였다(Chung & Mau, 2014, p. 303).

에 기초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주관적 기대와 정서라고 정의하였다(Mau, Mewes, & Schöneck, 2012, pp. 656-657).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는 사회적 불안(인식)을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주관적 정서이지만 이러한 정서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관된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기인하는 정서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회적 조건을 불안정하게 인식하는가는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 그들의 경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Chung & Mau, 2014, p. 306).

사회적 불안 인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단면을 지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는 객관적 측면,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면이다. 과거 사회적 불안 연구는 주로 사회적 불안의 객관적 측면, 즉 불안의 객관적 조건, 실제 문제 상황에 관심을 한정하여 왔다. 예를 들면 실업상태, 실업률, 소득빈곤, 빈곤율 등이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해당한다.

Taylor-Gooby & Zinn(2006)은 위험(risk)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의 위험에 대한 접근법은 서로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위험에 대한 심리적 사고는 최근 위험 인식에서 문화적 틀의 중요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서의 긍정적 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반면 사회학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 접근으로 움직여왔다. Taylor-Gooby & Zinn은 이러한 수렴 과정이 '연구발전에서 양 학문으로부터 통찰력을 활용하도록 그리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라고 이러한 경향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였다(Taylor-Gooby & Zinn, 2006, p. 397).

Taylor-Gooby & Zinn(2006)은 위험에 대한 학문적 접근들을 현실주의와 구성주의(Realism and Constructionism)의 축과 개인적 접근

과 사회적 접근(Individual and Social Approaches)의 축으로 구분된 4개 면에 배치하면서 각 접근이 어떻게 위협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지 비교, 설명하였다.³⁾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위협이 단지 객관적인 실제만으로 그리고 주관적인 정서로만 접근하여서는 그 정확한 작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개별 학문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0~30년 동안 사회적 불안의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 사회적 불안 인식, 즉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에 대한 연구가 발화된 배경으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적 불안 조건과 관련성을 가지지만 사회적 불안 조건과는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사회적 정서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카에다와 쇠네크(Akaeda & Schöneck)는 지각된 사회경제적 불안, 즉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 두 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한 바 있다(Akaeda & Schöneck, 2022, p. 313). 첫째, 사회경제적 불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예: 직업 및 소득에 대한 걱정)이 객관적 조건보다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주관적 인식이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향도 확인하였다. 주관적인 고용불안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관적 고용불안 인식이 미래의 실업에 대한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Green, Dickerson, Carruth, & Campbell, 2001; Stephens, 2004; Mau, Mewes, & Schöneck,

3) 이러한 접근은 위협 객관주의(risk objectivism)와 위협 주관주의(risk subjectivism)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재열, 2010; 오미영, 최진명, 2006; 김수아, 임동균, 2016, pp. 48-49에서 재인용).

2012, p. 657에서 재인용). 둘째, 인식된 사회경제적 불안이 개인의 복리(well-being),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같은 다양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Chung & Mau, 2014, pp. 308-309).

Breznau는 2020년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험 인식을 연구하면서 평상시 사회보장으로 다루던 위험들이 팬데믹 시기에 복지국가의 대응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비교하였다. 복지국가의 강점이 위험 인식을 낮추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만 복지국가가 위험 인식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Breznau의 연구에서는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인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위험 인식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심리적 부담이 될 때에는 두려움이나 좌절된 분노가 발생하고 이러한 위험 인식이 회피 또는 불필요한 위험 추구를 통해 과잉 반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Lerner & Keltner, 2001; Breznau, 2021, p. 53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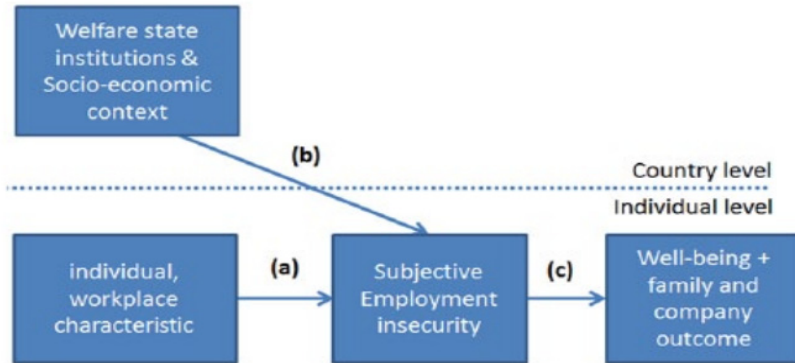
Pekari, Rosset, & Schmid(2018)는 실업위험 인식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객관적 실업위험은 주관적 실업위험에 대한 인지를 거쳐 고용 관련 사회적 보호 확충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 주관적 실업 인식이 객관적 실업률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의 관계에 높은 수준으로 매개효과를 보였다. 높은 실업 위험은 교육, 소득, 그리고 위험 인식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실업률의 영향은 매개변수를 넣었을 때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위험 인식, 소득, 교육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는데, 높은 실업위험의 보호 지지에 대한 영향 중 14% 정도를 위험 인식이 설명하고 있었다(Pekari, Rosset & Schmid, 2018, p. 226).

대부분 사회적 위험의 노출위험은 개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왔지만, 이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거의 실험되지 않았다. 위험의 경험과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인식은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인식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복지정치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일반적으로 확장하여 보면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이나 효과성은 개인들이 정책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Chung & Mau, 2014, p. 304). 복지정치라는 거시적 맥락에서의 인식의 의미뿐 아니라 개별 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도 사회구성원의 불안 인식은 이해하여야 할 중요한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가 단위의 비교 분석, 또는 국가라는 맥락과 국가 내 사회구성원의 특성을 주요인으로 연구의 범위가 구성된다. 기존 연구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분석틀은 [그림 2-1]과 같다. 이 연구는 이러한 틀에서 하단의 한 국가 내의 사회구성원의 특성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제한하고 있다.

[그림 2-1] 주관적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 Chung, H., & Mau, S. (2014). Subjective insecurity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4), p. 306.

이러한 분석 범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불안의 측정을 다룬 부분에서 설명하겠으나 사회적 불안을 국가 단위로 비교할 자료가 거의 없고 사회구성원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미시적 자료도 표준화된 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비교를 시도하게 될 경우 자료의 한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에서 특정 국면으로 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초보적 연구 단계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고 구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형적 연구설계 이전에 귀납적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 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더 정교하게 풀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2.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측정을 초점으로 한 연구는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는 사회적 불안이나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을 주제로 한 국외 연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사회심리학 배경의 국내 연구들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LO의 사회 불안 지수도 참고할 만하다.

〈표 2-1〉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 관련 연구와 측정 방식

연구 사례 분류	측정 방식	한계와 시사점
국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 연구(Akaeda & Schöneck, 2022; Chung & Mau, 2014; Mau, Mewes, & Schöneck, 2012)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고용불안, 소득 빈곤에 대한 불안, 의료서비스 박탈 등 관련 몇 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사회적 불안을 대변하기에는 활용이 가능한 기존 설문 중 일부 문항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불안을 충분히 포착하기에 한계를 지닌 것으로 추정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불안 측정과 그 특성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 국내 연구(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이훈구, 2004, 최인철, 김법준, 2005)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요인분석 등으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	사회적 불안을 여러 영역의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는 강점을 지님. 다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편의성 극복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항이나 영역의 일반성 확보에 취약할 위험이 잔존
ILO(2013) 사회 불안 지수 (social unrest index)	정부 신뢰, 생활 수준, 노동시장, 삶의 자유, 인터넷 접근성 5개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 국가별 평가가 가능한 지수 개발	생활수준, 노동시장, 정부 신뢰 등 다양한 불안 영역을 포괄하는 지수를 개발하였으나 인터넷 접근성, 삶의 자유 등 사회적 불안 자체라기보다는 관련 요인을 동등 수준으로 포괄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라는 개념 정의와 측정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준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국가 비교 연구를 시도하면서 국가 단위의 제도적, 사회적 맥락 요인과 더불어 각 국가의 사회구성원 개인의 특성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연구의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한 도구를 개발한다고 하여도 그 도구를 표준화하여 여러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정보 중 관련된 일부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불안, 소득 빈곤에 대한 불안, 의료서비스 박탈 관련 몇 개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은 사회경제적 불안의 극히 일부에 한정된 측면을 설명할 것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2000년대 사회심리학에서 출발한 연구로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사회적 불안의 특성 규명을 연구의 주된 초점으로 또는 연구의 출발로 하고 있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는 인지, 지각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을 개인적 불안, 경제적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이훈구(2004)는 예비조사와 요인분석, 타당성 검사를 거쳐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요인,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영역을 정

치, 경제, 남북, 노사, 교육, 빈부격차의 문제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인철, 김범준(2005)은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기반으로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제감 상실’, ‘사회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 등에 대한 취약성’ 3개 요인(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로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을 기초로 연구진 간 논의를 거듭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불안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조사에 대한 반영은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2020)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기 예시한 국내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의 다차원적인 내용을 측정하고자 시도된 연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절차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관련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과 주변 지인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를 실시하고 동자료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상의 한계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내용의 편향을 낳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

ILO는 국제기구 중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안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ILO는 사회 불안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돋보였는데, 하나의 예로 ILO는 2011년부터 『일의 세계 보고서(World of Work Report)』에서 사회 불안을 다양한 영역의 변수를 포괄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ILO의 사회 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는 정부 신뢰, 생활수준, 노동시장, 삶의 자유, 인터넷 접근성 5개 영역의 변수로 구성된다. 각각의 변수에는 0.05에서 0.2에 이르는

서로 다른 크기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ILO, 2013, p. 15). 사회 불안 점수는 0~1의 범위를 가지며, 0은 가장 낮은 불안 위험을, 1은 가장 높은 불안 위험을 의미한다(ILO, 2013, p. 15).

〈표 2-2〉 사회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 구성(2013년)

변수	내용	가중치
정부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 중앙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 - 부의 분배가 공평한 사회일수록 정부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음 	0.35
생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 - 가구의 생활 수준이 나아졌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며,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0.2
노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 -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0.2
삶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 어떻게 살고 싶은지(또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집단적 불만을 정부에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 통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파악 	0.2
인터넷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현대적 방식의 의사소통 통로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0.05

주: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는 2013년 지표 중 '지역 노동시장' 변수 대신 '국가 경제 여건(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변수별로 부여된 가중치도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료: ILO. (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pp. 15, 23 토대로 정리; 이현주, 박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5에서 재인용.

2015년에 『일의 세계 보고서(World of Work Report)』가 『세계 고용·사회 전망(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으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 ILO의 사회 불안 지수는 내용이 변화된다. 이전의 사회 불

안 지수가 사회 불안의 원인 혹은 매개가 되는 변수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여 2019년 보고서부터는 시위 같은 불안 표출 형태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ILO, 2019, p. 82; 이현주 외, 2019, p. 75). ILO의 사회 불안 지수는 그 수치 차이가 불안 수준의 차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나 지역이 경험하는 사회 불안 수준을 판단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을 준다(ILO, 2019, p. 82).

2019년에 변경되기 전에는 ILO의 사회 불안 지수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주요 차원을 반영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 신뢰, 노동시장 환경, 생활수준 전망과 체감, 삶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수준 등이 사회적 불안 인식의 주요한 제 측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 영역 중 정부 신뢰에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중요한 인식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반영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접근성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불안으로 개인의 체감, 개인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능성, 전제 조건 등을 대변하는 요인이기도 하여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인식)을 측정하고자 시도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자료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5점 척도(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 매우 불안하다) 문항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였다. 단문으로 조사된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회적 불안 인지'로 명명하였다. 둘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의 24개 문항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였다. 24개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 인

식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사회적 불안의 값은 ‘사회적 불안 인식’ 또는 ‘사회적 불안 인식 척도’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은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개인 불안은 중(Zung)의 자기평가 불안 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활용하였다(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 1984). 기타 조사의 설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현주 외(2020)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련 요인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정서불안, 사회적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요인을 분석한 국외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단위의 요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가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국가 단위 요인과 국가 내 개인 단위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Mau, Mewes & Schöneck, 2012, Akaeda & Schöneck, 2022)도 존재한다. Mau, Mewes & Schöneck은 그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설명하는 국간 간 차이 변인의 상당 부분이 국가 내 사회적 경제적 특징이 다른 개인의 구성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 사이의 변인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았지만, 이들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 단위 변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

4)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와 정리는 이현주 외(2020)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을 확인하였다(Mau, Mewes, & Schöneck, 2012, p. 669). 이 연구는 국가 비교를 시도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한 국가 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국가 내부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제 요인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하겠다. 특히 국가 단위 정책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응하고자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Akaeda & Schöneck(2022)는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요인을 다루는 다층적인 분석에서 국가 단위의 경제발전 수준, 사회복지 지출,⁵⁾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등의 환경요인 외에도 개인 단위에서 성, 연령, 교육, 경제적 수준, 실업 경험, 고용불안정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한 바 있다. 여성, 실업 경험을 가진 집단, 고용불안 상태의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인식하였다. 반면 높은 연령(56~64세)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소득인 높은 집단은 불안 인식 수준이 낮았다. (Akaeda & Schöneck, 2022, p. 324-325). 이들의 분석에 사용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물질적 박탈이나 고용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요인의 영향을 보면, 높은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이 낮았다. 반면 지니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높였다. Mau, Mewes, & Schöneck(2012, p. 669)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단계 분석을 한 결과, 개인 단위에서 계층, 실업의 경험, 고용안정성, 복지 수급, 성, 연령, 학력이 영향을

5) 사회복지 지출은 국가 간, 국가 내 시점 간 영향이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높은 사회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주었고 높은 사회복지 지출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사회복지 지출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역으로 사회경제적 불안이 높으면 더 높은 사회복지 지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비숙련 육체노동자와 비교하여 서비스업 종사자, 비육체노동자, 소규모 자영자가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낙관적이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을 덜 느꼈으며 실업 경험이 불안 인식을 높였다. 고용안정성이 낮아도 불안이 높았고 복지 수급에 의존하는 집단의 불안도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사회경제적 불안에 대하여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은 선형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고 56~65세 연령집단이 15~25세와 비교하여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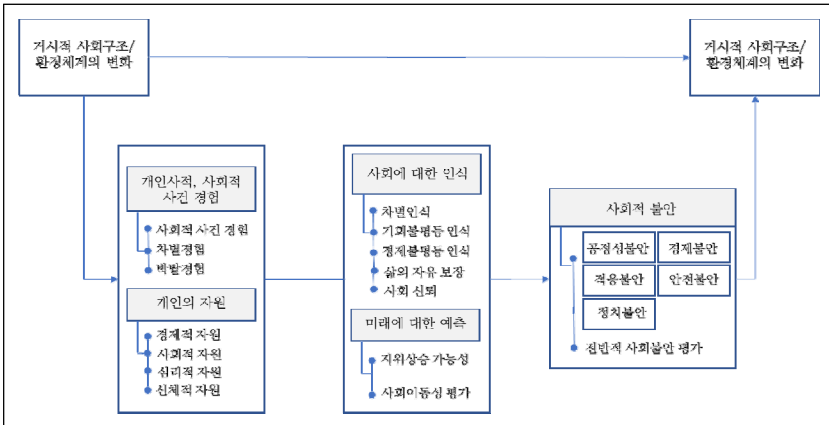
국내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최인철과 김범준(2005)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소득 수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세대별,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났으며, 특히 공정성 불신에 대한 세대 차이, 사건, 사고에 대한 취약성 면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호와 그의 동료들은(홍영호,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은 성, 연령, 결혼상태, 계층의식, 교육수준, 거주지역, 거주유형,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한국 사회의 문제와 특성에 대한 지각, 한국 사회의 예측 불가능성, 이동 불가능성, 불공정성, 통제 불가능성, 불확실성, 불신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불안의 설명 요인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계층의식,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현주 외, 2020. pp. 113-114에서 재인용).

사회적 불안은 사건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박수애, 홍영호, 송관재, 2003; 홍영호 외, 2006; 이현주 외, 2020. pp. 113-114에서 재인용).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실직, 사회적 박탈,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부정적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 신뢰, 사회적 지원망 같은 사회적 자본,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이상영 외, 2015, pp. 20-21; 이현주 외, 2020, p. 114에서 재인용).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지목한 소득과 학력도 개인의 경험과 불안의 관계에 관여할 수 있다.

[그림 2-2]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개인의 차별, 박탈 경험, 이러한 경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 보유 수준, 결과로 구성되는 각종 인식이 종합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사회 단위의 사회적 맥락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2-2] 사회적 불안 설명 변수 구성 틀



자료: 이현주,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5.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물질적 박탈이나 고용불안, 실업전망 등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게 될 경우 낮은 소득계층과 저학력이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 심화, 사회의 공정성, 정부 신뢰 등이 사회적 불안 인식의 중요한 측정 영역이 되면 소득과 학력의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도 종종 쟁점으로 등장한 바 있다.

제2절 1·2·3·4차 연도 연구 개요와 시사점

사회적 불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로 한 이 연구는 5년간 진행된 연구의 5년 차 연구이다. 2023년에 진행된 이 연구는 2019년부터 진행된 4년 동안의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 연차의 연구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 연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다루어진 이전 4년간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5년간의 연구는 2019년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작으로 3년의 연령집단별 설문조사⁶⁾와 분석, 그리고 5차 연도인 2023년 종합 분석과 정책적 논의로 구성된다. 지난 4년간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2020년 연구사업의 예산편성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를 3년에 걸쳐 연령집단별로 수행하게 되었다. 3년간의 조사는 청·중년 초기(19~44세), 노인(65세 이상), 후기중년(45~64세) 대상별로 특화하여 실시하였다.

〈참고〉 연구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5년의 구성

- 1차 연도(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2차 연도(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장년(중년전기)의 사회적 불안
 3차 연도(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노인의 사회적 불안
 4차 연도(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중년(후기)의 사회적 불안
 5차 연도(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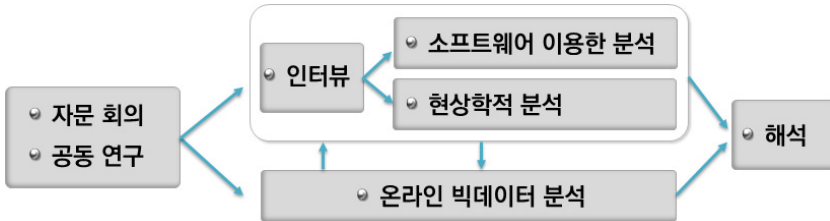
1. 1차 연도(2019년) 연구의 주요 내용

2019년에 진행된 1차 연도 연구⁸⁾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도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방적 탐색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분석과 더불어 연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진행될 설문조사의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였다.

7) 당초 2회의 조사로 설계된 조사가 이후 조사 일정이 1년 추가되면서 청년과 중년 초기로 연령 구분이 수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3차 조사에서 조사 대상은 후기중년으로 구체적 구분이 필요하여졌다.

8) 해당 연구는 이현주 외(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3] 1차 연도 연구 방법의 개요



자료: 이현주, 박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연도의 ‘불안’ 연관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정부’, ‘대통령’ 연관어의 등장 빈도 높아 그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둘째, ‘건강’은 중요한 연관어였고, 최근으로 올수록 정신건강 연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 ‘안전’ 연관어가 주요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었다. 넷째, ‘가족’이 중요한 연관어였다. 네트워크상 가족이라는 연관어의 위치를 보면 가족이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반면에 가족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는 경향도 엿볼 수 있었다.

연관어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불안은 교육과 취업, 부동산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경제, 시장, 금융 같은 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이슈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간에 가족이라는 연관어가 위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불안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안 경험은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관련이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빈곤층은 불안감이 가장 컸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느꼈다. 둘째, 20~30대 연령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미래전망, 자신의 삶의 방향과

관련된 불안이 컸다.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은 자녀 교육, 더 높은 소득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지위 불안이 컸다. 셋째,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여자들은 나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도 여전히 준거 집단으로 인한 압박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

현상학적 분석에서 불안 인식과 생활 만족의 관계가 단일하지는 않아서 불안과 생활 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에는 경제적 경기 상황, 한국 고유의 문화, 미래 불확실성 증가, 소셜 미디어(SNS), 사건·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 결과, 공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회적 지지나 본인의 힘으로 불안에 대응·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적인 영역의 도움이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각자의 노력과 주변의 비공식적인 도움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체계가 약화되는 환경에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판단하면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의 빠른 변경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성과 신뢰 회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더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2. 2차 연도(2020년 연구⁹⁾의 주요 내용

2020년에 수행된 2차 연도 연구는 청중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을 개발한 다음 3,117명의 청중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인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수준을 밝히고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성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단문으로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가 4.14 정도로, ‘불안하다’ 이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평균은 3.73으로, ‘불안하다’라는 응답은 4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은 경쟁/불평등, 공정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로 구성되었다. 영역별로 불안 인식의 수준을 보면 경쟁/불평등 영역, 공정성, 정부 신뢰의 순으로 불안 수준이 높았다. 특히 경쟁/불평등과 공정성의 불안 수준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9) 해당 연구는 이현주 외(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3〉 사회적 불안 인식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요인
	1	2	3	4	5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714	.169	.238	.166	.088	공정성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699	.152	.148	.258	-.052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695	.186	.066	.006	.310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624	.401	.065	.056	.24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525	.275	.138	.254	.113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458	.290	.378	.243	.256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207	.719	.196	.080	-.049	경쟁/ 불평등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425	.667	.048	.041	.006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014	.633	.102	.139	.335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273	.515	.018	.035	.445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417	.501	.103	.104	.141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326	.390	.174	.303	.177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098	.056	.878	.159	.137	정부 신뢰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160	.152	.856	.151	.101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20	.180	.673	.049	.118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160	.097	-.018	.761	.239	안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211	-.021	.150	.724	.201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058	.284	.353	.521	-.010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265	.230	.072	.515	.268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468	-.080	.240	.499	.119	적응/ 도태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205	.028	.055	.238	.703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017	.321	.096	.221	.647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39	-.079	.360	.104	.598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033	.205	.151	.382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4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표 2-4>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응답자		청년		중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 불안 인지	4.14	0.79	4.13	0.78	4.15	0.81	
사회 불안	전체	3.73	0.53	3.74	0.55	3.72	0.51
	공정성	3.95	0.65	3.92	0.67	3.99	0.62
	경쟁/불평등	4.16	0.55	4.14	0.57	4.17	0.52
	정부 신뢰	3.49	0.92	3.54	0.90	3.41	0.94
	안전	3.45	0.68	3.48	0.70	3.41	0.64
	적응/도태	3.30	0.72	3.33	0.73	3.26	0.69
개인 불안	2.37	0.64	2.41	0.65	2.33	0.62	

주: 1) 지각된 사회 불안과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원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 불안과의 비교를 위해 5점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청·중년층이 사회적 불안 인식 구조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편법 사회라는 인식이 청년과 중년 집단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노드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주관적인 인식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차별 경험과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차별 인식, 기회 공정성과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요인들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면 여성의 경우 아동이 있는 여성의 불안이 높아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의 괴리가 여성의 불안을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대처기제는 사회적 조건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차 연도(2021년) 연구¹⁰⁾의 주요 내용

2021년에 수행된 제3차 연도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노인의 생애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노화 불안을 추가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조사는 조사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대면 조사로 시행하였다.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3.49로, 노인들은 우리 사회가 다소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도 전체 평균은 3.3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왔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은 적응/안전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불신/무망감, 불평등 불안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불평등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해 인지하는 원인은 사회신뢰도, 세대 내 사회이동성, 차별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영역에서는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사회신뢰도, 차별 인식, 불평등 인식,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현재 근로 여부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 불안, 개인의 불안에 대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소득분위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어 소득이 낮은 분위의

10) 해당 연구는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2021)를 참조하기 바란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적응/안전 불안을 제외하고는 기타 유형에서는 5분위의 불안 수준이 소득이 낮은 분위보다 높았다. 노인 비빈곤층은 가구 규모, 건강 수준,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경제위기 영향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빈곤층은 박탈 경험, 경제활동 상태 등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 점수가 높지만,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일부 영역에서는 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달랐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집단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수준별로 보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촘촘한 사회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지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투입한 결과,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4차 연도(2022년) 연구¹¹⁾의 주요 내용

2022년에 수행된 제4차 연도 연구는 45~64세 집단, 중년후기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2022년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표 2-5>와 같다.

11) 해당 연구는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2022)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2-5〉 본론 각 장의 분석 주제와 분석 내용 소개

분석 주제	주요 분석 내용
사회적 불안의 구성과 수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별 불안의 수준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에 대한 잠재적 집단 분석, 개인 불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사회적 불안의 사회경제적 요인	돌봄 부담, 노후준비, 후기중년의 생애 경험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분석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기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영향 및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 조절효과 분석

자료: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중년 후기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도 높았다. 척도화된 불안 인지의 수준은 평균 3.8로 ‘불안하다’에 가까웠고 추상적인 질문,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단문에 대한 답은 평균 4점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불안하다’고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8.2%였다. 연령을 구분하여 보면 45~5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이 55~6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보다 높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으로 구분되었다.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이 가장 심각해서 평균 4.00점이었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불공정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개인적 불안을 높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사회적 불안 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인 불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3.1%가 자존감 및 회복성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였고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안정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불안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있어서는 불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 수준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세 이전 소득 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득이 하위계층이고,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누적 횟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돌봄과 노후준비라는 이중 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불안에 대한 대처성향을 분석한 결과, 후기 중년은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과 여가·문화·종교 활동 등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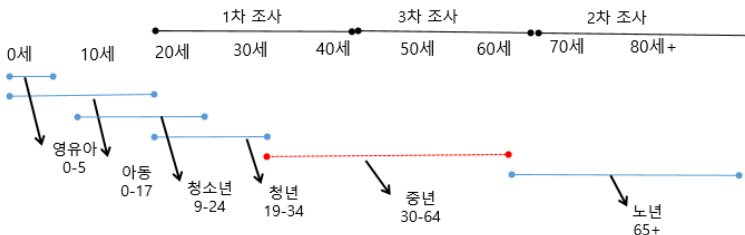
데 있어 사회관계(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만 경쟁/도태 불안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관계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경쟁/도태 불안 간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제3절 분석 자료의 구축과 검증

1. 조사 자료의 통합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앞의 3년에 걸쳐 연령을 기준으로 세 개 집단으로 조사 대상을 구분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23년 진행되는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관련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조사자료를 통합하여야 했다.

[그림 2-4] 연령집단의 구분과 조사 대상의 구분



자료: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

3년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의 조사 내용은 사회적 불안 인식(약 22개 문항)과 영향 요인(소득, 재산, 학력, 경제활동, 가족구성,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경제적 어려움 경험, 돌봄 부담, 개인의 정서적 불안 수준, 기타 관련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구성이 주를 이루었으나 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각 연도마다 조사 내용에 일부 상이한 문항 구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과 후기 중년 대상 조사에서는 노후준비 문항이, 청년과 중년 초기 대상 조사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등과 관련된 문항이 조금 더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된다.

공통문항과 연령별로 특화된 문항을 포괄하되 3년간의 자료를 안정적인 자료로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3년간의 조사자료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일 뿐 아니라 조사 방식도 면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연도별로 달리 선택되어 모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다.

〈표 2-6〉 2020~2022년 설문조사의 조사 개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사 대상	전국 만 19~44세 남녀	전국 만 65~74세 남녀	전국 만 45~64세 남녀
표본 크기	3,117명	1,000명	3,575명
표본 설계	-2020년 7월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비례할당을 적용하여 표본을 구성함	-지역별, 성별, 연령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가구소득 분포 추가 할당(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6월 말) 자료에 근거해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 추출 -가구소득 분포 추가 할당(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방문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9월 2일 ~ 9월 21일	2021년 6월 29일 ~ 7월 23일	2022년 8월 4일 ~ 8월 18일

자료: 저자 작성.

모드효과는 응답 표본의 차이로 발생하는 선택효과와 조사 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측정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백지선, 심규호, 홍영택, 장덕현, 2017, p. 1). 표본효과는 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정확하게 표본관리와 응답자에 대한 선별과 처리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측정효과의 경우도 여러 조사 방식을 혼용한 경우에 한하여 파악이 가능한데,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려면 적절한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사 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조사 방식을 적용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자료는 흔하지 않다. 백지선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문항과 달리 인식 문항에는 측정효과가 존재하였다. 대체로 웹조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노출하며, 사회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는 반면, 면접조사는 바람직한 응답, '보통', '변화 없음' 응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백지선 외, 2017, p. 1).

혼합조사를 시행할 때 여러 조사 방법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되 민감한 문항들은 자기입식으로 조사하여 한 응답자에게 여러 조사 방법을 혼합할 수 있다(one sample, one time point, but different parts of the q'naire). 패널조사에서는 동일 응답자에게 다른 시점에 다양한 모드를 시행한다(one sample, multiple time points). 가장 대표적인 시행 방식은 응답자에 따라 각각 다른 하나의 모드로 시행하는 것이다(one sample, one time point, one q'naire)(백지선 외, 2017, p. 3). 이 연구의 조사자료는 세 번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이 조사자료는 조사자료마다 조사 시점이 다르다.

통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업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의 통합 방식과 각 통합 방식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조사

자료의 통합에서 조사의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조사 기준 시점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 방식으로 몇 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조사가 진행된 3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합하고 그 기준 시점에 맞추어 센서스 기준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이다. 이 경우 기준 시점을 반영한 응답자의 연령을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센서스 기준 3년의 집단 구성 평균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가상시점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다.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거나 연구 주제인 경우 이러한 통합 방식은 상대적 이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여 3년간의 조사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 전 인구 대표 조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가상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하면서 표본설계에서 활용된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집단별 구성의 3년 평균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성, 연령,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각 셀별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적용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응답자의 연령을 특정 기준시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사라지고 응답자의 연령 요인의 영향을 더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20년의 30세가 30세의 인식으로 응답하였을 것이므로 이 연령을 자료 통합 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연령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사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영향은 해당 시점에서 유의미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20~2022년 사이에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사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들 수 있다. 2020년과 2022년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인식과 개인적인 정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석을 하면서 분석에서 그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요인을 통제하거나 또는 해석에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 시점의 통제나 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조사 시점

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해석에서도 이러한 조사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는 노력을 하였다.

조사 시점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여전히 조사 방식이 상이하게 때문에 발생하는 모드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대면 조사 방식은 다른 연령집단의 온라인 조사 방식과 달리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한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최근에는 온라인 조사 방식과 면대면 조사 방식을 모두 활용하기도 하며 표본 중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즉 노인의 경우 온라인 접근에 취약할 수 있고, 반면에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면대면 조사에서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환경에서 모드효과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모드효과를 적시하고 분석에서 이를 주의하며 독자에게도 모드효과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여야 했다.

면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응답 경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온라인 조사의 경우 ‘모르겠다’, 그리고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온라인 조사의 경우 만족도가 더 낮고, 우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온라인 조사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의 응답 경향이 낮아지거나, 고학력 집단과 비경활 집단의 조사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집단의 참여, 의견이 강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 통합 자료의 검증

3년의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자료의 분석에 앞서 자료 통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년 정도의 기간에는 조사의 주제가 되는 내용, 즉 인식의 변동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3년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할 전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이 일정 기간 안정적이라면 3년간의 조사 자료의 통합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핵심적인 검토의 지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이한 세 시점의 환경이 응답자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더불어 2022년 대선으로 인한 정책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조사 시점이 2020~2022년이고 2022년 조사가 대선 바로 이후이므로 앞의 조사 시점과 조사 이후의 인식 변화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을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더 어렵다.

패널자료와 주기적 조사가 유지된 횡단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인식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인식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사용한 자료들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한 자료들이 아니므로 인식, 또는 관련 문항의 응답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의 큰 변동은 아니지만 2022년은 2020년과 비교하여 불안 관련 인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청년과 중년, 노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의 우울과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우울이 1점을 넘어서는 변화를 보인 집단은 전 응답자의 3~5%였다. 1점 이상의 변화를 보인 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은 노인집단이었다. 전반적 생활 만족의 변화 양상도 유사하였다. 태도의 변화를 보인 집단의 규모가 그리 큰 것은 아니었

다. 다만 태도의 변화를 보인 집단이 연령이라는 점 외에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특징을 가지는 집단일 경우 그 영향이 높을 수 있다.

〈표 2-7〉 [우울척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2019~2022	2020~2022	2020~2021	2021~2022
전체	3.77	3.35	3.02	3.54
19~44세	3.15	2.96	2.33	3.31
45~64세	3.39	2.89	2.69	3.40
65세 이상	5.43	4.83	4.87	4.16

주: 지난 1주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문항이며, 극히 드물다 1점~대부분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측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2-8〉 [전반적 생활 만족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2019~2021	2019~2020	2020~2021
전체	2.93	3.64	3.49
19~44세	2.62	3.47	3.83
45~64세	2.94	3.45	3.22
65세 이상	3.50	4.37	3.3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의 5점 척도로 측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서 1점을 초과¹²⁾하는 변화를 보인 비율도 1% 정도였다. '5년 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전망'도 유사하여 1점 초과 변화가 있던 응답자 비율은 1~3% 정도였다. 패널자료는 동일 응답자의 인식이 3년간 어느 정

12) 단문의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로 여타 다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 비교하여 변동성이 커서 1점 초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 변화하는지, 즉 인식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를 보는 데 상대적으로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인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식이 변화되는 집단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2-9〉 [전반적 생활 만족도]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2019~2021	2019~2020	2020~2021
전체	1.09	1.01	0.79
19~44세	1.16	1.15	0.83
45~64세	0.97	0.82	0.70
65세 이상	1.18	0.97	0.91

주: 매우 만족스럽다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 5점의 5점 척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2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3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4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표 2-10〉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전망] 1점 초과 변화가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2019~2021	2019~2020	2020~2021
전체	1.80	1.48	1.50
19~44세	1.24	1.13	0.87
45~64세	1.74	1.60	1.45
65세 이상	2.96	2.03	2.84

주: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5점의 5점 척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2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3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4차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횡단면 자료의 시기별 비교 분석을 병행한 결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만 20~59세 응답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2019년 5.02에서 2020년 4.92, 2021년 5.44, 2022년 5.06으로 변하여 10점 척도에서 중간 즈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2022년 사이의 변화 중에서는 2021년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20년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1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만 20~59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5.02	4.92	5.44	5.06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믿을 수 없다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연령을 확대하여 보면, 만 19~75세 응답자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는 역시 중간 즈음의 수준을 보였지만 2021년이 역시 높았고 오히려 변화의 정도는 작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유사했다. 다만 10점 척도에서 2.22와 2.70을 유의미한 변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2-1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만 19~75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1	2022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5.00	5.37	5.07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믿을 수 없다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5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표 2-13>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만 20~59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29	2.08	2.36	2.53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48	2.22	2.48	2.70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믿을 수 없다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2-14>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만 19~75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1	2022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30	2.33	2.51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48	2.46	2.68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믿을 수 없다 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도 1.7점대로 세 시점 응답 평균이 유사하다. 다만 2021년 이후 .03점 정도로 소득격차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15〉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만 20~59세)	1.78	1.77	1.74	1.74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만 19~75세)	1.79	-	1.74	1.93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매우 동의한다 1점~매우 반대한다 5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행복한 정도를 조사한 경우에도 2020년에는 행복하다는 응답의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0점 척도에서 5점 후반~6점 후반 사이에 응답 평균이 자리하고 있다. 75세 이하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변화는 더 적다. 노인의 인식 변화가 젊은 층과 비교하여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6〉 행복한 정도(만 20~59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6.60	5.40	6.40	6.71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매우 행복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6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표 2-17〉 행복한 정도(만 19~75세)

(단위: 점)

구분	2019	2021	202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6.48	6.33	6.63

주: 1) 2019년, 2021년, 2022년 조사는 만 19~75세를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였으며, 2020년 조사는 만 20~59세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음.

2)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매우 행복했다 10점으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제3장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제1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

제2절 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비교



제 3 장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제1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자료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5점 척도(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 매우 불안하다, 사용되는 측정 방법의 구분을 위하여 이 하 이 측정 방법으로 확인된 불안 수준은 ‘사회 불안 인지’로 명명하였다)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의 24개 문항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였다(24개 문항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전자의 ‘사회적 불안 인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 또는 ‘사회적 불안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24개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인식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값이 .917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항의 경우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값이 .917보다 낮아져 각 문항 모두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일파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487	.915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485	.915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557	.914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 질 것이다.	.470	.915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527	.915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623	.913
7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479	.915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597	.913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579	.913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629	.913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692	.911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585	.913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493	.915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508	.915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523	.915
16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418	.917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459	.916
18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513	.915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580	.913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584	.913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584	.913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536	.914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42	.914
24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30	.9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불안은 총 5개의 불안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공통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한 문항 24개를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5개 영역은 각 영역의 문항 구성을 고려할 때,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표 3-2〉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요인
	1	2	3	4	5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 질 것이다.	.695	.204	.056	.119	.009	격차/ 경쟁 불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661	.403	-.002	.126	.01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650	.008	.203	.066	.249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581	.258	.100	.063	.327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531	.312	.103	.123	.138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434	.222	.350	.273	.111	불공정/ 불확실 불안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209	.696	.225	.264	.058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215	.679	.259	.225	-.051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261	.670	.048	.117	.312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438	.596	.044	.136	.228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322	.456	.273	.357	.221	안전 불안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350	.409	.327	.221	.052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119	.131	.728	.019	.301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협을 느낀다.	.029	.161	.721	.129	.222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056	.400	.583	.155	.121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305	-.094	.574	.275	-.023	정부 불신 불안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259	.263	.520	.085	.284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082	.164	.147	.861	.117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166	.189	.165	.844	.088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7	.282	.109	.630	.148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099	.194	.209	.015	.747	적응/ 도태 불안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027	.301	.135	.354	.620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409	-.032	.232	.041	.598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273	-.030	.239	.216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을 이후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도 구분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제4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개인이 삶에서의 불안(생활세계의 불안)과 사회 차원의 불안(체계 불안)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재구조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4장이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를 초점으로 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개인 차원의 일상의 삶과 관련이 높은 속성의 불안 인식과 사회 차원의 사회체계와 관련인 높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구분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기타 다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각 장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 구분이 다를 경우 분석이 너무 복잡하고, 일부 분석에서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의 구분이 분석에 덜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추가적인 이유는 체계와 개인의 생활세계의 불안으로 구분하는 경우 조사된 문항의 일부가 제거되기도 하여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 구성은 향후 더 많은 조사, 연구를 거듭하면서 정교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제4장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구조 분석은 이러한 분석의 또 다른 시도 중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측정 방법과 주요 영역별로 불안의 수준을 보면 <표 3-3>과 같다. 사회 불안 인지는 평균 4.01로 평균이 '불안하다'는 수준이다.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한, 4점 이상 응답자 비율은 거의 80%에 이른다. 사회 불안 척도는 불안의 수준이 이보다 낮지만 평균이 3.69이고 4점 이상의 응답은 29.9%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보면 격차/경쟁 불안은 응답 평균이 '불안하다' 이상으로 높고 4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64%에 이른다. 불공정/불확실 불안도 높아서 응답 평균은 3.90이고 4점 이상 응답한 비율도 53.7%에 이른다. 앞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매

우 높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한지, 사회 차원의 불안 인식은 넓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응/도태 불안의 경우 4점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낮아 19.3%이다. 개인적인 도태를 우려하는 불안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은 실제 생활상의 불안 요인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표 3-3〉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4점 이상 비율 ³⁾	연령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사회 불안 인지 ¹⁾	4.01	0.847	79.5	84.8	79.5	59.3
사회 불안 척도 ¹⁾	3.69	0.536	29.9	32.0	34.4	7.1
격차/경쟁 불안	4.05	0.566	63.7	72.1	65.4	26.8
불공정/불확실 불안	3.90	0.667	52.7	56.3	58.1	21.0
안전 불안	3.38	0.672	22.3	25.4	23.3	7.2
정부 불신 불안	3.65	0.874	45.3	38.1	59.9	22.7
적응/도태 불안	3.27	0.694	19.3	21.5	18.9	12.8
개인 불안 ²⁾	1.95	0.457	2.6	4.0	1.7	0.2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4점 이상인 비율, 개인 불안은 3점 이상인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문항별로 보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에 대한 불안 인식은 평균 4.36으로 매우 높고 약 89%가 '불안하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불평등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취업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인식한다.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에 '불안하다' 이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를 넘기고 있다. 한편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안도 매우 높아서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에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에 이른다.

〈표 3-4〉 문항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

문항	평균	표준편차	4점 이상 비율	4점 이상 비율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3.91	0.795	77.6	83.2	80.0	48.6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3.36	0.946	49.1	56.0	46.1	33.7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3.91	0.856	73.6	79.3	75.2	47.0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4.21	0.744	87.2	90.1	89.0	70.3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4.36	0.747	88.9	89.5	92.1	75.5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4.11	0.837	80.8	82.2	84.4	63.4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3.21	1.025	41.5	46.6	36.8	37.9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3.85	0.958	69.1	69.6	73.2	53.5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3.95	0.915	71.6	74.4	76.5	45.2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3.86	0.875	69.9	70.9	74.4	50.7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3.76	0.885	66.2	68.2	69.0	49.0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3.69	0.915	63.2	65.7	67.1	40.5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3.27	0.930	39.6	41.5	40.7	29.1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3.23	0.920	40.9	42.7	42.2	30.0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3.28	0.992	43.9	47.2	43.4	33.2
16)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3.46	0.960	53.9	57.5	56.5	31.6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3.42	0.848	49.2	45.5	53.5	48.6
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4.10	0.880	79.1	82.8	79.0	65.6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3.87	0.856	70.4	70.5	77.7	45.3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3.79	0.869	69.0	70.9	74.8	42.1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3.69	0.988	60.6	51.3	74.3	49.0

문항	평균	표준 편차	4점 이상 비율	연령		
				청 중년	후기 중년	노년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3.55	1.062	54.1	41.8	70.8	43.5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70	1.008	61.4	59.8	68.2	44.4
24)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09	1.012	34.2	32.7	35.6	34.9

주: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3-5>를 보면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은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한 미래 문항이고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문항이다.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외곽에는 주로 개인적인 적응, 피해 우려가 위치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각한 사회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이나 도태, 안전확보의 불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불안 인식의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회 불안 인지와 격차/경쟁 불안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사회적 불안 인식의 핵심적인 불안은 격차/경쟁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격차/경쟁 불안은 전체 사회 불안 인식 척도에서도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불안 영역이다. 개인 불안과 상관관계가 높은 불안은 적응/도태 불안과 안전 불안이었다.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은 안전 불안 외에는 격차/경쟁 불안과, 안전 불안은 적응/도태 불안을 제외하고는 불공정/불확실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 불안은 적응/도태 불안, 안전 불안과 관련을 가지고 적응/도태 불안과 안전 불안은 각각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3-6〉 주요 불안 인식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척도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인지	1	.507***	.492***	.452***	.360***	.364***	.318***	.207***
사회 불안 척도	.507***	1	.820***	.876***	.784***	.708***	.753***	.392***
격차/경쟁	.492***	.820***	1	.708***	.496***	.453***	.529***	.236***
불공정/불확실	.452***	.876***	.708***	1	.568***	.574***	.525***	.269***
안전	.360***	.784***	.496***	.568***	1	.449***	.573***	.385***
정부 불신	.364***	.708***	.453***	.574***	.449***	1	.413***	.187***
적응/도태	.318***	.753***	.529***	.525***	.573***	.413***	1	.501***
개인 불안	.207***	.392***	.236***	.269***	.385***	.187***	.501***	1

주: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2절 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비교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표 3-7〉과 〈표 3-8〉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사회 불안 인식 및 개인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불안 인식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정부 불신을 제외하고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 모두 여성의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 불신에서 기인한 불안 인식은 남성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정부 불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특히 30대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정부 불신 영역에서는 50대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40대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사회 불안과 관련된 인식에서는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개인 불안에서는 반대로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 모두 응답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불안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가구 특성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 규모에 따라서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가구 규모가 큰 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불안도 모든 불안 유형에서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불공정/불확실 관련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는 1인 가구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구의 거주지역별 불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 특히 대도

시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불신 및 불공정/불확실 불안 영역에서는 농어촌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거나 대도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성	3.90 (.89)	***	3.66 (.55)	***	4.01 (.58)	***	3.90 (.68)	3.31 (.68)	***	3.67 (.89)	#	3.24 (.70)	***	1.91 (.46)	***	
	여성	4.12 (.78)		3.72 (.53)		4.09 (.55)		3.90 (.65)	3.46 (.65)		3.63 (.86)		3.30 (.68)		1.99 (.46)		
연령대	30대 미만	4.09 (.80)		3.71 (.55)		4.12 (.58)		3.86 (.68)	3.45 (.71)		3.54 (.91)		3.31 (.74)		2.04 (.49)		
	30대	4.21 (.76)		3.78 (.53)		4.20 (.54)		4.02 (.63)	3.48 (.66)		3.52 (.92)		3.35 (.71)		2.07 (.49)		
	40대	4.09 (.81)	***	3.76 (.52)	***	4.13 (.51)	***	4.01 (.63)	3.42 (.67)	***	3.71 (.90)	***	3.29 (.69)	***	1.95 (.46)	***	
	50대	4.04 (.81)		3.77 (.49)		4.08 (.50)		3.99 (.63)	3.43 (.62)		3.92 (.77)		3.27 (.66)		1.89 (.44)		
	60대	3.72 (.92)		3.54 (.53)		3.82 (.57)		3.73 (.68)	3.23 (.64)		3.59 (.82)		3.14 (.66)		1.83 (.39)		
	70대 이상	3.53 (.93)		3.29 (.52)		3.54 (.59)		3.40 (.66)	2.95 (.67)		3.29 (.72)		3.16 (.65)		1.88 (.36)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5 (.96)		3.40 (.58)		3.62 (.64)		3.52 (.70)	3.12 (.67)		3.38 (.78)		3.25 (.67)		2.00 (.41)	
고졸		3.95 (.86)	***	3.65 (.56)	***	3.97 (.60)	***	3.82 (.69)	3.35 (.70)	***	3.63 (.85)	***	3.29 (.70)	***	1.96 (.47)	**	
대졸 이상		4.07 (.82)		3.74 (.51)		4.12 (.52)		3.97 (.64)	3.43 (.65)		3.68 (.89)		3.26 (.69)		1.94 (.46)		
주관적건강상태	하	4.22 (.80)		3.92 (.52)		4.21 (.54)		4.13 (.63)	3.61 (.66)		3.89 (.87)		3.55 (.68)		2.26 (.50)		
	중	4.03 (.79)	***	3.72 (.51)	***	4.06 (.55)	***	3.92 (.65)	3.42 (.63)	***	3.67 (.83)	***	3.32 (.64)	***	1.98 (.41)	***	
	상	3.87 (.91)		3.55 (.54)		3.96 (.58)		3.77 (.68)	3.23 (.69)		3.51 (.91)		3.06 (.71)		1.76 (.41)		

7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가구 규모	1인	4.03 (.86)		3.72 (.54)		4.06 (.58)		3.96 (.67)		3.40 (.68)		3.66 (.88)		3.30 (.68)		1.98 (.46)	
	2인	3.87 (.91)		3.62 (.54)		3.93 (.59)		3.81 (.68)		3.32 (.68)		3.61 (.84)		3.24 (.68)		1.92 (.44)	
	3인	4.07 (.80)	***	3.72 (.53)	***	4.09 (.55)	***	3.94 (.65)	***	3.41 (.67)	***	3.68 (.87)	#	3.28 (.71)		1.94 (.45)	**
	4인	4.04 (.82)		3.70 (.53)		4.08 (.55)		3.90 (.65)		3.40 (.67)		3.64 (.88)		3.27 (.69)		1.96 (.47)	
	5인 이상	4.06 (.85)		3.72 (.55)		4.11 (.54)		3.93 (.70)		3.43 (.67)		3.66 (.94)		3.24 (.71)		1.97 (.46)	
지역	대도시	4.02 (.85)		3.71 (.55)		4.07 (.56)		3.91 (.67)		3.40 (.68)		3.64 (.89)		3.29 (.69)		1.95 (.46)	
	중소도시	4.00 (.84)		3.68 (.53)		4.04 (.58)	**	3.89 (.66)		3.37 (.67)		3.64 (.87)		3.26 (.70)	#	1.96 (.46)	*
	농어촌	3.98 (.86)		3.68 (.53)		4.01 (.54)		3.91 (.68)		3.38 (.65)		3.69 (.84)		3.24 (.69)		1.91 (.44)	
전체	4.01 (.85)		3.69 (.54)		4.05 (.57)		3.90 (.67)		3.38 (.67)		3.65 (.87)		3.27 (.69)		1.95 (.4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이 높은 비율

(단위: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3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성별	남성	75.0	***	28.3	**	60.7	***	52.3		19.4	***	46.0		18.4	*	2.2	*
	여성	84.0		31.6	**	66.7	***	53.1		25.2		44.7		20.3	*	3.0	
연령대	30대 미만	83.6		30.6		70.1		50.7		27.0		39.4		22.7		3.9	
	30대	87.0		35.3		76.0		61.1		25.3		40.0		23.5		4.7	
	40대	83.0	***	34.9	***	69.0	***	59.4	***	24.7	***	50.0	***	19.5	***	2.6	***
	50대	80.1		33.5		65.5		57.4		22.2		58.8		18.3		1.7	
	60대	67.6		19.7		46.8		41.6		15.9		41.6		14.3		0.6	
	70대 이상	61.5		9.3		25.9		21.9		7.1		22.4		13.9		0.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0		14.4		33.3		28.2		10.9		28.4		16.9		2.0	
	고졸	76.6	***	27.5	***	57.0	***	47.2	***	21.8	***	43.3	***	20.5		2.8	
	대졸 이상	82.2		32.5		69.6		57.6		23.5		47.9		19.0		2.5	
주관적 건강 상태	하	87.1		46.3		74.6		67.4		33.4		58.6		32.0		9.1	
	중	80.2	***	31.0	***	64.7	***	53.3	***	22.3	***	45.4	***	19.5	***	1.6	***
	상	74.8		20.7		57.1		44.9		16.8		38.9		13.1		.7	
가구 규모	1인	80.4		32.0		63.6		56.0		22.1		47.4		20.1		3.0	
	2인	73.5		24.7		55.2		47.2		19.1		42.9		17.2		1.8	
	3인	82.0	***	31.5	***	66.7	***	54.8	***	22.8	**	46.1	*	20.6	#	2.6	
	4인	81.3		30.9		66.5		52.4		23.5		44.8		19.7		2.8	
	5인 이상	80.5		33.5		69.1		57.6		25.7		48.8		18.4		2.9	
지역	대도시	80.2		30.9		65.4		53.5		23.0		44.8		20.8		2.6	
	중소도시	79.3		29.2		63.3	**	51.8		21.9		44.9	#	18.4	*	2.7	
	농어촌	77.5		29.3		59.0		53.1		21.0		48.6		17.6		1.6	
전체			79.5		29.9		63.7		52.7		22.3		45.3		19.3		2.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4점 이상인 비율, 개인 불안은 3점 이상인 비율.

4)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다음은 응답자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여건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표 3-9〉와 〈표 3-10〉 참조).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불안의 유형 및 영역별로 실업자 또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사회 불안 인식과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과 관련된 불안의 영역에서는 실업자의 불안이 가장 높고, 정부 불신, 적응/도태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는 일용직의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 외에도 상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도 대부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고용주 및 자영자의 불안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주 및 자영자의 불안 수준은 고용주에 비해 자영자가 좀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비해서는 둘 다 불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 5분위별 불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하위 소득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높고 상위 소득집단일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분위에 속한 집단의 불안이 모든 불안 유형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개인 불안 및 개인 불안과 상관성이 높았던 적응/도태 관련 불안에서는 1분위의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 사회 불안 인식과 더불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과 관련된 불안의 영역에서는 2분위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안전 불안을 제외하고는 3분위도 1분위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한편, 실제 가구소득 수준과 별개로, 응답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계층별 불안은 낮은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자가 여부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불안 유형에서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3-9〉 경제수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1 (.83)		3.73 (.52)		4.10 (.54)		3.96 (.65)		3.42 (.66)		3.68 (.88)		3.26 (.69)		1.94 (.46)	
	임시직 임금근로자	4.08 (.80)		3.71 (.55)		4.09 (.56)		3.91 (.68)		3.42 (.66)		3.63 (.90)		3.28 (.71)		1.97 (.47)	
	일용직 임금근로자	4.05 (.81)		3.75 (.51)		4.05 (.59)		3.95 (.66)		3.47 (.65)		3.69 (.86)		3.43 (.66)		2.08 (.48)	
	고용주	3.49 (.95)	***	3.43 (.45)	***	3.72 (.52)	***	3.60 (.59)	***	3.12 (.56)	***	3.45 (.81)	**	3.14 (.54)	***	1.90 (.41)	***
	자영업자	3.89 (.91)		3.59 (.54)		3.93 (.57)		3.79 (.67)		3.27 (.68)		3.60 (.85)		3.19 (.70)		1.90 (.44)	
	무급가족종사자	4.00 (.84)		3.66 (.55)		3.97 (.56)		3.80 (.70)		3.39 (.65)		3.69 (.85)		3.27 (.66)		1.96 (.43)	
	실업자	4.16 (.85)		3.78 (.51)		4.14 (.54)		4.01 (.63)		3.48 (.62)		3.67 (.89)		3.37 (.70)		2.03 (.49)	
	비경제활동인구	4.03 (.84)		3.65 (.55)		3.99 (.59)		3.82 (.69)		3.35 (.70)		3.60 (.87)		3.27 (.70)		1.93 (.44)	
	가 구 소 득	1분위	4.04 (.85)		3.71 (.57)		4.01 (.61)		3.91 (.70)		3.41 (.72)		3.63 (.87)		3.37 (.71)		2.04 (.46)
2분위		4.10 (.78)		3.74 (.52)		4.11 (.53)		3.95 (.64)		3.43 (.67)		3.64 (.87)		3.35 (.67)		1.99 (.46)	
3분위		4.05 (.82)	***	3.72 (.52)	***	4.08 (.55)	***	3.95 (.64)	***	3.40 (.65)	***	3.65 (.87)		3.28 (.68)	***	1.96 (.45)	***
4분위		3.98 (.84)		3.69 (.53)		4.06 (.57)		3.90 (.67)		3.37 (.67)		3.68 (.89)		3.23 (.70)		1.91 (.45)	
5분위		3.86 (.91)		3.60 (.53)		3.97 (.57)		3.80 (.67)		3.31 (.64)		3.64 (.87)		3.11 (.68)		1.85 (.43)	
주관 적 소 득 계 층	하	4.11 (.81)		3.78 (.53)		4.13 (.55)		4.02 (.65)		3.45 (.68)		3.70 (.87)		3.39 (.68)		2.03 (.46)	
	중	3.93 (.85)	***	3.62 (.52)	***	3.99 (.57)	***	3.80 (.66)	***	3.33 (.64)	***	3.61 (.87)	***	3.16 (.67)	***	1.89 (.43)	***
	상	3.73 (.95)		3.49 (.55)		3.85 (.58)		3.66 (.69)		3.21 (.70)		3.51 (.90)		3.00 (.71)		1.78 (.43)	
자 가 여 부	자가	3.96 (.87)	***	3.66 (.54)	***	4.01 (.57)	***	3.86 (.68)	***	3.35 (.67)	***	3.64 (.87)		3.24 (.69)	***	1.92 (.45)	***
	자가 이외	4.10 (.80)		3.75 (.52)		4.12 (.55)		3.98 (.64)		3.44 (.66)		3.66 (.89)		3.32 (.70)		2.01 (.47)	
전체	4.01 (.85)		3.69 (.54)		4.05 (.57)		3.90 (.67)		3.38 (.67)		3.65 (.87)		3.27 (.69)		1.95 (.4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7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표 3-10〉 경제수준별 불안이 높은 비율

(단위: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3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0.0		32.2		68.5		57.1		23.1		48.1		19.0		2.3	
	임시직 임금근로자	82.4		31.3		67.0		52.9		24.5		44.3		20.9		2.9	
	일용직 임금근로자	81.9		32.0		64.5		51.7		26.7		46.7		24.2		4.7	
	고용주	54.5	***	10.2	***	33.0	***	29.5	***	9.1	***	31.8	***	6.8	***	1.1	*
	자영업자	72.3		24.6		52.6		45.5		18.3		41.3		17.0		1.8	
	무급가족종사자	78.3		28.5		58.7		47.2		20.8		47.2		18.8		2.1	
	실업자	82.2		36.3		68.9		61.8		24.6		46.7		24.6		4.1	
	비경제활동인구	81.5		27.1		59.7		47.9		21.3		42.6		19.2		2.7	
가구 소득 5분위	1분위	79.9		32.2		60.2		52.8		25.1		42.8		24.1		3.7	
	2분위	83.5		32.9		68.8		55.3		24.5		44.8		22.1		3.0	
	3분위	82.0	***	31.1	***	66.8	***	56.2	***	21.4	***	45.4	#	19.2	***	2.7	***
	4분위	78.6		29.9		64.7		53.6		21.7		47.8		17.6		2.4	
	5분위	73.2		23.4		57.5		45.5		18.4		45.7		13.6		1.0	
주관적 소득 계층	하	83.2		36.3		69.5		59.8		25.4		47.5		24.4		3.7	
	중	76.8	***	24.4	***	59.1	***	46.6	***	19.5	***	44.0	***	14.3	***	1.5	***
	상	69.0		16.7		49.6		37.9		15.5		38.7		11.6		.7	
자가 여부	자가	77.3		27.8		60.9		50.2		21.0		44.9		18.1		2.1	
	자가 이외	83.4	***	33.9	***	68.8	***	57.3	***	24.6	***	46.2	***	21.6	***	3.3	**
전체		79.5		29.9		63.7		52.7		22.3		45.3		19.3		2.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4점 이상인 비율, 개인 불안은 3점 이상인 비율.

4)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3. 차별·박탈과 사회적 불안

다음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불안의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자가 과거에 건강, 돌봄, 주거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 3-11〉과 〈표 3-12〉 참조). 건강, 돌봄, 주거 영역별 각 2개의 문항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모든 유형의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 관련, 박탈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험의 종류는 대체로 돌봄 영역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때였다. 그러나 불공정/불확실과 특히 적응/도태 불안 및 개인 불안은 건강 영역 중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비교해봐도, 주거 박탈 경험보다는 건강이나 돌봄 관련 박탈 경험이 있을 때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돌봄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건강 영역에서는 보통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갔을 때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다만, 정부 불신 불안과 개인 불안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보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경험이 있을 때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8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표 3-11〉 박탈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돈이 없어서 아픈지 만 참고 병원에 가 지 못한 적이 있다	없음 (.85)	***	3.97 (.53)	***	4.01 (.56)	***	3.85 (.66)	***	3.33 (.66)	***	3.62 (.87)	***	3.20 (.68)	***	1.88 (.42)	***
	있음 (.82)		4.17 (.53)		4.18 (.57)		4.09 (.64)		3.60 (.66)		3.74 (.89)		3.55 (.69)		2.23 (.49)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없음 (.85)	***	3.99 (.53)	***	4.03 (.56)	***	3.88 (.67)	***	3.36 (.67)	***	3.63 (.87)	***	3.24 (.68)	***	1.92 (.44)	***
	있음 (.82)		4.13 (.54)		4.15 (.58)		4.07 (.65)		3.59 (.68)		3.79 (.86)		3.53 (.72)		2.24 (.51)	
돌봄이 필요한 가족 이 있어서 일상생활 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없음 (.85)	***	3.96 (.54)	***	4.01 (.57)	***	3.86 (.67)	***	3.34 (.67)	***	3.61 (.87)	***	3.22 (.69)	***	1.91 (.44)	***
	있음 (.80)		4.18 (.51)		4.19 (.53)		4.06 (.62)		3.57 (.64)		3.77 (.88)		3.43 (.69)		2.10 (.49)	
돌봄이 필요한 가족 을 돌보느라 직장생 활이나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기 어렵다	없음 (.85)	***	3.97 (.53)	***	4.01 (.57)	***	3.86 (.67)	***	3.34 (.67)	***	3.62 (.87)	***	3.22 (.69)	***	1.91 (.44)	***
	있음 (.80)		4.20 (.51)		4.22 (.54)		4.09 (.64)		3.62 (.64)		3.79 (.88)		3.54 (.67)		2.18 (.50)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 야 하는 상황을 경 험한 적이 있다	없음 (.86)	***	3.97 (.53)	***	4.02 (.57)	***	3.86 (.67)	***	3.35 (.66)	***	3.63 (.87)	***	3.22 (.68)	***	1.90 (.44)	***
	있음 (.80)		4.15 (.53)		4.16 (.55)		4.05 (.64)		3.52 (.69)		3.73 (.89)		3.47 (.71)		2.13 (.49)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없음 (.87)	***	3.93 (.54)	***	3.97 (.58)	***	3.82 (.67)	***	3.32 (.67)	***	3.60 (.87)	***	3.20 (.68)	***	1.89 (.44)	***
	있음 (.80)		4.13 (.52)		4.17 (.52)		4.03 (.63)		3.48 (.67)		3.72 (.88)		3.37 (.70)		2.04 (.47)	
전체	4.13 (.80)		3.69 (0.54)		4.05 (0.57)		3.90 (0.67)		3.38 (0.67)		3.65 (0.87)		3.27 (0.69)		1.95 (0.46)	

주: 1) 사회적 불안 인지와 사회적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12〉 박탈 경험 여부별 불안이 높은 비율

(단위: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3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78.2	***	26.5	***	61.6	***	49.5	***	19.5	***	44.2	***	16.1	***	1.3	***
	84.5		43.5		71.7		65.0		33.2		49.9		31.8		7.3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78.9	**	28.5	***	63.1	**	51.6	***	21.0	***	44.5	***	17.6	***	2.0	***
	84.1		42.6		68.3		62.3		33.0		52.7		34.4		7.7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7.9	***	26.8	***	61.0	***	49.9	***	20.0	***	43.4	***	17.5	***	1.8	***
	85.3		41.5		73.4		63.0		30.4		52.5		26.3		5.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78.3	***	27.1	***	61.7	***	50.4	***	20.2	***	43.7	***	17.2	***	1.8	***
	85.9		45.3		74.1		65.1		33.3		54.0		30.9		6.7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78.0	***	27.3	***	62.0	***	50.0	***	20.0	***	44.2	***	16.8	***	1.8	***
	84.8		39.9		70.0		62.6		30.6		49.4		28.9		5.2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76.3	***	25.4	***	58.7	***	47.8	***	19.5	***	42.7	***	16.5	***	1.6	***
	84.3		37.1		71.3		60.3		26.5		49.4		23.8		4.1	
전체	79.5		29.9		63.7		52.7		22.3		45.3		19.3		2.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4점 이상인 비율, 개인 불안은 3점 이상인 비율.

4)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13〉~〈표 3-16〉은 차별 경험과 인식에 따른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차별 경험 여부별로 보면 과거에 차별당한 경험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불안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안의 유형별로 차별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 차이가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문으로 물은 사회 불안 인지와 사

회 불안 척도 중 안전과 관련된 불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별과 연령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별 불안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 불신 불안에서는 특히 연령과 직업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 불안 척도, 그리고 그중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관련 불안에서는 직업/고용상태, 소득/자산,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이 불안 수준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적응/도태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는 외모, 학력/학벌, 소득/자산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종류의 차별 경험이 있을 때 불안 수준이 높은지 보면, 정부 불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을 때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정부 불신 불안은 직업 및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을 때 그 수준이 가장 높았다.

〈표 3-13〉 차별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개인 불안 ²⁾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없음	3.89 (.88)	***	3.60 (.53)	***	3.95 (.57)	***	3.81 (.68)	***	3.25 (.66)	***	3.62 (.87)	***	3.16 (.68)	***	1.85 (.42)	***
	있음	4.17 (.77)		3.83 (.51)		4.18 (.53)		4.03 (.63)		3.57 (.64)		3.69 (.88)		3.42 (.69)		2.08 (.47)	
연령	없음	3.85 (.90)	***	3.54 (.53)	***	3.91 (.58)	***	3.75 (.68)	***	3.21 (.66)	***	3.53 (.87)	***	3.11 (.67)	***	1.85 (.42)	***
	있음	4.13 (.79)		3.81 (.51)		4.15 (.53)		4.02 (.63)		3.52 (.65)		3.74 (.87)		3.39 (.69)		2.03 (.47)	
장애	없음	3.99 (.85)	***	3.67 (.53)	***	4.03 (.56)	***	3.88 (.66)	***	3.35 (.66)	***	3.64 (.87)	*	3.24 (.69)	***	1.92 (.44)	***
	있음	4.11 (.85)		3.84 (.55)		4.15 (.57)		4.04 (.67)		3.60 (.69)		3.71 (.91)		3.46 (.70)		2.16 (.51)	
외모	없음	3.94 (.86)	***	3.62 (.53)	***	3.98 (.57)	***	3.83 (.67)	***	3.29 (.65)	***	3.62 (.86)	***	3.16 (.67)	***	1.86 (.42)	***
	있음	4.18 (.79)		3.87 (.51)		4.21 (.53)		4.07 (.63)		3.61 (.66)		3.71 (.90)		3.52 (.67)		2.16 (.48)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학력 학벌	없음	3.90 (.87)	***	3.58 (.53)	***	3.94 (.57)	***	3.78 (.66)	***	3.27 (.66)	***	3.59 (.86)	***	3.12 (.66)	***	1.84 (.41)	***
	있음	4.16 (.79)		3.85 (.51)		4.20 (.52)		4.07 (.64)		3.55 (.65)		3.73 (.89)		3.48 (.68)		2.10 (.47)	
직업, 고용 상태	없음	3.89 (.88)	***	3.57 (.53)	***	3.92 (.57)	***	3.77 (.67)	***	3.25 (.66)	***	3.57 (.87)	***	3.12 (.67)	***	1.84 (.42)	***
	있음	4.16 (.78)		3.85 (.50)		4.20 (.52)		4.07 (.62)		3.55 (.65)		3.75 (.86)		3.45 (.67)		2.08 (.47)	
소득, 자산	없음	3.90 (.87)	***	3.57 (.53)	***	3.93 (.57)	***	3.76 (.67)	***	3.26 (.66)	***	3.58 (.87)	***	3.10 (.68)	***	1.83 (.41)	***
	있음	4.14 (.80)		3.84 (.51)		4.19 (.53)		4.06 (.63)		3.54 (.65)		3.72 (.88)		3.47 (.66)		2.09 (.47)	
지역	없음	3.95 (.85)	***	3.62 (.53)	***	3.98 (.56)	***	3.82 (.66)	***	3.29 (.66)	***	3.61 (.86)	***	3.17 (.68)	***	1.87 (.42)	***
	있음	4.14 (.82)		3.85 (.52)		4.18 (.55)		4.07 (.64)		3.58 (.66)		3.73 (.89)		3.47 (.69)		2.12 (.49)	
전체		4.01 (0.85)		3.69 (0.54)		4.05 (0.57)		3.90 (0.67)		3.38 (0.67)		3.65 (0.87)		3.27 (0.69)		1.95 (0.4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14> 차별 경험 여부별 불안이 높은 비율

(단위: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3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성별	없음	74.6	***	23.9	***	56.5	***	46.7	***	16.1	***	43.8	**	15.1	***	1.2	***
	있음	86.3		38.5		73.8		61.1		30.8		47.5		25.3		4.5	
연령	없음	72.9	***	20.5	***	53.4	***	42.3	***	14.9	***	38.8	***	12.6	***	1.0	***
	있음	84.5		37.2		71.5		60.6		27.9		50.3		24.5		3.7	
장애	없음	78.8	***	28.5	***	62.5	***	51.5	***	20.9	***	44.9	*	18.0	***	1.9	***
	있음	83.7		39.5		71.8		61.0		31.6		48.2		28.1		6.7	
외모	없음	76.6	***	25.0	***	58.7	***	48.0	***	17.7	***	44.1	**	14.7	***	1.3	***
	있음	86.1		41.5		75.3		63.7		32.8		48.3		30.3		5.5	

8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3점 ³⁾ 이상 비율	카이 검증			
학력	없음	75.1	***	22.2	***	56.3	***	45.2	***	16.9	***	42.1	***	13.0	***	1.1	***
학벌	있음	85.4		40.6		73.7		62.9		29.6		49.8		28.0		4.5	
직업	없음	74.8	***	21.7	***	54.8	***	44.1	***	16.1	***	40.8	***	13.5	***	1.0	***
고용상태	있음	85.1		40.1		74.6		63.3		29.8		51.0		26.6		4.4	
소득	없음	75.4	***	21.5	***	55.7	***	43.9	***	16.4	***	42.2	***	12.6	***	1.0	***
자산	있음	84.3		40.1		73.2		63.2		29.3		49.1		27.4		4.4	
지역	없음	77.3	***	24.7	***	59.5	***	47.7	***	17.9	***	43.4	***	15.3	***	1.4	***
	있음	84.0		41.1		72.4		63.3		31.5		49.4		27.9		5.0	
전체		79.5		29.9		63.7		52.7		22.3		45.3		19.3		2.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4점 이상인 비율, 개인 불안은 3점 이상인 비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15〉와 〈표 3-16〉은 차별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정도에 따라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 불안 전체 척도,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와 개인 불안에서는 승진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불안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 불안 전체 척도를 보면 승진기회 외에도 소득, 자산, 취업기회 불평등 등의 순으로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컸다.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불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각각 자산 불평등과 승진기회 불평등의 심각성 인지 여부가, 사회 불안 인지 문항에서는 연령과 학력, 외모 차별에 대한 심각성 인지 여부가 불안 수준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안 수준 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대개 성, 연령 차

별 및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경우였다.

앞의 박탈 경험과 차별 경험 여부에 따른 불안 수준과 비교해볼 때 경험 유무 자체보다는 차별 혹은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안 수준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박탈과 차별의 각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불안 수준 차이가 약 0.1~0.4점 이내였다면, 차별과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0.1~0.9점까지 나타났다.

〈표 3-15〉 차별/불평등 인식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 별	심각하지 않음	3.65 (1.02)		3.42 (.60)		3.80 (.68)		3.64 (.77)		3.05 (.73)		3.38 (.96)		2.99 (.71)		1.85 (.44)	
	보통	3.88 (.82)	***	3.56 (.49)	***	3.92 (.54)	***	3.74 (.64)	***	3.25 (.61)	***	3.54 (.82)	***	3.16 (.64)	***	1.89 (.41)	***
	심각함	4.23 (.75)		3.89 (.48)		4.23 (.49)		4.12 (.59)		3.60 (.64)		3.82 (.86)		3.44 (.69)		2.03 (.48)	
연 령	심각하지 않음	3.55 (1.03)		3.30 (.58)		3.68 (.66)		3.49 (.75)		2.96 (.69)		3.26 (.93)		2.90 (.69)		1.81 (.42)	
	보통	3.89 (.82)	***	3.57 (.48)	***	3.94 (.54)	***	3.76 (.64)	***	3.26 (.60)	***	3.54 (.82)	***	3.15 (.62)	***	1.89 (.41)	***
	심각함	4.20 (.77)		3.87 (.49)		4.21 (.50)		4.10 (.60)		3.58 (.66)		3.82 (.86)		3.44 (.70)		2.03 (.48)	
장 애	심각하지 않음	3.54 (1.06)		3.32 (.64)		3.64 (.73)		3.50 (.78)		3.01 (.75)		3.31 (.96)		2.97 (.75)		1.86 (.43)	
	보통	3.82 (.88)	***	3.51 (.51)	***	3.85 (.57)	***	3.68 (.66)	***	3.22 (.61)	***	3.46 (.83)	***	3.13 (.63)	***	1.92 (.43)	***
	심각함	4.13 (.77)		3.80 (.49)		4.17 (.49)		4.03 (.61)		3.49 (.66)		3.76 (.86)		3.35 (.69)		1.97 (.47)	
외 모	심각하지 않음	3.53 (1.02)		3.23 (.60)		3.58 (.68)		3.40 (.78)		2.90 (.72)		3.17 (.91)		2.90 (.71)		1.81 (.42)	
	보통	3.82 (.85)	***	3.52 (.48)	***	3.86 (.54)	***	3.70 (.63)	***	3.21 (.59)	***	3.50 (.81)	***	3.11 (.63)	***	1.87 (.41)	***
	심각함	4.16 (.78)		3.84 (.50)		4.19 (.50)		4.06 (.61)		3.53 (.66)		3.78 (.87)		3.39 (.69)		2.01 (.47)	
학 력	심각하지 않음	3.49 (1.08)		3.23 (.64)		3.55 (.73)		3.36 (.80)		2.94 (.74)		3.19 (.98)		2.93 (.73)		1.84 (.43)	
	보통	3.78 (.86)	***	3.47 (.49)	***	3.83 (.56)	***	3.64 (.63)	***	3.19 (.62)	***	3.42 (.83)	***	3.08 (.64)	***	1.88 (.41)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교육 기회	심각함	4.13 (.79)		3.81 (.49)		4.16 (.50)		4.04 (.61)		3.49 (.65)		3.76 (.85)		3.36 (.69)		1.98 (.47)	
	심각하지 않음	3.69 (1.01)		3.35 (.58)		3.75 (.64)		3.51 (.75)		3.05 (.71)		3.31 (.96)		2.90 (.68)		1.79 (.41)	
	보통	3.90 (.82)	***	3.56 (.48)	***	3.91 (.55)	***	3.73 (.62)	***	3.26 (.59)	***	3.53 (.79)	***	3.15 (.61)	***	1.89 (.41)	***
취업 기회	심각함	4.17 (.78)		3.89 (.49)		4.22 (.49)		4.13 (.59)		3.56 (.66)		3.83 (.87)		3.45 (.70)		2.03 (.49)	
	심각하지 않음	3.55 (1.08)		3.17 (.61)		3.56 (.70)		3.28 (.79)		2.91 (.73)		3.17 (1.02)		2.75 (.69)		1.78 (.43)	
	보통	3.78 (.85)	***	3.44 (.46)	***	3.80 (.55)	***	3.59 (.61)	***	3.19 (.60)	***	3.38 (.80)	***	3.06 (.60)	***	1.86 (.40)	***
승진 기회	심각함	4.15 (.78)		3.85 (.48)		4.19 (.49)		4.09 (.59)		3.51 (.65)		3.80 (.84)		3.41 (.68)		2.00 (.47)	
	심각하지 않음	3.58 (1.03)		3.13 (.62)		3.55 (.70)		3.26 (.80)		2.82 (.73)		3.07 (1.02)		2.71 (.70)		1.77 (.42)	
	보통	3.79 (.86)	***	3.47 (.46)	***	3.85 (.55)	***	3.63 (.61)	***	3.18 (.60)	***	3.41 (.81)	***	3.07 (.61)	***	1.86 (.40)	***
소득	심각함	4.16 (.78)		3.86 (.48)		4.19 (.51)		4.10 (.59)		3.54 (.64)		3.82 (.84)		3.42 (.68)		2.01 (.47)	
	심각하지 않음	3.49 (1.09)		3.09 (.64)		3.34 (.71)		3.16 (.77)		2.93 (.74)		3.15 (.97)		2.75 (.73)		1.87 (.46)	
	보통	3.65 (.90)	***	3.35 (.49)	***	3.65 (.57)	***	3.47 (.62)	***	3.13 (.61)	***	3.33 (.82)	***	3.00 (.63)	***	1.90 (.43)	***
자산	심각함	4.10 (.80)		3.79 (.49)		4.16 (.50)		4.02 (.61)		3.45 (.66)		3.73 (.86)		3.34 (.68)		1.96 (.46)	
	심각하지 않음	3.48 (1.12)		3.10 (.66)		3.34 (.73)		3.18 (.80)		2.90 (.75)		3.16 (1.02)		2.79 (.76)		1.89 (.45)	
	보통	3.64 (.90)	***	3.33 (.50)	***	3.58 (.57)	***	3.42 (.63)	***	3.14 (.61)	***	3.35 (.79)	***	3.04 (.62)	***	1.94 (.44)	***
전체	4.01 (0.85)		3.69 (0.54)		4.05 (0.57)		3.90 (0.67)		3.38 (0.67)		3.65 (0.87)		3.27 (0.69)		1.95 (0.4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차별/불평등인식은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심각하지 않음', 3점 이상 4점 미만인 경우 '보통', 4점 이상인 경우 '심각함'으로 구분.
 4)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3-16〉 차별/불평등 인식별 불안이 높은 비율

(단위: %)

구분	사회 불안 인지 ¹⁾	사회 불안 척도 ¹⁾										개인 불안 ²⁾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3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4점 이상 비율	카이 검증						
성별	삼각지 않음	64.8		17.1		45.1		37.8		12.3		33.4		10.1		1.6	
	보통	74.4	***	18.9	***	54.3	***	41.3	***	13.7	***	38.6	***	13.4	***	1.2	***
	삼각함	88.2		43.2		77.2		66.8		32.6		54.6		27.2		4.0	
연령	삼각지 않음	61.7		10.3		37.1		30.6		8.7		27.6		7.9		1.1	
	보통	74.6	***	19.6	***	55.9	***	41.9	***	13.8	***	38.4	***	12.2	***	1.0	***
	삼각함	87.1		42.3		75.5		65.9		31.9		54.6		27.4		4.1	
장애	삼각지 않음	60.9		14.2		36.5		31.5		11.6		29.5		10.8		1.5	
	보통	70.8	***	17.5	***	48.3	***	38.0	***	13.4	***	34.3	***	11.3	***	1.7	**
	삼각함	84.9		36.5		72.6		60.7		26.8		51.3		23.3		3.0	
외모	삼각지 않음	60.3		9.5		33.6		27.9		9.1		24.3		8.3		0.5	
	보통	72.1	***	16.4	***	49.7	***	39.1	***	13.2	***	36.1	***	11.5	***	0.9	***
	삼각함	85.4		39.1		74.2		62.4		28.3		52.5		24.5		3.6	
학력	삼각지 않음	56.8		9.8		31.5		25.0		9.1		26.2		10.5		1.6	
	보통	69.8	***	14.9	***	47.9	***	35.4	***	13.1	***	32.8	***	10.4	***	0.9	***
	삼각함	84.7		37.0		71.9		61.1		26.6		51.4		23.3		3.2	
교육 기회	삼각지 않음	67.9		12.7		42.6		31.7		10.5		30.8		8.2		0.7	
	보통	74.6	***	18.4	***	54.0	***	40.4	***	14.8	***	36.9	***	11.3	***	1.2	***
	삼각함	86.2		43.0		76.5		67.4		30.9		55.4		28.3		4.1	
취업 기회	삼각지 않음	59.6		8.0		30.6		21.7		8.8		25.7		5.5		0.4	
	보통	70.0	***	12.7	***	45.3	***	31.1	***	11.9	***	29.1	***	7.9	***	0.5	***
	삼각함	85.2		39.1		74.4		64.5		27.8		53.8		25.3		3.6	
승진 기회	삼각지 않음	61.9		7.2		30.7		22.6		8.8		22.9		5.0		1.2	
	보통	71.0	***	13.7	***	50.1	***	33.3	***	11.3	***	31.5	***	9.6	***	0.7	***
	삼각함	85.4		40.3		73.5		65.3		29.1		54.4		25.6		3.6	
소득	삼각지 않음	56.6		6.2		20.9		18.6		9.3		24.8		7.0		0.8	
	보통	63.2	***	10.1	***	33.9	***	23.6	***	11.2	***	26.6	***	7.5	***	1.1	***
	삼각함	83.6		34.9		71.4		59.9		25.0		49.9		22.2		2.9	
자산	삼각지 않음	56.1		5.5		21.7		16.8		9.5		24.5		7.7		0.9	
	보통	61.7	***	9.3	***	29.2	***	21.8	***	11.0	***	26.3	***	9.0	***	0.9	***
	삼각함	83.4		34.4		71.1		59.4		24.7		49.4		21.6		2.9	
전체		79.5		29.9		63.7		52.7		22.3		45.3		19.3		2.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차별/불평등인식은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삼각하지 않음', 3점 이상 4점 미만인 경우 '보통', 4점 이상인 경우 '삼각함'으로 구분.

4)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4장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코호트 간 비교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제3절 사회적 불안 인식 설명 요인 네트워크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 코호트 간 비교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한국 사회에 불안이 만연하고 일상화되고 있다. 청년층은 취업을 걱정하고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노후를 불안해한다. 중산층은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까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조차 그들의 '허구적 안정성'(이정아, 김수현, 2017)¹³⁾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않은 팬데믹, 초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기후와 환경 변화, 전쟁과 테러 발생 등은 불안을 증폭시킨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조사 이후로 '일상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75%를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¹⁴⁾ 사회적 불안을 측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¹⁵⁾에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79.5%가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상시적이고 보편화된 불안(Heinz, 2015)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 삶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후기자본주의, 후기

13) 이정아와 김수현(2017)은 중장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길어져 안정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보상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허구적 안정성'으로 보았다.

14)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3년 77%, 2014년 75.8%, 2015년 77.7%, 2016년 76.7%가 일상적으로 불안감을 매우 자주 또는 약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엠브레인 공식 블로그, 2016. 5. 25.)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근대로의 이행은 견고하게 사회를 지탱해오던 근대적 체제와 조직 원리의 붕괴 과정이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복잡성과 유연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거시적인 수준에서 국가와 경제 체제의 불안정성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 삶에서의 통제감 상실과 실존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김문조, 박형준, 2012). 근대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표준적인 규범과 동질적인 삶의 궤적은 탈표준화, 개인화되고 이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표출되었다(장경섭, 2011; 남춘호, 2014; 황정미, 2022). 개인은 불안정한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불안은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홍영오 외, 2006, p. 131)이다.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회적 불안'은 그러한 심리적 반응의 기원이 사회구조 또는 사회적 사건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현주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개인 체계 불안감'과 '사회 체계 불안정'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현주 외, 2019, p. 49)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기분(이현주 외, 2019, p. 78)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감정에 대해 구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배럿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적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입력된 감각이나 정보가 개인의 과거 경험과 기억,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등과 복잡하게 얽혀 드러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 과정이다(Barrett, 2017). 인지적, 감정적 구성물로서의 사회적 불안은 그래서 체계의 불안감, 불확실성뿐 아니라 이에 대해 개인이 구성하는 사적인 경험과 기억, 예측에 기반한다.

체계의 변화와 위험은 상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경험을 구성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사회 내에서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은 개인의 경험을 차별화하는 구조적 요

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구조적인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과 규범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연령에 주목한다. 연령은 생물학적인 시간의 변화를 넘어서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호트는 연령과 역사적 시간,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결합된 개념으로 생물학적 변화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공통의 사회적 사건과 변화를 같이 경험하면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집단이다. 생애과정에서의 개인의 경험은 이후 개인의 태도와 인식, 구조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문혜진, 2010, p. 351).

이들이 경험하는 근대사회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포괄한다. 체계와 생활세계의 구분은 하버마스의 근대사회를 개념화하는 주요 개념적 틀이다. 생활세계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맞닥뜨릴 때 맥락을 형성하는 ‘지평과 배경’”이자 “공통의 상황정의를 이르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강병호, 2020, p. 207)이다. 한편 생활세계는 삶의 경험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측면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측면을 포괄한다. 체계는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제도화된 규칙들의 체계로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기능적인 맥락’(최재식, 1999, p. 194)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 모습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안 또한 체계와 생활세계에서의 불안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체계와 생활세계에서의 사회적 불안이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했을 때, 또는 개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후기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그리고 가족 이행 패턴의 변화를 출생 코호트와 연결하여 각 코호트의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고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구조와 그러한 관계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안으로 나누어 코호트의 생애 경험과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를 개인의 변화와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일반적인 사회적 불안을 특징 짓는 중심 요소는 무엇이며 서로 다른 생애과정을 경험한 출생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출생 코호트별로 개별 영역의 불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 체계와 생활세계의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코호트별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2. 분석 방법

가. 분석 개요

위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우선 코호트를 구분하고 이들이 생애과정에서 관통한 지난 50~60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 보았다. 특히 이들이 생애 어느 시기에 어떤 사회적 변화와 사건을 경험했고 어떤 사회경제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24개의 측정 문항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안을 나타내는 요소들로 구분하고 주성분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안의 차원을 축소한 후¹⁶⁾ 각각의 차원에서 개별 코호트가 보여주는 사회적 불안의 양상

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심리측정 모델(network psychometrics model)을 적용하여 사회적 불안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 구조와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분되는 사회적 불안의 구조, 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심리측정 모델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방법으로 성격, 임상 심리,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물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Borsboom & Cramer, 2013; Dalege, Borsboom, van Harreveld, & van der Maas, 2018; Robinaugh, Hoekstra, Toner, & Borsboom, 2020). 이 모델은 다변량 자료의 상호의존성 또는 조건부 독립성에 대한 통계적 모델로 다차원적인 심리적 구성물을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체계로 개념화하고 요소들 간의 연결 구조와 상호작용의 강도, 그리고 방향 등에 주목한다(Isvoranu & Epskamp, 2023). 심리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며 노드는 관찰된 변수를, 엣지는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심리측정 모델은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와 강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네트워크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이론적인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서 다차원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하고 인과적 가설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Epsampt, Borsboom, & Fried, 2018; Borsboom et al., 2021; Ryan, Bringman, & Schuurman, 2022).

16) 주성분분석은 요인분석과 달리 통계적 모형을 가정하지 않고 각각의 척도들의 적절한 선형결합을 통해 차원을 축소시킴으로써 분석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법이다(김청택, 2016).

나. 변수 구성

1) 코호트의 구분

이 연구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개의 출생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1947~1956년생, 1957~1967년생, 1968~1975년생, 1976~1985년생, 그리고 1986~2001년생 코호트가 그것이다. 이들의 연령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는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출생 코호트의 사회적 경험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7~1956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5)는 2022년 기준으로 65~74세 연령 집단이며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에 진출하고 고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하며 30대를 보낸 세대다. 중장년기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은퇴 시점, 또는 은퇴 이후에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이들이 은퇴한 시점에 노후 보장체계가 미성숙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생을 기준으로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안준기, 2022) 이전 세대보다는 은퇴 후 형편이 나아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1957~1967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4)는 2022년 기준 55~64세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고성장과 자유의 혜택을 누리며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또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설계된 표준적인 생애이력을 공유한 세대로 이들이 장년기에 있을 때인 1998년 전후에는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1968~1975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3)는 2022년 기준 45~54세 연령 집단으로 민주화 이후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외환위기를, 장년기에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등 외환위

기 이후 유연화와 저성장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재생산 영역에서도 남성의 경우 취업 준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고 가족 구성 면에서 탈표준화 현상이 나타나는 세대이다. 또한 자녀 독립의 지연과 고령화로 인해 생애주기 면에서 본인의 은퇴 준비와 양육, 돌봄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집단이다. 네 번째 코호트는 1976~1985년생(이하 코호트2)으로 2022년 기준 35~44세인 집단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 80%가 대학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또한 외환위기 때 10대, 금융위기 때 20대 그리고 이후 경제 성장 악화로 취업난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라 남성 일인생계부양 규범이 약화되고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이들이 30대 중후반인 시점에서 이 연령대의 여성 유배우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986~2001년생 코호트(코호트1)는 2022년 기준 19~34세로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 유년기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으며 어느 세대보다도 고학력에 고스펙을 가진 세대이지만 현재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장 심하게 경험했던 세대를 부모로 둔 세대이기도 하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에서 각 코호트의 사례 수는 코호트5(1947~1956년생)가 952명(여성 52%), 코호트4(1957~1967년생)가 1,569명(여성 50%), 코호트3(1968~1975년생)이 1,653명(여성 50%), 코호트2(1976~1985년생)가 1,459명(여성 49%), 그리고 코호트1(1986~2001년생)이 2,060명(여성 47%)이다. 각 코호트가 경험한 사회적 변화와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출생 코호트 구분 및 특징적인 사회적 경험

코호트 구분	출생 연도	연령	특징적인 사회적 경험
코호트1	1986 ~2001	19~34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유년기를 보내고 70~80%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시점에서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세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심하게 경험했던 세대를 부모로 둔 세대
코호트2	1976 ~1985	35~44세	외환위기 때 10대, 금융위기 때 20대였고 이후 저성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세대 대학 교육의 보편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남성 일인생계부양 규범이 약화되었으며 결혼 지연에 따른 다양한 가구구성을 보이는 세대
코호트3	1968 ~1975	45~54세	민주화 시대에 10대였고 외환위기 때 20대를 보냈으며 금융위기 때 30대, 이후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경제적 혼란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생애주기 면에서 현재 은퇴 준비를 할 시점이지만 자녀의 독립이 지연되고 고령화로 인하여 양육과 돌봄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세대
코호트4	1957 ~1967	55~64세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고성장과 자유의 혜택을 누리며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에 외환위기 경험, 10년 후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준적인 생애과정을 영위한 세대
코호트5	1947 ~1956	65~74세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에 진출하고 고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하며 30대를 보냈으나 증장년기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음. 회복한 후 은퇴, 또는 은퇴 이후 시점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세대 노후보장체계의 미성숙한 시기에 은퇴하여 노인빈곤율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1950년대생을 기점으로 소득과 자산 면에서 빈곤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되는 세대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코호트별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의 사회변화

구분	시기															
	▼민주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연령: 출생 연도	1947-1956	1957-1966	1967-1976	1977-1986	1987-1996	1997-2006	2007-2016	2017-2022	1947-1956	1957-1966	1967-1976	1977-1986	1987-1996	1997-2006	2007-2016	2017-2022
코호트5, 65~76세: 1947~1956	1-10	1-15	7-19	11-25	17-29	21-35	27-39	31-45	37-49	41-55	47-59	51-65	57-69	61-74		
코호트4, 55~64세: 1957~1967		-5	-10	-15	6-19	10-25	16-29	20-35	26-39	30-45	36-49	40-55	46-59	50-65		
코호트3, 45~54세: 1968~1975				-14	6-18	10-24	16-28	20-34	26-38	30-44	36-48	40-54				
코호트2, 35~44세: 1976~1985				-10	2-16	8-20	12-26	18-30	22-36	28-40	32-44					
코호트1, 19~34세: 1986~2001					-10	-16	2-20	6-26	12-30	16-34						
교육-노동시장 변화																
경제성장률	7.5	5.8	9.5	10.8	11.4	7.7	10.8	9.8	8.4	5.7	4.5	3.8	3.0	2.4		
대학 진학률				33.4	37.2	4.9	37.2	34.9	47.6	67.3	81.3	78.6	70.6	71.4		
대졸 이상 취업률(여성)					4.9	9.5	13	9.5	13	18.7	27	33.9	39.6			
경제활동참가율(여성)			39.2	41.7	42.8	42.1	46.3	48.1	48.1	48.7	49.8	49.7				
비정규직 비중													35.5	34.2	32.2	35.7
비정규직 비중(여성)													42.4	42.1	40.5	
여성고용률										51	52.3	53.1	55.2	57.7		

구분	시기													
	▼민주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연령: 출생 연도	1947-1956	1957-1962	1963-1966	1967-1972	1973-1976	1977-1982	1983-1986	1987-1992	1993-1996	1997-2002	2003-2006	2007-2012	2013-2016	2017-2022
가족구조 변화														
초혼연령(여성)	21.6	22.8	23.3	23.6	24.1	24.1	24.1	24.8	25.2	26.4	27.6	28.8	29.9	
합계출산율		4.4	3.6	2.7	1.76	1.6	1.6	1.4	1.1	1.2	1.2	1.2	1.2	1.9
전체 여성 중 유배우 비율(35~39세)										93.8	88.1	82.2	76.8	74.4
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비율(35~39세)										3.5	4.1	4.7	9	11.6
여성 가구주 비율				12.8	14.7	15.7	15.7	15.7	16.6	18.5	21.5	25.2		

주: 각 셀의 수치는 해당 연도의 가용한 수치의 평균임.
 자료: 경제성장률-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계정.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에서 2023. 10. 1. 인출;
 대학 진학률-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PageDetail.do?idx_cd=1520
 에서 2023. 10. 1. 인출; 통계청. (2022. 8.). 장래추계인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PageDetail.do?id_x_cd=1520에서 2023. 10. 1. 인출.
 합계출산율-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10103호 출생통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3. 10. 1. 인출.
 전체 여성 중 유배우 비율, 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이상림, 이철희, 오신휘. (2019).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 외-여성가족부. (각 연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 체계와 생활세계의 사회적 불안 구분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 측정 요소를 체계의 불안정성을 원천으로 하는 불안과 생활세계의 불확실성을 원천으로 하는 불안 요소로 구분하고 체계와 생활세계 내 사회적 불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 요소의 구분은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24개의 문항 중에서 질문이 제도 및 집합적인 가치와 규범을 묻고 있다고 판단되면 체계 불안 요소로, 개인적 삶에 대해 묻고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세계의 불안 요소로 분류하였다. 체계 불안 요소 문항은 대체로 질문이 ‘우리 사회는’ 또는 ‘정부는’ 등으로 시작하는 문항들이며, 생활세계 불안 요소 문항은 ‘나는’이라는 주어가 붙을 수 있는 문항들이다. 24개의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 중 15개 문항이 체계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9개 문항이 생활세계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주성분 요인 추출 방법과 배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하였다.

분석 결과 체계 영역에서는 1차적으로 3개의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법과 질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한 차원으로 묶였다. 또 하나의 차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와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문항으로 구성된 차원인데 문항 간의 공통적인 개념적 의미를 추출하기 어렵고 두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가 .390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주성분분석을 한 결과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문항이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인식과 경제, 법, 질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인식에 공통으로 적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전자의 적재값은 .538, 후자의 적재값은 .523). 이에 개념적인 명료함을 위하여

해당 요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체계 영역에서는 2개의 차원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체계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 차원과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각 차원의 Cronbach’s α 값은 전자가 0.771, 후자가 0.852로 문항들 간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생활세계 영역에서는 2개의 차원으로 문항들이 축소되었다. 하나는 개인의 삶에서의 배제와 소외, 의미와 삶의 원칙에 대한 혼란 등으로 묶을 수 있는 4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교란과 연관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3〉과 〈표 4-4〉 참조). 이를 개인적 삶의 유지에 대한 불안과 사회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으로 개념화하였다. 각 차원의 Cronbach’s α 값은 전자가 0.673, 후자가 0.761이다.

〈표 4-3〉 체계 불안 주성분분석 결과

문항	체계1 (SI)	체계2 (SS)	신뢰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0.236	0.498	0.771 (4개 항목)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0.143	0.859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0.075	0.872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255	0.671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0.678	0.134	.852 (8개 항목)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 질 것이다.	0.672	0.080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0.762	0.127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0.745	0.257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0.655	0.303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0.535	0.472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0.553	0.503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0.507	0.3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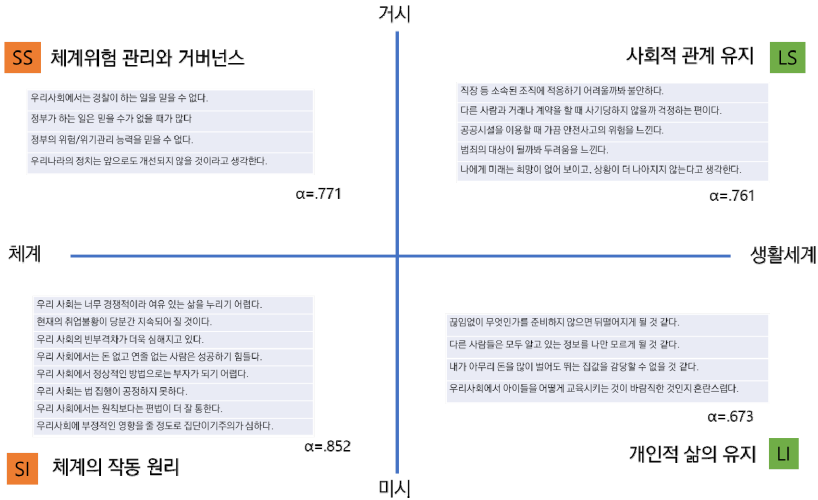
〈표 4-4〉 생활세계 불안 주성분분석 결과

문항	생활세계1 (LS)	생활세계2 (LI)	신뢰도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0.606	0.290	.761 (5개 항목)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0.596	0.377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0.783	0.079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0.800	0.141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0.580	0.244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0.112	0.773	.673 (4개 항목)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0.356	0.606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0.115	0.694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0.321	0.5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불안에 대해 체계와 생활세계 구분 이외에 각각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류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영역의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특징은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삶을 지배하는 질서와 거시적인 수준에서 제도와 사회관계의 질서를 드러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를 한 축으로 하고, 미시와 거시를 다른 축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이 교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그림 4-1) 참조). 4개 분면을 각각 체계-거시: 체계위험 관리와 거버넌스와 관련된 불안, 체계-미시: 체계의 작동원리, 또는 규범적 질서와 관련된 불안, 생활세계-미시: 개인적 삶의 유지와 관련된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세계-거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 불안으로 개념화하였다. 구성된 사회적 불안의 개념틀과 4분 면에 해당되는 문항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사회적 불안 분석틀



주: 전체 24개 문항 중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와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문항은 체계 문항으로 분류하여 주성분분석했을 때 두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묶였지만 신뢰도가 .390에 불과하여 제외함. 두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주성분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문항은 두 개 차원 모두에 적재되어 나타남(요인적재값: 1요인-.538, 2요인-.523). 이에 이를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3) 사회적 불안 설명 변수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변수로 이 장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박탈, 차별, 사회적 사건, 복지수혜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불안 정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 가구소득, 고용상태, 학력 등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조정한 균등화 가구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고용상태는 현재 고용상태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와 실업자인 경우를 합하여 불안정 고용으로 변수화하였다.

학력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응답자를 대졸 학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생애과정에서 개인이 겪은 직간접적인 사회적 경험은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변금선, 이해림, 2023; 이현주 외, 2022). 이를 측정하는 변수로 생애과정에서 마주한 박탈 경험과 차별 경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사회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회경제적 사건들로 인해서 겪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복지수혜 경험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박탈 경험은 건강, 돌봄, 주거, 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서, 차별 경험은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서 한 개의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와 모든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사건 경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성하였다. 복지수혜 경험은 개인(2021년 조사) 또는 가구(2020년과 2022년 조사)가 기초연금, 학비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미시와 거시 수준의 대표적인 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에 대한 신뢰 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으며(이현주 외, 2022)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최인철, 김범준, 2005).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은 4점 척도(1=그렇지 않

다~4=항상 그렇다)로 구성된 20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를 묻는 5점 척도 문항(1=전혀 믿을 수 없다~5=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을 이용하였다.

각 설명 변수에 대한 코호트별 특징은 <표 4-5>와 같다.

<표 4-5> 코호트별 기술통계

(단위: 명, 만 원, 점)

코호트 연령	사례 수	여성	균등화 가구 소득	불안정 근로	대졸 학력	심리적 불안	사회 신뢰	박탈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복지 수혜 경험
1. 19~34세	2,060	.47	273.3	.29	.61	2.05	2.82	.51	.97	.55	.40
2. 35~44세	1,459	.49	273.5	.14	.84	2.00	2.90	.74	.92	.70	.45
3. 45~54세	1,653	.50	310.1	.16	.76	1.93	2.80	.61	.75	.75	.22
4. 55~64세	1,569	.50	335.1	.21	.69	1.84	2.82	.58	.72	.71	.20
5. 65~74세	952	.52	298.7	.11	.11	1.87	3.17	.38	.54	.60	.70
Total	7,692	.49	297.0	.19	.64	1.95	2.87	.57	.81	.66	.37

주: 불안정 근로는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인 경우, 박탈 경험은 건강, 교육, 돌봄, 주거 면에서 한 문항에서라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 경험은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소득 및 자산,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사회적 사건 경험은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복지수혜 경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학비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의 정부 지원 문항에서 한 문항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말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4-5>를 보면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호트1이 가장 높았으며(29%) 그다음으로 코호트4가 높았다. 대졸 학력자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았으며 코호트1의 경우 대학 진학 중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졸 학력자 비중이 낮았다. 심리적 불안은 코호트1, 그리고 코호트2에서 다소 높으며 사회적 신뢰는 코호트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탈 경험은 코호트2가 높았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건강, 돌봄, 주

거, 또는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반면, 코호트5는 상대적으로 박탈 경험을 한 응답자의 비중이 낮았다. 차별 경험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높았는데 코호트1은 97%가, 코호트2는 92%가 8가지 차별 이유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사건 경험은 35세 이상의 세 개 코호트(코호트2~4)에서 높았다. 복지수혜 경험은 코호트5가 가장 많으며 코호트1과 코호트2가 코호트3과 코호트4보다 많아 중간 코호트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을 적게 받고 있었다.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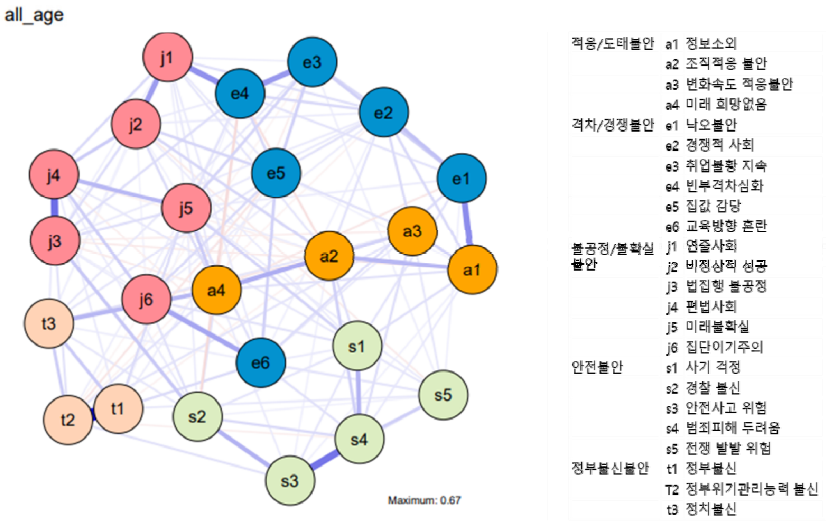
1. 사회적 불안 요소 간 관계

우선 사회적 불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4개의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24개 요소는 앞 장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석 사례 수가 노드 수와 비교하여 충분히 크므로 네트워크 구조는 정규화(regularization)를 하지 않은 `ggmModeSelec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Isvoranu & Epskamp, 2023) 분석과 네트워크 시각화는 R 패키지인 `qgraph`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ootnet`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우선 전체 응답자와 코호트별로 네트워크를 추정한 후 네트워크에 중심성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각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가 무엇이고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2]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정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노드는 24개의 사회적 불안 측정 변수를 나타내며 엣지

는 두 노드 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엷지의 굵기는 두 노드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를 나타내고 푸른색 엷지는 정적 관계를, 붉은색 엷지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추정 결과, 전체 추정 파라미터 수 276 개 중 141개의 파라미터가 0이 아닌 것(sparsity=0.489)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사회적 불안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전체 응답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4-2]를 보면 상대적으로 강한 연결을 갖는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불신(t1)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불신(t2)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j3)과 우리 사회가 편법 사회라는 인식(j4),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는 것(s3)과 범죄피해의 두려움(s4), 뒤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e1)과 모두가 아는 정보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불안감(a1) 등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대체로 앞장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요인으로 묶인 노드들 간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지만 서로 다른 요인에 속해 있는 노드들 간의 강한 연결이 나타난 것들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e4, 격차/경쟁 불안)은 우리 사회가 연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인식(j1, 불공정성 불안)과,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혼란(e6, 격차/경쟁 불안)은 집단이기주의(j6, 불공정성 불안)와,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없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a4, 적응/도태 불안)은 정치 불신(t1, 정부 불신 불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표 4-6>는 141개의 0이 아닌 엷지값 중 상위 10개의 엷지값과 연결된 노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6> 노드 간 연결이 강한 상위 10개 엷지값

노드 id		관계의 강도
t1-t2	정부 불신-정부 위기관리 불신	0.670
j3-j4	법집행 불공정-편법사회	0.382
s3-s4	안전사고 위험-범죄피해 두려움	0.363
e1-a1	낙오 불안-정보소외	0.299
e4-j1	빈부격차-연줄사회	0.285
e3-e4	취업불황-빈부격차	0.268
j1-j2	연줄사회-비정상 부자	0.255
j6-e6	집단이기주의-교육 혼란	0.230
a2-a4	적응 불안-미래 희망 없음	0.212
s2-s3	경찰 불신-안전사고 불안	0.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흥미로운 것은 집단이기주의(j6)를 중심으로 미래 희망 없음(a4), 교육 방향 혼란(e6), 정치 불신(t3), 편법사회(j4)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보다 편법이 더 잘 통하고 정치가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인식, 그리고 미래 희망도

없고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 지수는 네트워크 내 노드들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이 중 강도중심성(strength centrality)¹⁷⁾은 다른 노드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강도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강도중심성은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노드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Costantini et al., 2015; Isvoranu, Epskamp, Waldorp, & Borsboom, 2022).

먼저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의 강도중심성을 살펴보면 ‘빈부격차 심화(e4)’,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t2)’, ‘미래 희망 없음(a4)’, ‘조직 적응에 대한 불안(a2)’, ‘원칙보다는 편법 사회(j4)’라는 인식은 강도중심성이 높아 네트워크의 중요 노드로 확인되었다. 중심성 안정성계수(centrality stability coefficient)는 0.75이다. 이는 데이터 사례 수의 75%를 무작위로 제거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포함된 원래의 노드중심성 지수의 결과값과 0.7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성 분석 결과가 안정적임을 나타낸다(Epskamp, Borsboom, & Fried, 2018).¹⁸⁾

2.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

다음은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표 4-7>은 코호트별 강도중심성 값이

17) 강도중심성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같이 다른 노드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의 합이지만 엣지의 가중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 중심성 안정성계수는 0.25 이하 값을 가질 경우 안정적이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며 대체로 0.5를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본다.

큰 순서대로 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중심성 안정성계수는 코호트5(CS coefficient=0.206)를 제외하고는 모두 0.5 이상으로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코호트5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4-7〉 코호트별 강도중심성 지수 순위

구분	전체	코호트1 19~34	코호트2 35~44	코호트3 45~54	코호트4 55~64	코호트5 65~74
빈부격차 심화	e4	1	2	2	7	2
정부 위기관리능력 불신	t2	2	1	1	8	1
미래 희망 없음	a4	3	3	13	16	12
조직적응 불안	a2	4	18	7	1	6
편법사회	j4	5	9	4	5	5
정부 불신	t1	6	8	5	4	2
미래 불확실	j5	7	6	3	3	4
법집행 불공정	j3	8	11	23	10	9
범죄피해 두려움	s4	9	7	8	6	3
연줄사회	j1	10	5	10	7	8
비정상적 성공	j2	11	16	9	11	11
경쟁적 사회	e2	12	12	12	14	10
교육 방향 혼란	e6	13	22	14	9	15
정보소외	a1	14	15	18	19	17
정치 불신	t3	15	20	11	23	18
뒤떨어질 것	e1	16	19	21	21	23
사기 걱정	s1	17	21	22	13	14
집값 감당	e5	18	23	19	20	21
경찰 불신	s2	19	14	15	12	13
집단이기주의	j6	20	17	6	15	16
취업불황 지속	e3	21	4	17	22	22
안전사고 위협	s3	22	13	16	18	19
변화 속도 적응 불안	a3	23	10	20	17	20
전쟁 발발 위협	s5	24	24	24	2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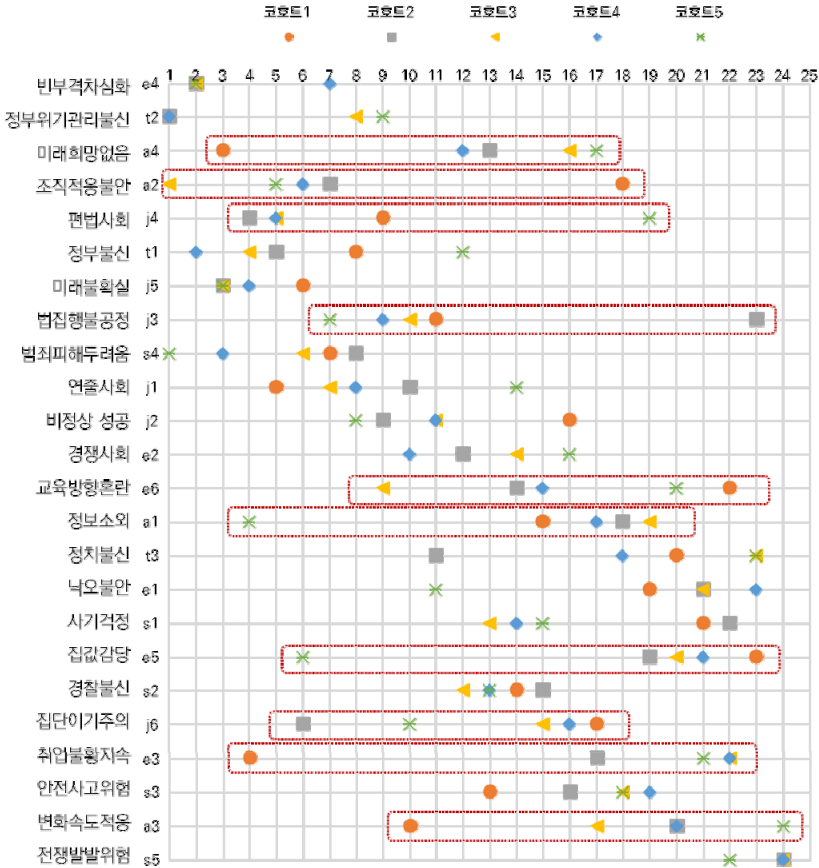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4-7〉을 보면 코호트1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에서는 정부 위기관리 불안 >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불안 > 희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순으로 강도중심성이 높았다. 코호트2의 경우에도 코호트1과 유사하게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불안 >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불안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요했다. 코호트3의 경우에는 조직적응에 대한 불안이 가장 중심성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코호트4의 경우에는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불안과 정부 불신 등 정부에 대한 불안이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다음으로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코호트5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핵심 요소였으며 그다음으로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코호트4를 제외하고 모든 코호트에서 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적 불안의 여러 요소들 중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또한 코호트 1, 2, 4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전쟁 발발의 위험은 모든 코호트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많지 않은 요소로 중심성이 낮았다.

중심성 지수 순위를 코호트 간에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그림 4-3]은 코호트 간 중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요소를 조금 더 잘 확인하기 위하여 중심성 지수의 순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4-3] 코호트별 중심성 지수 순위 비교



주: 코호트1: 1986~2001년 출생, 코호트2: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 1968~1975년 출생, 코호트4: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 1947~1956년 출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4-3]을 살펴보면 먼저 코호트1의 경우 미래에 희망이 없고(a4) 취업불황이 지속될 것이며(e3)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인식(a3)이 다른 코호트들에 비해 중요도 면에서 상위(상위)에 나타났다. 반면 조직적응에 대한 불안(a2)이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혼란(e6)은 상대적으

로 순위가 낮았다. 코호트2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t3)과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우려(j6)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법집행의 불공정함(j3)의 순위는 매우 낮다. 코호트3의 경우 조직 적응에 대한 불안(a2)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교육 방향에 대한 혼란(e6) 또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순위가 높다. 반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a4)는 인식의 순위는 낮다. 이는 코호트1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코호트4의 경우도 미래 희망이 없음(a4)은 순위가 낮은 편이다. 코호트5의 경우 중심성 안정성 계수가 낮아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감안했을 때 미래 희망이 없다(a4)거나 편법이 더 잘 통한다(j4)는 인식의 순위는 낮은 반면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s4), 정보소외(a1)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e5), 그리고 뒤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e1) 등의 순위가 높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불안의 양상이 현재 각 코호트가 처해 있는 생애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있는 코호트1에게 취업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은 다른 요소들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며 양육과 돌봄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코호트3의 경우 조직 적응이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코호트5는 집값은 중요한 불안 요소일 것이며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과 정보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불안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 면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중심성 순위에 대해 코호트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Spearman's rho)를 구해본 결과(〈표 4-8〉 대각선 아래 참조) 코호트5의 중심성 순위는 코호트1과 2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가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1은 다른 코호트들과의 상관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코호트1의 사회적 불안의 양상이 다른 코호트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의 구조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의 인접행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8〉 대각선 위 참조) 연령대가 본인의 코호트와 멀어질수록 네트워크 구조의 유사도는 떨어졌지만 코호트2의 경우에는 코호트4와의 유사도가 인접 코호트와의 유사도보다 오히려 더 높고 코호트3과의 유사도는 낮았다.

〈표 4-8〉 코호트 간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순위 유사도

구분	코호트1	코호트2	코호트3	코호트4	코호트5
코호트1		.606	.535	.525	.438
코호트2	.540**		.504	.663	.541
코호트3	.452*	.710**		.685	.429
코호트4	.586**	.769**	.900**		.547
코호트5	.194	.370	.522**	.501*	

주: 대각선 위는 코호트 간 네트워크 구조의 상관관계, 아래는 중심성 순위의 상관관계. 값은 Spearman's rho. 코호트1: 1986~2001년 출생, 코호트2: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 1968~1975년 출생, 코호트4: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 1947~1956년 출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3절 사회적 불안 인식 설명 요인 네트워크 분석

1.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 수준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안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코호트별로 비교해보자. 앞 절에서 우리는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 미시와 거시 영역에 따라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각 차원으로 묶이는 요소들 값의 평균을 코호트별로 살펴보면(〈표 4-9〉) 모든 코호트에서 ‘체계의 작동원리에 대한 불안’이 다른 불안 차원보다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최근 코호트(코호트1과 2)는 개인 삶의 유지와 관련된 생활세계-미시 영역에서의 불안이 그다음으로 높은 데 비해, 1957~1975년 출생 코호트(코호트3과 4)는 체계-거시 영역에서의 불안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표 4-9〉 코호트별 4개 하위 영역의 사회적 불안 수준

구분	생활세계		체계	
	거시	미시	거시	미시
	사회관계 유지 불안	개인 삶의 유지 불안	위험관리와 거버넌스 불안	체계 작동 원리 불안
코호트1	3.44	3.73	3.50	4.06
코호트2	3.40	3.74	3.38	4.12
코호트3	3.42	3.70	3.81	4.10
코호트4	3.32	3.63	3.72	4.07
코호트5	3.02	3.28	3.21	3.53
전체	3.35	3.65	3.55	4.01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1,3>2,4>5	2,1,3>4>5	3>4>1>2>5	2,3,4,1>5

주: 4개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 집단 간 차이 검증은 샘플 수가 다르고 등분산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Games-Howell 검증을 한 결과임. 코호트1: 1986~2001년 출생, 코호트2: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 1968~1975년 출생, 코호트4: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 1947~1956년 출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불안의 4개 차원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인지 수준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 인지 수준 문항과 사회적 불안의 4개 차원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10〉 참조).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미시적 생활세계 영역에서

의 불안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반면, 1970년대 중반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미시적 체계 영역에서의 불안이 사회적 불안 인지와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4-10〉 전반적 사회 불안 인지 문항과 사회적 불안 하위 차원 간 상관관계

구분	생활세계-거시	생활세계-미시	체계-거시	체계-미시
코호트1	.331**	.426**	.336**	.398**
코호트2	.350**	.479**	.418**	.442**
코호트3	.348**	.415**	.404**	.506**
코호트4	.314**	.425**	.454**	.486**
코호트5	.109**	.232**	.201**	.282**
전체	.331**	.440**	.375**	.468**

주: 전반적 사회적 불안 인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척도(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로 질문함. 셀값은 코호트별로 4개 개별 영역과 전반적 사회적 불안 인지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상관계수값은 pearson's r. 코호트1: 1986~2001년 출생, 코호트2: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 1968~1975년 출생, 코호트4: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 1947~1956년 출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은 생활세계의 불안과, 1970년대 중반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은 체계의 불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설명 요인

다음은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설명 요인과의 관계가 코호트별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가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변수는 4개의 사회적 불안 영역 변수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사회적 경험 변수, 그리

고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에 대한 신뢰 문항이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노드들이 겹치지 않도록 프루터만-레인골드(Fruchterman-Rein gol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노드의 위치를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가.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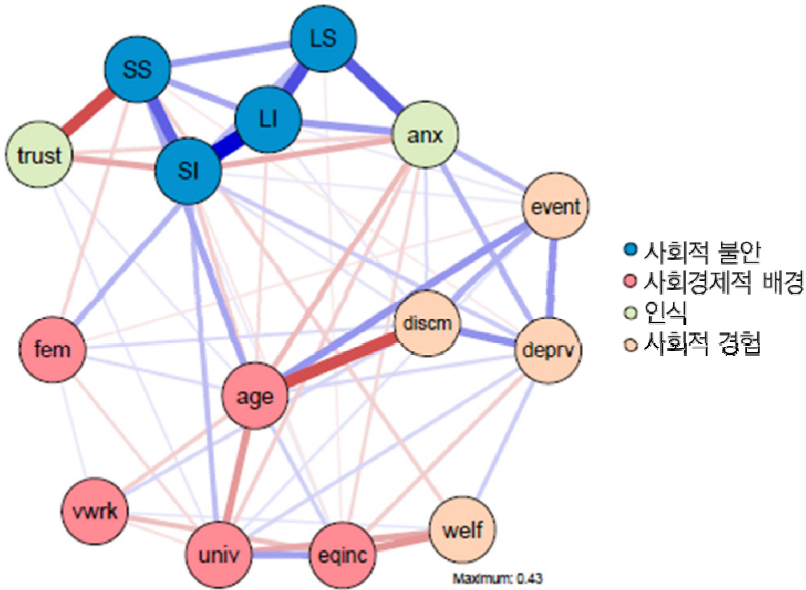
먼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의 4개 영역과 설명 요인들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추정한 결과([그림 4-4] 참조), 4개 사회적 불안 영역 간에 강한 연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2개의 체계 불안은 사회신뢰와 부적 연결관계가, 2개의 생활세계 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정적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체계의 작동원리나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이 낮았다. 반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 높은 경우 개인 삶의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불안 영역별로 유의미한 연결을 보이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 사회관계 불안(LS)이 높았으며 반대로 거버넌스 불안(SS)은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사회관계 불안(LS)과 체계 작동원리 불안(SI)은 낮았으나 거버넌스 불안(SS)은 높았다. 또한 고연령인 경우 거버넌스 불안(SS)이 높은 반면 개인적 삶의 불안(LI)과 체계 작동원리 불안(SI)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교육은 체계 작동원리 불안(SI)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과 사회적 사건 경험은 높은 개인 삶의 불안(LI)과 체계 작동원리 불안(SI) 등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불안과 연관이 있었다.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체계 작동원리 불안(SI)이 높았으며 복지수혜 경험

은 거버넌스 불안(SS)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네트워크



주: SS-거버넌스 불안(체계-거시), SI-체계의 작동원리 불안(체계-미시), LI-개인 삶의 불안(생활세계-미시), LS-사회관계 불안(생활세계-거시), trust-사회적 신뢰, anx-심리적 불안, fem-여성, vwrk-불안정 노동, univ-대졸, eqinc-균등화 가구소득, discm-차별 경험, deprv-박탈 경험, event-사회적 사건 경험, welf-정부지원 수혜 경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나.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사회적 불안 영역 간의 관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코호트5를 제외하고 여성과 사회관계 불안과의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특히 코호트1에서 성별과 사회관계로 인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코호트2와 코호트3에서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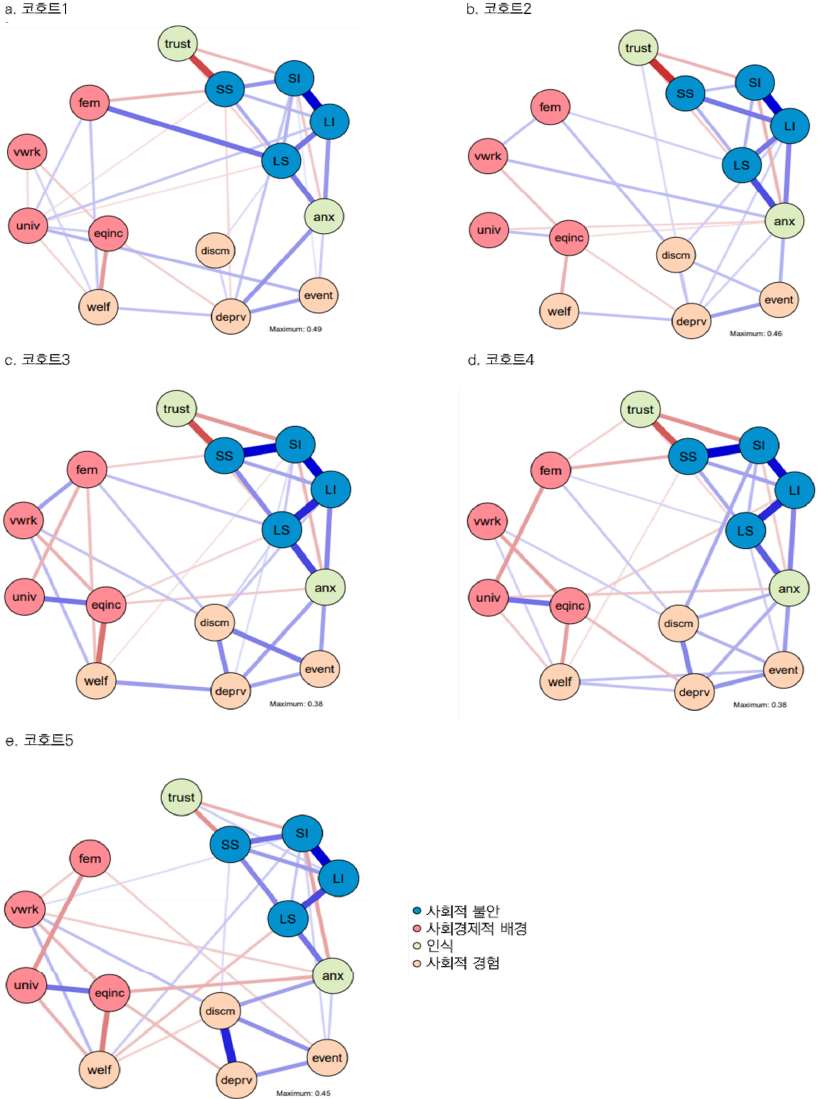
차별 경험을 통해 개인 삶의 영역에서의 불안(LI)과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코호트4에서는 차별 경험을 통해 체계 작동원리 불안 차원과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이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의 서로 다른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가구소득은 코호트3의 경우 LS와, 코호트4의 경우 LI와 부적인 관련이 있으며, 불안정 근로는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 차별 경험, 복지수혜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탈, 차별, 사회적 사건 경험은 심리적 불안을 통해 생활세계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차별 경험은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코호트4와 5에서는 체계 불안을 높이는 쪽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 불안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코호트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연결도 있었는데, 모든 코호트에서 심리적 불안은 거시와 미시 차원을 포함하여 생활세계의 불안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반면 사회적 신뢰는 모든 코호트에서 거시와 미시 차원 모두에서 체계의 불안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림 4-5]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설명 요인 네트워크



주: SS-거버넌스 불안(체계-거시), SI-체계의 작동원리 불안(체계-미시), LI-개인 삶의 불안(생활세계-미시), LS-사회관계 불안(생활세계-거시), trust-사회적 신뢰, anx-심리적 불안, fem-여성, vwrk-불안정 노동, univ-대졸, eqinc-균등화 가구소득, discm-차별 경험, deprv-박탈 경험, event-사회적 사건 경험, welf-정부지원 수혜 경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4절 소결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가 발견되었는데 ‘빈부격차의 심화’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이는 코호트를 막론하고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 해소에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불안의 핵심 요소들에서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1986~2001년 출생 코호트(19~34세)에서는 취업불황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이,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5~44세)에게는 집단이기주의나 편법 사회로 인한 불안이, 1968~1977년 출생 코호트(45~54세)에서는 조직적응에 대한 불안과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이 이들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5~64세)의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그리고 1947~1956년 출생 코호트(65~76세)의 경우 범죄피해와 정보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불안이 핵심 요소였다. 이처럼 출생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이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또는 과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호트별로 관리, 통제해야 할 위험이나 불안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안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이, 1975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의 불안이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점에 20~30대를 보낸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의 생애 경험과 무

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체계가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한 경우 체계,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이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체계 붕괴의 직접적인 경험은 비켜갔지만 이후 체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생활세계로 침투되는 상황을 경험한 1975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세계에서의 불안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모든 코호트에서 사회적 신뢰는 체계 불안에, 심리적 불안은 생활세계 불안에 연결되어 있었다. 체계 불안과 생활세계 불안이 높은 집단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체계 불안과 생활세계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체계 불안이 높은 집단과 생활세계 불안이 높은 집단의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 체계 불안은 신뢰의 문제이므로 신뢰 회복을 통해 이들의 불안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생활세계 불안이 높은 1975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다양한 생활세계의 경험, 차별, 박탈, 사회적 사건 등의 경험을 줄이는 것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더 유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특정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차별, 박탈, 사회적 위험 사건 경험에 더 취약하며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중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은 차별 경험,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과 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 간에 불안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들 간의 연결을 완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이러한 불안의 구조와 과정들이 상호 연결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제5장

개인의 심리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제2절 개인 불안심리 유형 특성

제3절 개인 불안심리의 예측요인

: 사회적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제4절 소결



제 5 장

개인의 심리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사회적 불안이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결국 개개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 및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개개인의 불안이 반영되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사회적 불안이 형성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 불안이 반영되어 개인 차원의 불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우리 사회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불안 및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이현주 외, 2022, pp. 87-88).

자신이 속한 사회가 불안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심리적 인지 및 지각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 불안 수준을 벗어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명확하다. 정상적 수준의 사회 불안과 사회 불안 장애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진 않으나 사회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바로 개인의 웰빙 및 삶의 손상 가능성을 들 수 있다(이현주 외, 2022 pp. 89-90). 불안 수준이 평균(적정한) 수준에서 벗어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벗어난 양상이 특정한 경향을 보인다면 그 경향 및 특성을 살펴보고 확인함으로써 불안을 적절한 수준으로 바로 잡기 위한 수단 및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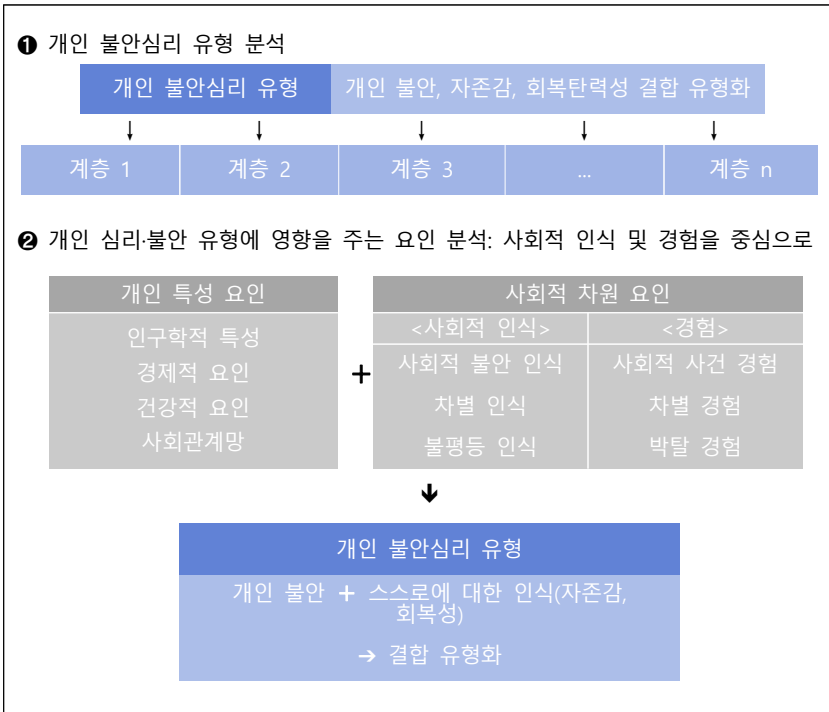
특히 세대 내 공유된 그 시대 사회 문제 및 특성들을 고려한 구성원의 심리 및 불안 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불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대 내, 세대 간 개인 심리·불안 수준 및 질이 어떠한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불안이 심화되는 요인에 있어 특정 연령집단의 공유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은 큰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세대 내, 세대 간 인식 및 태도의 다름으로 인해 겪는 갈등도 크고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개인 차원의 불안, 심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며 하나 또는 복수의 원인으로 인해 항상성이 파괴되었을 때 개인 차원의 불안이 일어나고,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은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회적 불안도 개인의 불안으로 현화된다(이현주 외, 2019). 박수애, 송관재(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험 및 사건들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은 사회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다(이현주 외, 2022, p. 98에서 재인용). 박탈 및 차별 경험은 인간의 자존감 원천들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며 (Branden, 2021),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한다면 자원의 부족 및 박탈, 차별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을 저평가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신뢰의 실추뿐 아니라 개인 심리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Wilkinson & Pickett, 2011, 이현주 외, 2022, p. 98에서 재인용). 또한 Oishi, Kesebir, & Diener(2011) 연구에서는 불평등 인식, 차별 인식 등과 같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인 특성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요인으로 사회적 인식(차별 및 불평등 인식, 사회적 불안 인식)과 경험(사

회적 사건 경험, 차별 및 박탈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 심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림 5-1] 연구 모형



자료: 저자 작성.

〈표 5-1〉 분석 틀 설명

개인 불안심리 유형		개인 불안, 자존감, 회복탄력성 결합 유형화	
사회적 요인	인식	사회적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 점수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요인분석 통해 유형화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차/경쟁 불안 · 불공정/불확실 불안 · 안전 불안 · 정부 불신 불안 · 적응/도태 불안 	
		차별 인식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 평균
		불평등 인식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평균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코로나19 관련 경험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에 의한 차별 경험
		박탈 경험	건강, 돌봄, 주거, 교육 영역에서 박탈 경험
	개인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사회관계망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건강적 요인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		가구소득, 주거형태, 경제활동 상태 등 경제적 요인 관련 연령별 변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방법

가. 분석 방법 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의 불안 변수와 스스로에 대한 인식(자존감, 회복탄력성) 변수를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한다. 그리고 구분된 유형을 활용해 다항로지트 모델을 통한 예측요인을 분석한다.

그룹을 유형화하는 방법으로는 유사성과 거리에 기초하여 군집 개수를 결정하는 계층적 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 방법인 K-means 방법, 그리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 등이 있다(이현주 외, 2022, p. 91). 이 중 잠재계층분석은 Lazarsfeld (1950)와 Lazarsfeld & Henry(1968)가 제안한 방법으로 한 관찰치가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특정 집단 변수들의 조건 아래에서 관찰치가 관찰될 가능성(likelihood)으로 표시한 후, 사후집단(posterior) 확률 값을 지닌 세부 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이다.¹⁹⁾ 이때 잠재계층분석 방법 중 관찰된 모든 변수가 연속적일 때 잠재계층분석은 때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한다. 잠재프로파일 모델은 로지스틱 대신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관찰된 결과를 모델링한다(Huber, 2019; 이현주 외, 2022, p. 92에서 재인용).

〈표 5-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Continuous Latent	Categorical Latent
Continuous Observed	Factor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Categorical Observed	Latent trait analysis or Item Response Theory	Latent Class Analysis

자료: Huber, C. (2019). Latent class analysis using stata. University College London(October, 16, 2019.);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2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을 종속변수로 하여 예측변수가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항 로짓분석을 수행한다.

19) 기존 분석은 모집단 전체의 평균적 특성 관계만을 추론하기 때문에 관찰 대상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한 분석 방법이다(이현주 외, 2022, p. 92)

나. 변수 구성

이 연구에서 수행한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서 사회적 불안 인식, 불평등 인식, 차별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인식으로서 개인 불안과 함께 자존감, 회복성, 그리고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및 박탈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 차원의 불안심리를 유형화하기 위해 20개의 개인 불안 척도 문항을 통해 구성된 개인 불안 변수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 2개의 자존감 척도 문항, 4개의 회복성 척도 문항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된 변수도 함께 사용한다. 이현주 외(2022)의 연구에서도 개인 차원의 불안심리를 유형화하기 위해 20개의 개인 불안과 함께 자존감, 회복성 척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을 함께 고려하거나(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개인 불안과 자기효능감을 개인 차원의 심리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이현주 외, 2020; 이현주 외, 2022, p. 95에서 재인용). 또한 그 외 연구들에서도 심리적 요소로 자존감과 불안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송기숙, 2007; Steiger, Allmand, Robins, & Fend, 2014; 이현주 외, 2022에서 재인용, p. 95). 이때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수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데(Zimmerman, Copeland, Shope, & Die lman, 1997;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p. 84에서 재인용), 자존감의 불변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번 형성된 자존감은 생애에 걸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Wylie, 1979; 김혜미 외, 2015, p. 84; 이현주 외, 2022, p. 94에서 재인용), 다양한 사건의 경험

등으로 인해 사회환경 속에서 변화된다는 주장도 있다(Trzesniewski, Robins, Roberts, & Caspi, 2004; 김혜미 외, 2015, p. 84; 이현주 외, 2022, p. 94에서 재인용).

사회적 불안은 24개의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인식과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영역으로 유형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활용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요인은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으로 개념화된다.

〈표 5-3〉 사회적 불안, 개인 불안심리 변수 설명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 점수(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격차/경쟁 불안	격차/경쟁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불공정/불확실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요인 5개 변수 평균
	정부 불신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요인 3개 변수 평균
	적응/도태 불안	적응/도태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개인 불안 심리	개인 불안지수	20개 개인 불안 척도 평균 점수(1.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자존감	자존감 2개 척도 평균 점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4개 척도 평균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5-4〉 개인 불안심리 변수

요인	설문 문항
개인 불안	(1) [불안 자가진단]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2) [불안 자가진단]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3) [불안 자가진단]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4) [불안 자가진단]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5) [불안 자가진단]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6) [불안 자가진단]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못한다
	(7) [불안 자가진단]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8) [불안 자가진단]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9) [불안 자가진단]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10) [불안 자가진단]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11) [불안 자가진단]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12) [불안 자가진단]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13) [불안 자가진단] 나는 무리 없이 숨 쉴 수 있다
	(14) [불안 자가진단]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15) [불안 자가진단] 나는 소화가 안 되어 고생을 한다
	(16) [불안 자가진단]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17) [불안 자가진단]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18) [불안 자가진단]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19) [불안 자가진단]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20) [불안 자가진단]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자존감	(1)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회복 탄력성	(1)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2)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3)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5-5〉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

요인	설문 문항
격차/경쟁 불안	(1) [사회적 불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3)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4) [사회적 불안]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5)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8)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20)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불공정/불확실 불안	(6)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8)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9)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10)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11)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19)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안전 불안	(12) [사회적 불안]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13)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14) [사회적 불안]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15) [사회적 불안]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16) [사회적 불안]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 불신 불안	(21) [사회적 불안]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22) [사회적 불안]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23) [사회적 불안]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응/도태 불안	(2) [사회적 불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7)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17) [사회적 불안]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24) [사회적 불안]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인식 중 불평등 인식은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문항을 활용한다. 차별 인식은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 점수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험과 관련한 변수는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와 차별 경험, 박탈 경험을 사용한다. 사회적 사건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관련,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경험 여부를 사용한다. 차별 경험은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박탈 경험은 건강, 돌봄, 주거, 교육에 대한 박탈 경험을 활용한다. 그 외 사용된 설명 요인 변수 및 변수 처리 방법은 <표 5-6>과 같다.

<표 5-6> 개인 심리·불안의 설명 요인 변수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및 처리
개인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관련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문제 경험 여부→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코로나 영향 경험	코로나19 관련 건강, 여가·문화·친교·종교활동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일자리 불안·소득 감소, 가족 관련 경험 여부→부정적 영향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의 8개 종류의 차별 경험 건수→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박탈 경험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의 4개 종류의 박탈 경험→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사회적 인식	차별 인식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 평균
	불평등 인식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20년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평균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 점수(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격차/경쟁 불안	격차/경쟁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불공정/불확실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요인 5개 변수 평균
	정부 불신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요인 3개 변수 평균
적응/도태 불안	적응/도태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및 처리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성별
	연령	만 나이 * 청중년(19~44), 후기중년(45~64), 노년(65~74)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 3. 대졸 이상 (청중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졸 이상)
	혼인상태 거주지역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지역(동, 읍/면)
사회 관계망	사회적 지원망 수	사회적 지지망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¹⁾
개인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 매우 나쁘다~5. 매우 좋다)
경제적 요인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한 가구소득
	주거형태	자가 여부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상태(상용, 임시/일용,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 실업자, 비경활)
	노후준비 (후기중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되어) 있지 않다)

주: 1) 후기중년과 노년의 경우 문항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3개 문항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합산. 청중년의 경우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문항의 사람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2절 개인 불안심리 유형 특성

1. 개인 불안심리 유형 특성

가. 모형 적합도 비교

개인 불안과 개인 심리 상태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였다. AIC는 두 개 이상의 모델을 비교하여 우도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때 표본의 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BIC에 근거하여 두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한다(이현주 외, 2022, pp. 92-93). 더 많은 계층을 가진 모형이 적은 계층의 모형보다 자료에 잘 적합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다. 이는 요인분석의 경우 스크리 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의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Jedidi, Jagpal, & DeSarbo, 1997; 노연경, 홍세희, 2012, pp. 63-64; 이현주 외, 2022, pp. 92-9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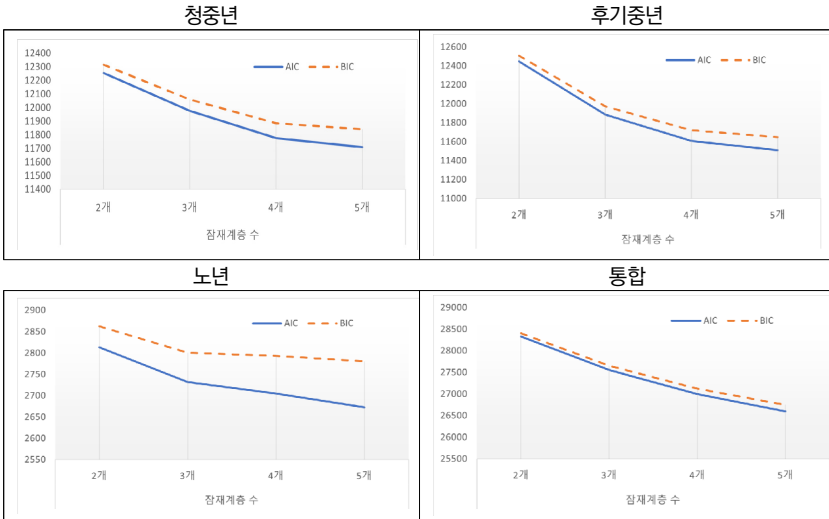
관측된 지표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전제로 적합한 모형에 도달할 때까지 집단 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계단식 추가(stepwise addition)법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 개수가 2개부터 5개 모형들의 모형 적합도는 <표 5-7>과 같다. 정보지수 AIC와 BIC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AIC와 BIC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의 잠재계층 수로 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분류 비율 또한 고려하였다(이현주 외, 2022, p. 101). 분류 비율이 너무 작은 규모일 경우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Jung & Wickrama, 2008; 노연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 p. 79에서 재인용). AIC와 BIC 모두 잠재계층 수가 2개에서 3개로 변화할 때 모두 감소하는 폭이 가장 컸다. 최종적으로 AIC와 BIC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 분류 비율, 그리고 분류된 잠재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이현주 외, 2022, p. 101) 잠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5-7〉 잠재계층의 개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기준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청중년	정보	AIC	12255.8	11976.1	11777.0	11708.4
	지수	BIC	12316.3	12060.7	11885.8	11841.4
	분류율		42.4%	14.0%	3.8%	1.8%
			57.6%	57.6%	41.2%	17.5%
				28.4%	50.0%	33.0%
					5.0%	42.6%
				5.1%		
후기중년	정보	AIC	12446.8	11885.4	11608.9	11511.0
	지수	BIC	12508.6	11971.9	11720.2	11647.0
	분류율		37.8%	28.3%	3.7%	0.6%
			62.2%	63.1%	32.7%	10.9%
				8.6%	55.9%	29.9%
					7.7%	50.9%
				7.7%		
노년	정보	AIC	2813.4	2731.7	2704.9	2672.5
	지수	BIC	2862.5	2800.4	2793.2	2780.5
	분류율		50.0%	34.9%	8.1%	12.7%
			50.0%	49.1%	27.9%	18.3%
				16.0%	47.5%	16.7%
					16.5%	38.0%
				14.4%		
통합	정보지수	AIC	28332.7	27556.6	26998.3	26594.7
		BIC	28402.2	27653.9	27123.4	26747.5
	분류율		41.4%	29.4%	2.6%	2.4%
			58.6%	60.1%	37.2%	32.0%
				10.5%	53.1%	5.3%
					7.1%	52.7%
				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5-2]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나. 개인 불안심리 유형과 유형별 특성

1) 개인 불안심리 유형과 유형별 개인 특성

잠재계층분류 기준에 따라 3개로 분류된 유형의 특성은 <표 5-8>과 [그림 5-3]과 같다. 잠재계층별 개인 불안심리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3개 집단의 이름을 각각 '고불안, 심리부정형', '중불안, 심리중도형', '저불안, 심리긍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우선 연령별 평균 개인 불안심리 수준을 살펴보면, 청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며 개인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각 유형별 특징으로, 첫 번째 집단은 개인 불안 수준이 높으며,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 집단은 연령 집단별로 청중년 12.45%, 후기중

년 27.36%, 노년 35.0%가 속했다. 특히 청중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 청중년 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도 자존감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자존감은 4점 척도에서 2점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두 번째 집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수가 속한 집단으로, 개인 불안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각 연령 집단 평균 수준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청중년의 경우 집단 평균보다 다소 높은 불안 수준과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반면, 후기중년과 노년은 집단 평균보다 낮은 불안 수준과 낮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마지막 집단은 불안 수준이 낮으며 본인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후기중년의 경우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 인식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표 5-8〉 연령별 개인 불안심리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구분	고불안· 심리부정형		중불안· 심리중도형		저불안· 심리긍정형		전체		
	coef	s.e	coef	s.e	coef	s.e	m	s.d	
청 중 년	불안	2.51	0.05	2.07	0.04	1.71	0.02	2.03	0.48
	자존감	1.96	0.06	2.66	0.06	3.37	0.05	2.77	0.61
	회복력	2.36	0.06	2.82	0.03	3.20	0.03	2.87	0.42
	수	388		1,950		779		3,117	
	비율	12.45		62.56		24.99		100.0	
후 기 중 년	불안	2.30	0.02	1.75	0.01	1.54	0.02	1.88	0.44
	자존감	2.39	0.02	3.07	0.01	3.76	0.03	2.94	0.57
	회복력	2.56	0.01	3.01	0.01	3.66	0.03	2.94	0.41
	수	978		2,335		262		3,575	
	비율	27.36		65.31		7.33		100.0	
노 년	불안	2.18	0.02	1.77	0.02	1.47	0.03	1.87	0.36
	자존감	2.56	0.03	3.00	0.03	3.49	0.05	2.92	0.49
	회복력	2.55	0.02	2.95	0.03	3.37	0.04	2.88	0.42
	수	350		503		147		1,000	
	비율	35.00		50.30		14.7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모든 연령대를 통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잠재계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유형은 연령 집단별 분석과 동일한 ‘고불안, 심리부정형’, ‘중불안, 심리중도형’, ‘저불안, 심리긍정형’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유형 내 연령대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 불안이 높으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인식이 강한 집단인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은 청중년 약 55.3%, 후기중년 약 34.2%, 노년 10.5%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불안이 가장 낮으며 스스로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한 집단인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에는 청중년 36.3%, 후기중년 50.3%, 노년 13.4%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간 연령 집단별 비율을 살펴봐도 청중년이 상대적으로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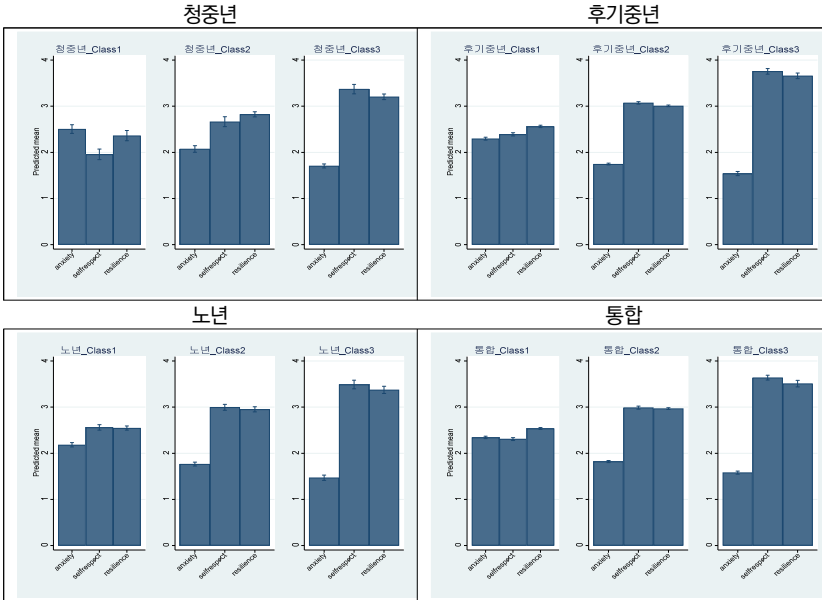
<표 5-9> 개인 불안심리(통합)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구분	고불안· 심리부정형		중불안· 심리중도형		저불안· 심리긍정형		전체		
	coef	s.e	coef	s.e	coef	s.e	m	s.d	
통합	불안	2.34	0.01	1.82	0.01	1.58	0.02	1.95	0.46
	자존감	2.31	0.02	2.99	0.02	3.64	0.03	2.86	0.59
	회복력	2.54	0.01	2.97	0.01	3.51	0.04	2.90	0.42
	수	2,192		4,870		630		7,692	
	비율	28.5		63.3		8.2		100.0	
	청중년 비율	55.3		42.7		36.3		-	
	중년 비율	34.5		59.0		6.5		100.0	
	후기중년 비율	34.2		44.3		50.3		-	
	노년 비율	23.3		66.9		9.8		100.0	
	노년 비율	10.5		13.1		13.4		-	
	24.2		66.9		8.9		100.0		
	100.0		100.0		100.0				

주: 통합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5-3] 개인 불안심리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주: Class1=고불안심리불안형, Class2=중불안심리중도형, Class3=저불안심리긍정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개인 특성 요인을 살펴봤다. 불안 수준이 평균(적정한) 수준에서 벗어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벗어난 양상이 특정한 경향을 보인다면 그 경향 및 특성을 살펴보고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바로 잡기 위한 수단 및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회관계망도 좁고, 건강상태도 나쁘며, 고용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자가 비율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에 사회관계망도 넓으며, 양호한 건강상태와 높은 경제적 수준의 사람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청중년의 경우,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여성이 62.9%, 저불안

심리긍정형 집단에 남성이 61.1% 속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불안 수준 및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인식에도 차이를 보이며, 두 집단의 사회관계망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후기중년의 경우 노후준비 여부에 있어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과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불안심리 유형과 귀속 및 획득 지위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불안과 심리 상태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0〉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개인 특성

(단위: %, 명, 점, 만 원)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부 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성별	남성	37.1	50.7	61.1	52.6	50.1	48.1	45.1	47.9	49.0
	여성	62.9	49.3	38.9	47.4	49.9	51.9	54.9	52.1	51.0
교육	중졸 이하	-	-	-	3.3	1.5	0.8	48.9	36.8	22.5
	고졸(이하)	40.0	29.5	24.7	32.1	24.1	21.0	44.0	52.5	58.5
	대졸 이상	60.1	70.5	75.4	64.6	74.5	78.2	7.1	10.7	19.1
결혼	배우자○	29.1	39.7	43.7	68.8	78.4	82.4	85.7	82.1	91.8
	배우자×	70.9	60.3	56.3	31.2	21.6	17.6	14.3	17.9	8.2
도시	동	89.0	90.4	91.0	84.7	81.8	77.1	83.7	84.3	81.0
	면/읍	11.0	9.6	9.0	15.3	18.2	22.9	16.3	15.7	19.1
사회관계망 수	1.3	2.5	3.6	1.9	2.4	2.5	2.0	2.4	2.5	
건강상태	2.6	3.2	3.8	2.7	3.2	3.6	3.2	3.4	3.8	
균등가구소득	245.1	270.4	295.0	278.4	336.9	352.7	274.6	294.0	362.6	
주거	자가	50.7	55.3	59.9	63.3	72.3	73.3	82.0	84.5	87.8
	비자가	49.3	44.7	40.2	36.7	27.7	26.7	18.0	15.5	12.2
경제상태	상용	39.9	47.5	54.2	45.0	47.8	50.4	12.9	6.2	8.2
	임시일용	20.0	16.5	13.6	14.0	12.3	9.5	8.3	13.7	7.5
	자영	6.8	8.6	8.4	16.0	17.2	19.5	37.1	41.0	45.6
	실업	11.0	6.2	4.5	7.5	5.4	2.7	-	-	-
노후	비경활	22.3	21.3	19.3	17.6	17.3	17.9	41.7	39.2	38.8
	준비○	-	-	-	41.2	61.7	73.3	-	-	-
	준비×	-	-	-	58.8	38.3	26.7	-	-	-

주: 사회관계망 수는 후기중년과 노년의 경우 문항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3개 문항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합산. 청중년의 경우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문항의 사람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사회적 인식 및 경험 특성

(1) 사회적 불안 인식

〈표 5-11〉은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개인 불안 수준이 높고, 동시에 자존감 및 회복성 등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다. 사회 불안 영역별로 살펴보면 격차/경쟁 불안은 청중년과 후기중년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응/도태 영역의 경우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과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 간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인다. [그림 5-4]~[그림 5-6]은 연령별 개인 불안·불안 심리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표 5-11〉 청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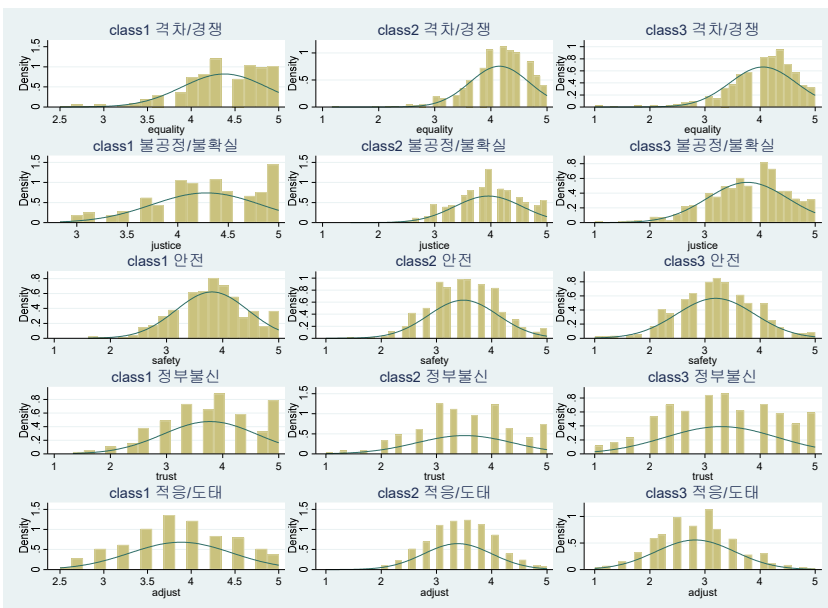
구분	항목	사회적 불안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고불안· 심리 부정형	사회적 불안 인식	4.08	0.46	3.95	0.49	3.38	0.48
	격차/경쟁	4.38	0.48	4.17	0.52	3.48	0.58
	불공정/불확실	4.28	0.54	4.12	0.62	3.47	0.59
	안전	3.81	0.65	3.66	0.59	3.19	0.59
	정부 불신	3.77	0.84	4.06	0.74	3.40	0.64
	적응/도태	3.88	0.58	3.66	0.58	3.34	0.60

146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구분	항목	사회적 불안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중불안, 심리 중도형	사회적 불안 인식	3.75	0.48	3.70	0.48	3.28	0.48
	격차/경쟁	4.15	0.53	4.04	0.49	3.60	0.56
	불공정/불확실	3.95	0.60	3.94	0.63	3.41	0.62
	안전	3.48	0.63	3.36	0.61	2.90	0.61
	정부 불신	3.50	0.87	3.88	0.77	3.29	0.70
	적응/도태	3.38	0.62	3.15	0.63	3.07	0.63
저불안, 심리 긍정형	사회적 불안 인식	3.51	0.57	3.60	0.62	3.17	0.47
	격차/경쟁	4.06	0.60	4.02	0.61	3.61	0.45
	불공정/불확실	3.77	0.73	3.92	0.77	3.32	0.66
	안전	3.19	0.71	3.21	0.78	2.74	0.73
	정부 불신	3.30	1.02	3.76	1.00	3.09	0.75
	적응/도태	2.83	0.72	2.86	0.79	2.89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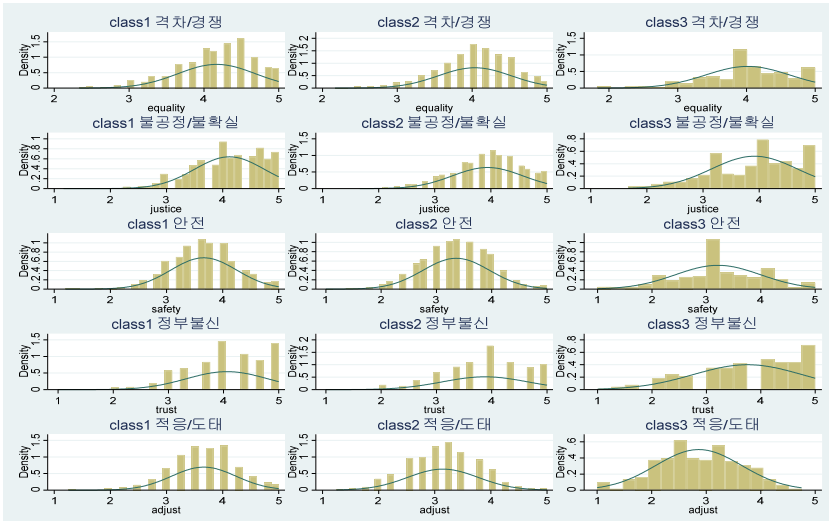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5-4] 청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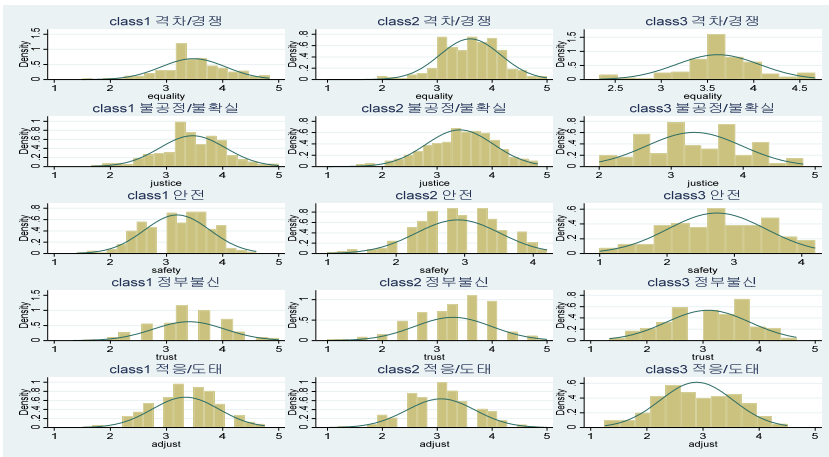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그림 5-5] 후기중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그림 5-6] 노년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2) 차별 및 불평등 인식과 사회적 경험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들로 유발된 사회적 불안은 그 사회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탈 및 차별 경험은 자존감 원천들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며(Branden, 2021),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Wilkinson & Pickett, 2011). 이러한 경험들은 불평등 인식, 차별 인식 등과 관계를 가지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Oishi, Kesebir, & Diener, 2011). 따라서 개인 불안심리 유형별 사회적 사건 경험과 차별, 박탈에 관한 경험, 그리고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의 특성을 살펴봤다.

청중년과 후기중년은 노년에 비해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이 차별 인식과 불평등 인식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청중년의 경우 4점 이상으로 높은 부정 인식을 보였다.

다음으로 차별 및 박탈 경험을 살펴보면, 개인 불안이 높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차별과 박탈에 대한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속한 청중년은 8개 종류의 차별 경험 중 5개 이상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5-12〉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차별 및 박탈 인식과 경험

(단위: 점, 건)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인식	평균	차별	3.76	0.62	3.71	0.60	3.04	0.72
		불평등	3.93	0.66	3.92	0.62	3.41	0.66
	고불안, 심리부정형	차별	4.04	0.58	3.82	0.60	3.12	0.66
		불평등	4.21	0.61	4.04	0.60	3.36	0.67
	중불안, 심리중도형	차별	3.75	0.59	3.67	0.58	3.00	0.71
		불평등	3.93	0.63	3.88	0.61	3.45	0.66
저불안, 심리긍정형	차별	3.64	0.65	3.66	0.71	2.99	0.87	
	불평등	3.79	0.73	3.88	0.75	3.37	0.66	
경험	평균	차별	3.94	2.42	2.51	2.30	1.61	2.14
		박탈	2.00	2.03	1.97	2.28	0.94	1.61
	고불안, 심리부정형	차별	5.03	2.19	3.41	2.46	2.69	2.65
		박탈	2.78	2.33	2.83	2.69	1.50	2.10
	중불안, 심리중도형	차별	4.03	2.38	2.20	2.13	1.20	1.60
		박탈	2.06	2.02	1.65	2.01	0.77	1.28
저불안, 심리긍정형	차별	3.15	2.37	1.93	2.17	0.46	1.07	
	박탈	1.43	1.73	1.60	1.91	0.21	0.53	

주: 1) 인식은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고 측정.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

2) 차별 경험은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의 8개 종류의 차별 경험의 합산. 박탈 경험은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의 4개 종류의 박탈 경험의 합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차별 인식의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불안심리부정형에 속한 청중년은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대한 차별 인식 또한 다른 연령대 동일 유형에 속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불안심리부정형에 속한 후기중년과 노년의 경우 학력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와 관련한 차별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불평등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으며,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차별 인식 항목별 특성

(단위: 점)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고불안, 심리부정형	성별	3.82	0.96	3.57	0.76	2.95	0.82
	연령	3.86	0.80	3.69	0.82	3.09	0.91
	장애	4.08	0.85	3.97	0.85	3.11	0.95
	외모	4.24	0.77	3.81	0.80	3.11	0.86
	학력	4.21	0.78	4.06	0.81	3.32	0.89
중불안, 심리중도형	성별	3.51	0.90	3.39	0.77	2.73	0.80
	연령	3.54	0.80	3.51	0.77	2.92	0.92
	장애	3.86	0.84	3.90	0.83	3.16	0.96
	외모	3.90	0.79	3.64	0.77	2.98	0.89
	학력	3.93	0.78	3.90	0.76	3.22	0.92
저불안, 심리긍정형	성별	3.36	0.96	3.34	0.94	2.63	1.00
	연령	3.40	0.89	3.49	0.90	2.90	1.09
	장애	3.81	0.90	3.92	0.97	3.18	1.13
	외모	3.79	0.87	3.66	0.90	2.91	1.16
	학력	3.82	0.87	3.90	0.88	3.34	0.91

주: 인식은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로 측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5-14〉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불평등 인식 항목별 특성

(단위: 점)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고불안, 심리부정형	교육	3.91	0.91	3.68	0.81	3.10	0.87
	취업	4.14	0.79	4.01	0.73	3.29	0.86
	승진	4.11	0.76	3.94	0.73	3.37	0.80
	소득	4.41	0.71	4.25	0.76	3.53	0.92
	자산	4.50	0.73	4.31	0.76	3.49	0.86
중불안, 심리중도형	교육	3.58	0.89	3.43	0.86	2.95	0.90
	취업	3.84	0.82	3.83	0.77	3.38	0.89
	승진	3.77	0.80	3.76	0.74	3.27	0.85
	소득	4.13	0.76	4.14	0.73	3.82	0.83
	자산	4.32	0.79	4.24	0.74	3.82	0.82
저불안, 심리긍정형	교육	3.42	1.02	3.43	1.01	2.75	1.08
	취업	3.62	0.94	3.83	0.92	3.23	0.99
	승진	3.60	0.87	3.79	0.87	3.16	0.78
	소득	4.03	0.88	4.15	0.87	3.88	0.78
	자산	4.27	0.85	4.21	0.83	3.82	0.76

주: 인식은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매우 심각하다로 측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차별 경험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중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들 중 고불안심리부정형에 속한 청중년은 장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차별 경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중년과 노년은 고불안심리부정형에 속한 사람들의 연령과 소득·자산, 직업, 학력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표 5-15〉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차별 경험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성별	73.7	58.5	48.9	39.9	26.8	24.0	35.7	11.9	6.1
연령	74.7	66.3	58.5	62.8	53.8	45.4	40.0	22.3	13.6
장애	21.9	16.9	16.2	17.7	7.2	7.3	11.4	2.4	0.7
외모	68.0	45.9	30.0	32.1	14.4	14.5	23.7	4.4	2.0
학력	69.3	58.2	42.0	47.0	28.7	22.5	36.9	16.5	7.5
직업	68.6	56.1	42.7	53.2	35.5	28.6	36.9	23.7	6.1
소득·자산	70.6	57.1	41.8	54.8	33.5	27.5	48.6	28.4	8.8
지역	56.2	44.3	34.7	33.6	20.1	23.3	36.0	10.7	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박탈 경험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청중년과 노년의 경우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과 저불안심리긍정형 집단에 속한 청중년과의 박탈 경험 비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6>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따른 박탈 경험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고불안 심리 부정형	중불안 심리 중도형	저불안 심리 긍정형
건강1	44.1	24.8	11.8	35.1	12.8	8.0	24.3	8.2	1.4
건강2	18.6	10.5	6.9	17.5	7.0	5.7	21.4	6.6	0.7
건강3							14.0	3.4	0.0
돌봄1	31.4	23.5	15.8	31.2	21.5	23.7	11.7	5.8	3.4
돌봄2	27.8	19.3	10.1	24.1	12.5	9.9	13.7	5.6	1.4
돌봄3				23.9	16.3	15.3			
주거1	34.8	26.6	16.9	27.6	14.0	10.3	28.0	16.3	2.7
주거2	47.4	43.3	38.1	45.7	35.3	36.3	36.6	31.4	11.6
주거3				23.6	11.0	11.5			
교육1	35.1	22.7	13.4	23.4	11.5	12.6			
교육2	38.9	35.5	29.8	30.5	23.3	26.3			

주: 건강1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건강2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 본 적이 있다”, 건강 3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돌봄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돌봄3 “돌봄서비스 이용료 등 돌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주거1 “돈이 없어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주거2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주거3 “주거비 때문에 낸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있다”, 교육1 “돈이 없어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교육2 “학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사건 경험과 관련해서는 후기중년 집단의 사건 경험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집단임에 따라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5-17〉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사건 경험 특성

(단위: 건)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mean	S.D.	mean	S.D.	mean	S.D.
평균	사회적 사건	1.45	1.31	2.25	1.37	0.85	0.90
	코로나	1.90	1.39	1.33	1.13	1.33	1.28
고불안, 심리부정형	사회적 사건	1.82	1.37	2.75	1.27	1.02	0.90
	코로나	2.47	1.51	1.64	1.19	1.53	1.51
중불안, 심리중도형	사회적 사건	1.50	1.31	2.08	1.37	0.78	0.89
	코로나	1.98	1.38	1.22	1.08	1.29	1.17
저불안, 심리긍정형	사회적 사건	1.16	1.21	1.94	1.28	0.69	0.82
	코로나	1.46	1.23	1.11	1.07	1.00	0.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3절 개인 불안심리의 예측요인: 사회적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세대 내, 세대 간 개인의 불안심리 수준이 어떠한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인의 불안이 심화되는 요인에 있어 특정 연령집단에서 공유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은 큰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세대 내, 세대 간 인식 및 태도의 다름으로 인해 겪는 갈등도 크고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인 특성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 경험과 차별, 박탈 경험, 그리고 차별 및 불평등 인식, 사회적 불안 인식 등 사회적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 불안만을 종속변수로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우선 살펴본 후 제2절에서 분류한 개인 불안, 자존감, 회복탄력성을 활용해 유형화한 개인 심리·불안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 불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개인 심리·불안에

대한 이해로 심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5-18〉을 통해 연령 집단별로 개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사회적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면, 청중년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고, 차별 인식이 부정적이며, 사회적 사건 및 박탈,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후기중년은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사건 및 박탈,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불평등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노년은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평등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개인 경험을 모형에 고려할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의 계수 크기가 줄어든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건 경험을 통해 불안이 어느 정도 매개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5-19〉를 통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적응/도태 불안 영역, 안전 불안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격차/경쟁 불안이 높을수록 개인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불신과 관련해서는 청중년과 노년의 경우 정부 불신 불안이 높을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후기중년은 정부 불신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가지나 경험과 관련한 변수를 모형에 고려할 경우 유의미한 효과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개인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청중년은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관계망이 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임시일용 및 자영업자일수록(즉 상용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일수록) 개인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중년은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망이 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일용 및 실업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일수록,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개인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중년에서 상용직 종사자의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생애주기 특성상 일자리 상실에 대한 염려,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사회관계망이 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임시일용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일수록 개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8〉 개인 불안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차별·박탈 인식, 그리고 경험(서열로짓분석)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차별·박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차별·박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차별·박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차별 인식 (높을수록 부정)	0.13* (0.069)		0.04 (0.068)		0.21** (0.095)	
불평등 인식 (높을수록 부정)	-0.06 (0.065)		-0.15** (0.071)		-0.43*** (0.108)	
개인 경험	사회적 사건	0.21*** (0.027)		0.25*** (0.025)		0.09 (0.072)
	코로나	0.27*** (0.028)		0.10*** (0.031)		-0.13** (0.055)
	박탈	0.09*** (0.019)		0.08*** (0.016)		0.06 (0.046)
	차별	0.08*** (0.015)		0.10*** (0.016)		0.26*** (0.037)
사회적 불안 인식	1.42*** (0.078)	1.12*** (0.069)	1.34*** (0.083)	0.91*** (0.066)	0.76*** (0.133)	0.40*** (0.123)
(ref. 남성) 여성	0.30*** (0.068)	0.18*** (0.066)	0.24*** (0.063)	0.19*** (0.063)	0.17 (0.124)	0.13 (0.125)
만 나이	-0.02*** (0.006)	-0.04*** (0.006)	-0.04*** (0.005)	-0.03*** (0.005)	-0.04* (0.021)	-0.03* (0.021)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0.49** (0.221)	-0.38* (0.222)	-0.43*** (0.131)	-0.38*** (0.131)
대학교 졸업 이상	-0.00 (0.079)	0.03 (0.079)	-0.64*** (0.220)	-0.54** (0.220)	-0.71*** (0.224)	-0.73*** (0.221)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차별·비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차별·비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차별·비탈·사회 불안 인식	경험+사회 불안 인식
배우자 없음 (ref. 있음)	-0.02 (0.082)	0.13 (0.083)	-0.07 (0.075)	-0.07 (0.075)	-0.17 (0.163)	-0.09 (0.163)
(ref. 동) 면/읍	-0.05 (0.106)	-0.03 (0.106)	-0.09 (0.077)	-0.11 (0.077)	-0.55*** (0.160)	-0.58*** (0.163)
사회관계	-0.09*** (0.013)	-0.09*** (0.013)	-0.26*** (0.033)	-0.25*** (0.033)	-0.38*** (0.060)	-0.23*** (0.062)
건강상태	-0.76*** (0.041)	-0.67*** (0.041)	-0.80*** (0.041)	-0.73*** (0.041)	-0.51*** (0.084)	-0.48*** (0.084)
가구소득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ref. 자가) 자가 아님	0.09 (0.064)	0.04 (0.065)	0.09 (0.067)	-0.02 (0.068)	-0.33** (0.163)	-0.35** (0.166)
(ref. 상용) 임시일용	0.19** (0.097)	0.00 (0.098)	-0.18* (0.097)	-0.23** (0.097)	-0.93*** (0.251)	-0.76*** (0.250)
자영고용	0.24** (0.117)	-0.02 (0.119)	0.01 (0.084)	-0.05 (0.085)	-0.59*** (0.212)	-0.34 (0.210)
실업	0.08 (0.136)	-0.07 (0.139)	-0.24* (0.132)	-0.29** (0.132)	-	-
비경활	-0.24*** (0.092)	-0.22** (0.093)	-0.30*** (0.089)	-0.19** (0.090)	-0.61*** (0.218)	-0.26 (0.218)
(ref. 준비) 노후준비X			0.21*** (0.064)	0.11* (0.065)		
obs	3,113	3,113	3,575	3,575	1,000	1,00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5-19> 개인 불안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별(서열로짓분석)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차별 인식 (높을수록 부정)	0.11 (0.069)		0.11 (0.068)		0.15 (0.097)	
불평등 인식 (높을수록 부정)	0.06 (0.069)		0.10 (0.073)		-0.28** (0.109)	
개인 경험	사건	0.19*** (0.028)		0.23*** (0.025)		0.07 (0.073)
	코로나	0.27*** (0.028)		0.09*** (0.031)		-0.04 (0.057)
	박탈	0.10*** (0.019)		0.08*** (0.016)		0.04 (0.047)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차별		0.06*** (0.015)		0.08*** (0.016)		0.23*** (0.037)
격차/경쟁	-0.36*** (0.088)	-0.45*** (0.086)	-0.31*** (0.090)	-0.33*** (0.087)	-1.03*** (0.143)	-1.09*** (0.142)
불공정/불확실	0.01 (0.080)	0.04 (0.077)	-0.07 (0.076)	-0.08 (0.073)	0.22 (0.144)	0.20 (0.143)
안전	0.34*** (0.065)	0.28*** (0.065)	0.45*** (0.061)	0.39*** (0.061)	0.48*** (0.116)	0.43*** (0.116)
정부 불신	0.07* (0.042)	0.09** (0.041)	-0.13** (0.052)	-0.07 (0.052)	0.25** (0.105)	0.24** (0.106)
적응/도태	1.28*** (0.064)	1.17*** (0.064)	1.29*** (0.064)	1.16*** (0.065)	0.68*** (0.121)	0.53*** (0.123)
obs	3,113	3,113	3,113	3,113	3,575	3,575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균등화 가구소득, 자가 여부, 건강, 사회관계망, 경제활동 상태, (후기중년의 경우) 노후준비 여부 통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제2절에서 분류한 개인 불안, 자존감, 회복탄력성을 활용해 유형화한 개인 심리·불안 중 '중불안, 심리중도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20〉과 〈표 5-21〉을 통해 청중년의 개인 불안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사회적 불안 인식, 그리고 경험과 관련해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부정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차별에 대한 경험이 높을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불안심리안정형 집단의 경우 차별 및 불평등 인식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실제 경험과 관련해 경험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을수록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중년의 개인 불안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사회적 불안 인

식, 그리고 경험과 관련해 살펴보면, 불평등에 대한 부정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기중년의 경우 사회적 사건에 대한 경험과 박탈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년의 경우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안 인식과 차별에 대한 인식은 높고, 차별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탈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은 낮은 사람일수록 저불안심리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경험과 관련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 관련 유의한 효과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 자체가 개인 불안과의 관계를 가지기보다 사건 경험을 통하여 불안이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적응/도태 불안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응/도태 불안 인식이 낮을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과 관련한 불안은 개인의 불안, 즉 사회 불안을 개인 불안으로 내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후기중년과 노년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경쟁 불안은 오히려 불안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 인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별 개인 불안심리 유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청중년의 경우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망 크기, 즉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사회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저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후기중년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저학력일수록, 도심에 거주할수록, 사회관계망 크기가 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면/읍에 거주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실업상태가 아닌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수록,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살펴보면, 학력이 낮고, 배우자가 있으며, 사회관계망 크기가 적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상용직으로 계속 일을 할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배우자가 있으며, 면/읍에 거주하며, 건강이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불안심리와 개인 특성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개인의 불안 및 심리 상태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0>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과 차별·박탈 인식(다항로지분석)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A)+사회 불안 인식		(A)+사회 불안 인식		(A)+사회 불안 인식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긍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긍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긍정
차별 인식 (높을수록 부정)	0.28** (0.143)	0.12 (0.100)	-0.02 (0.097)	0.09 (0.154)	0.52*** (0.133)	0.12 (0.165)
불평등 인식 (높을수록 부정)	-0.05 (0.136)	0.07 (0.094)	-0.26** (0.102)	0.30* (0.159)	-0.66*** (0.146)	-0.14 (0.186)
사회적 불안 인식	0.98*** (0.159)	-0.82*** (0.109)	0.96*** (0.118)	-0.53*** (0.175)	0.58*** (0.173)	-0.46** (0.225)
(ref.남성)여성	0.51*** (0.135)	-0.34*** (0.101)	-0.11 (0.090)	0.15 (0.144)	0.08 (0.166)	0.17 (0.224)
만 나이	-0.02** (0.012)	0.01 (0.009)	-0.06*** (0.008)	0.03** (0.012)	-0.03 (0.028)	0.00 (0.038)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0.21 (0.292)	0.30 (0.752)	-0.49*** (0.173)	0.29 (0.255)
대학교 졸업 이상	-0.33** (0.144)	0.25** (0.123)	-0.52* (0.291)	0.44 (0.746)	-0.85*** (0.317)	0.57 (0.368)
배우자 없음 (ref.있음)	0.24 (0.167)	-0.17 (0.121)	-0.04 (0.102)	-0.06 (0.185)	-0.60*** (0.221)	-0.59* (0.357)
(ref.동)면/읍	0.17 (0.205)	-0.14 (0.160)	-0.28** (0.115)	0.28* (0.161)	0.01 (0.220)	0.86*** (0.286)
사회관계	-0.39*** (0.043)	0.14*** (0.019)	-0.33*** (0.044)	0.02 (0.083)	-0.39*** (0.076)	0.02 (0.122)
건강상태	-0.75*** (0.086)	0.82*** (0.061)	-0.70*** (0.059)	0.62*** (0.096)	-0.23** (0.111)	0.78*** (0.154)
가구소득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1)
(ref.자가) 자가 아님	-0.05 (0.127)	-0.04 (0.095)	0.07 (0.094)	0.11 (0.155)	-0.05 (0.216)	0.26 (0.315)
(ref.상용) 임시일용	-0.02 (0.181)	-0.12 (0.148)	0.04 (0.137)	-0.30 (0.239)	-1.30*** (0.347)	-0.34 (0.491)
자영고용	-0.22 (0.249)	-0.06 (0.173)	0.06 (0.122)	-0.01 (0.182)	-0.75*** (0.282)	-0.20 (0.390)
실업	0.35 (0.229)	-0.07 (0.223)	0.12 (0.182)	-0.76* (0.409)		
비경활	-0.24 (0.182)	0.03 (0.138)	-0.12 (0.131)	-0.04 (0.200)	-0.70** (0.291)	-0.05 (0.407)
ref.준비) 노후준비X			0.27*** (0.090)	-0.29* (0.159)		
Constant	-2.81*** (0.851)	-2.33*** (0.600)	2.86*** (0.719)	-5.89*** (1.258)	2.74 (2.131)	-3.19 (2.828)
obs	3,113	3,113	3,575	3,575	1,000	1,00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5-21)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적 경험(다항로지분식)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경험+사회 불안		경험+사회 불안		경험+사회 불안	
		고불안, 심리 부정	저불안, 심리 긍정	고불안, 심리 긍정	저불안, 심리 긍정	고불안, 심리 긍정	저불안, 심리 긍정
개인 경험	사회적 사건	0.08 (0.053)	-0.10** (0.041)	0.22*** (0.037)	-0.01 (0.055)	0.14 (0.098)	-0.03 (0.130)
	코로나	0.04 (0.053)	-0.09** (0.042)	-0.01 (0.044)	-0.02 (0.074)	-0.22*** (0.077)	0.13 (0.109)
	박탈	0.03 (0.035)	-0.07** (0.030)	0.07*** (0.021)	0.05 (0.040)	-0.01 (0.065)	-0.42** (0.167)
	차별	0.06* (0.031)	-0.04* (0.022)	0.06*** (0.021)	-0.03 (0.037)	0.36*** (0.053)	-0.33*** (0.110)
사회적 불안 인식		0.94*** (0.142)	-0.56*** (0.098)	0.49*** (0.096)	-0.22 (0.138)	0.21 (0.167)	-0.34 (0.214)
(ref. 남성) 여성		0.52*** (0.133)	-0.24** (0.099)	-0.15 (0.091)	0.17 (0.144)	0.06 (0.172)	0.23 (0.233)
만 나이		-0.03*** (0.012)	0.02** (0.009)	-0.05*** (0.008)	0.03** (0.012)	-0.03 (0.029)	0.01 (0.038)
고등학교 졸업 이하				-0.10 (0.297)	0.29 (0.752)	-0.44** (0.177)	0.23 (0.262)
대학교 졸업 이상		-0.31** (0.145)	0.22* (0.124)	-0.41 (0.296)	0.45 (0.746)	-1.04*** (0.342)	0.55 (0.375)
배우자 없음 (ref. 있음)		0.31* (0.170)	-0.25** (0.124)	-0.02 (0.104)	-0.04 (0.185)	-0.61*** (0.228)	-0.55 (0.364)
(ref. 동) 면/읍		0.20 (0.206)	-0.12 (0.161)	-0.29** (0.116)	0.27* (0.161)	0.02 (0.227)	0.75*** (0.289)
사회관계		-0.40*** (0.043)	0.14*** (0.019)	-0.32*** (0.045)	0.02 (0.083)	-0.28*** (0.081)	-0.04 (0.124)
건강상태		-0.70*** (0.087)	0.80*** (0.061)	-0.66*** (0.060)	0.64*** (0.097)	-0.27** (0.116)	0.76*** (0.160)
가구소득		-0.00 (0.001)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1)	0.00 (0.001)
(ref. 자가) 자가 아님		-0.09 (0.129)	-0.00 (0.096)	-0.02 (0.097)	0.11 (0.156)	-0.00 (0.232)	0.37 (0.336)
(ref. 상용) 임시일용		-0.06 (0.185)	-0.04 (0.151)	0.02 (0.140)	-0.31 (0.240)	-1.28*** (0.370)	-0.26 (0.506)
자영고용		-0.28 (0.253)	0.03 (0.176)	0.03 (0.126)	-0.03 (0.184)	-0.58* (0.301)	-0.21 (0.400)
실업		0.32 (0.230)	0.00 (0.225)	0.11 (0.184)	-0.76* (0.409)		
비경활		-0.21 (0.185)	-0.01 (0.141)	-0.01 (0.135)	-0.03 (0.202)	-0.43 (0.313)	-0.20 (0.416)
ref. 준비) 노후준비X				0.19** (0.092)	-0.30* (0.160)		
Constant		-2.16*** (0.813)	-2.12*** (0.585)	2.34*** (0.715)	-5.38*** (1.242)		
obs		3,113	3,113	3,575	3,575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균등화 가구소득, 자가 여부, 건강, 사회관계망, 경제활동 상태, (후기중년의 경우) 노후준비 여부 통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불안 영역 중 적응/도태 불안과 개인 정서불안과의 높은 '양'의 관계, 격차/경쟁 불안과의 '부'의 관계, 불평등 인식과 개인심리불안의 부의 관계²⁰⁾, 그리고 개인 정서불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화 경향의 결과들을 통해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구조에서의 지나친 경쟁주의라고 추측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응/도태 영역에서의 사회 불안은 결국 개인 문제로 내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주의적인 사회 구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체제 정당화 이론(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제 정당화 이론이란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존재함에도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체제가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이론이다(Jost & Banaji, 1994). 이 이론은 현 상태(Status quo)에 대한 보호와 합리화하는 경향을 가정한다. 사회체제에 유리한 사람들(자본주의 체제 내의 고소득, 고학력)은 체제 정당화의 결과로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면, 체제에 불리한 사람들(자본주의 체제 내의 저소득, 저학력)은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지각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Jost, Pelham, Sheldon, & Ni Sullivan, 2003).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

20) 격차/경쟁 불안과 개인 불안의 부의 관계, 불평등 인식과 개인 불안의 부의 관계에 관한 현상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격차/경쟁 불안의 문항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불평등 인식 문항은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다.

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즉 고소득보다 저소득층에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나(Van der Toorn et al., 2015), 이러한 정당화 현상이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Jost et al., 2003).

구분	청중년						후기중년						노년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저불안, 심리부정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저불안, 심리부정		인식+사회 불안 영역		경험+사회 불안 영역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고불안, 심리부정	저불안, 심리부정
정부 불신	-0.06 (0.086)	0.01 (0.063)	-0.05 (0.086)	-0.00 (0.063)	-0.17 (0.109)	-0.03 (0.081)	-0.15 (0.108)	0.09 (0.151)	-0.29 (0.191)	0.09 (0.157)	-0.27 (0.203)	0.09 (0.157)	-0.29 (0.191)	0.09 (0.157)	-0.27 (0.203)	0.09 (0.157)	-0.27 (0.203)	0.09 (0.157)
작용/도태	1.02*** (0.146)	-1.41*** (0.097)	0.98*** (0.147)	-1.35*** (0.098)	-0.75*** (0.132)	1.32*** (0.105)	-0.75*** (0.133)	1.01*** (0.183)	-0.33 (0.211)	0.92*** (0.189)	-0.30 (0.223)	0.92*** (0.189)	-0.33 (0.211)	0.92*** (0.189)	-0.30 (0.223)	0.92*** (0.189)	-0.30 (0.223)	0.92*** (0.189)
Constant	-2.23*** (0.873)	-2.84*** (0.651)	-1.70*** (0.838)	-2.81*** (0.639)	-5.98*** (1.297)	2.61*** (0.745)	-5.73*** (1.279)	3.95* (2.250)	-4.32 (2.901)	4.16* (2.318)	-4.27 (2.985)	4.16* (2.318)	-4.32 (2.901)	4.16* (2.318)	-4.27 (2.985)	4.16* (2.318)	-4.27 (2.985)	4.16* (2.318)
obs	3.113	3.113	3.113	3.113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상태, 거주지역, 건강, 사회관계망, 경제활동 상태, (후기중년의 경우) 노후준비 여부 통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연령대별로 개인의 불안심리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고, 개인 불안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특성 요인과 사회적 차원의 요인(1. 사회적 인식: 차별 인식 및 불평등 인식, 사회적 불안 인식, 2.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과 차별 경험, 박탈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대 내, 세대 간 개인 심리·불안 수준이 어떠한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인 불안이 심화되는 요인에 있어 특정 연령집단에 공유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불안 인식의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요 발견 사항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중년의 경우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낮은 자존감과 회복력)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이 중 자존감은 4점 척도에서 2점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모든 연령대를 통합하여 잠재계층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개인 불안이 높으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집단인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청중년 약 55.3%, 후기중년 약 34.2%, 노년 10.5%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중년이 상대적으로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참여, 그리고 실패를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과 내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상담 및 교육을 개발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존감과 회복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관련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사회적 불안 인식과 차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인 불안심리의 부정적 수준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한 청중년은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대한 차별 인식 또한 다른 연령대의 동일 유형에 속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노년층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개인 불안심리의 부정적 수준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 불안 인식 및 차별과 관련한 인식은 개인 불안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상을 반영하는 수치화된 수준의 지표뿐 아니라 원인으로서의 ‘인식’ 역시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회지표 중 하나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불안은 사회적 불안 영역 중 적응/도태 불안과 관련이 가장 높으며 양의 관계를 가진 반면, 격차/경쟁 불안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 또한 개인 불안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응/도태 영역에서의 사회 불안은 결국 개인 문제로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주의적인 사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인 불안심리 유형과 개인 차원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정서불안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구조에서의 지나친 경쟁주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불

안과 사회 불안을 낮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경쟁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개선과 공정성 및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정책 및 주요 사회 주체들의 대응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적응/도태 불안을 낮출 수 있는 평생교육 등의 교육기회 제공, 노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불평등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경험'이 개인 불안심리에 주는 영향이 높으며, 사회 불안 또한 사건 경험을 통해 불안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중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 중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한 청중년은 장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차별 경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중년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경험'(사회적 사건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박탈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이 개인 불안심리의 부정적 수준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차별'에 대한 경험이 개인 불안심리의 부정적 수준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차별'과 관련한 경험은 개인 불안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들 중 후기중년은 '경험'이 개인 불안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안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 및 위험 발생 시 정부 대처가 중요하며 이는 곧 정부 신뢰와 연결된다.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제6장

소득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공적 지원의 영향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제2절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제3절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격차

제4절 소결



제 6 장

소득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공적 지원의 영향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가. 사회적 불안 완화와 지지체계

이 장에서는 사회계층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격차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불안의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격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Social insecurity perception)은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불안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개인이 위치하고 경험하는 사회적 위협과 이로 인한 사회에 관한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 한편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위협의 영향에 완충적인 작용을 하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개인의 삶은 거시적 환경과 중시적 차원의 사적, 공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 지지체계는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개인적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적 자원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공식, 비공식 복지를 포괄한다.

개인이 사회적 위협을 해소(hedge)하는 1차적 자원은 사적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친구 등 사회관계망이며, 공적 지지체계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지지체계는 개인의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개인, 가족, 시민사

회, 국가를 포괄하며,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해준다.²¹⁾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계층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파악하고 더불어 공적, 사적 지지를 포함한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나.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격차

1) 지지체계의 정의

지지체계는 사회적 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클라이언트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개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김미령, 2005, p. 100). 광의의 사회적 지지는 쌍방향적 관계로서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구조의 내용이나 자원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으며(Lieberman, 1982; 김미령, 2005, p. 103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 척도 혹은 사회적 고립척도(OECD, 2005)는 이러한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다.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로 결혼, 우정, 가족

21) 사회적 위협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 전략은 복지국가 유형 혹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 따라 다르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개인과 시장을 우선으로 하며, 시민주의 복지체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협의 1차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두고, 국가는 그 이후 개입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 무제,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근로의무 부과, 반복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비극에서도 개인과 가족에 우선을 둔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여준다.

의 결속과 실존적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인식하는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포괄한다(김미령, 2005, pp. 102-103).

지지체계는 공적, 사적 지지로 구분되며 사적 지지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로,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관계의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개인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위험 대처 기제를 결정하는 인간 삶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관측되고 있으며(김수영, 박준혁, 권하니, 2022),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차원적 영역의 자원과 기회의 관점에서 사회관계망이라는 비경제적 차원의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한편, 공적 지지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 중 하나로 공공기관, 국가의 복지제도를 의미하며, 공적 지지를 통해 구조적 사회적 지지인 실존적 사회관계망 수준(사회에 관한 연대감, 소속감 등)이 결정된다.

2) 사회적 위험, 지지체계의 계층화와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의 계층적 격차,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결과에 대처하는 완충자인 지지체계 자원 격차는 이중화된 격차구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 변화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표준적이고, 보편적 형태가 아니라 탈표준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생애과정 변화에 의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의 증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의 이행기 연장과 이 시기에 직면하는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중장년에서 노년으로의 전환기에 노후 소득보장체계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 등에서 확인된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2020년, 2022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계층화된 사회적 위

험과 사회적 불안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2020년 연구에서는 청년과 초기 중년기의 사회적 불안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박탈 경험 횟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연구에서는 20세 이전에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와 가족 돌봄의 이중 부담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지국가의 이중화(dualization)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반영하는 공적 지지체계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 계층화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자격이 안정적 노동을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고립과 은둔·고립 청년 문제에서 드러나는 사회관계망 부재가 초래하는 결과는 공적 지지만으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사적 지지와 관련한 사회관계망, 사회적 자본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비경제적 영역의 자원 역시 저소득층 혹은 사회배제 집단에서 더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있다(변금선, 이혜림, 2022; 변금선, 이혜림, 2023; 김승연 외, 2022; 이혜림, 변금선, 2023; 정세정 외, 2021).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역량, 심리적 안녕(주관적 웰빙)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는 사회관계망 혹은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강은나, 김혜진, 정병오, 2015; 노혜진, 2018; 박영란, 박경순, 2013; 서정아, 2018; 엄태완, 2008; 이명숙, 2015; 정순돌, 성민현, 2012;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공적 지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관점에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빈곤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금현섭, 백승주 2014; 원경혜, 이상혁, 2015), 소득불평등 인식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김진현,

2021; 남재현, 이래혁, 2020; 이원진, 2010). 이들 연구는 복지제도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총체적 관점에서 지지체계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반영하는 공적 지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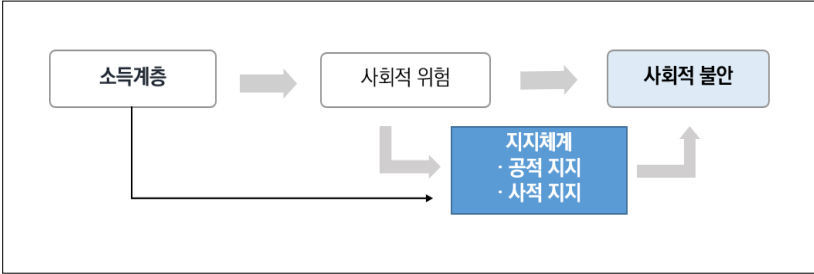
2. 분석 방법

가. 분석 개요

이 장의 연구 질문은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적 위험(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 대상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공적 지지가 사회적 불안 완화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층별 불안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이 장의 분석에서 상정한 소득계층, 사회적 위험(박탈), 사회적 지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1] 소득계층, 지지체계, 사회적 불안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지지체계 유형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 유무로 구분하였다. <표 6-1>은 지지체계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6-1> 지지체계의 유형화

구분		공적 지지	
		사회복지 지원 경험 없음	사회복지 지원 경험 있음
사적 지지	도움 줄 사람 없음	[유형1] 지지체계 미흡	[유형2] 공적 지지
	도움 줄 사람 있음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지지체계 확보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공적 지지는 사회보장제도 수급 경험을 의미하며, 사적 지지는 기능적 관점에서 사회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 공적 지지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공적 복지 수급 경험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적 지지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은 지지체계를 유형화한 것이다.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과 우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적 복지제도 수급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고려할 때,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가 모두 부재한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인

식 수준은 다른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적 지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6-2>는 박탈 경험으로 측정된 사회적 위험과 지지 욕구를 고려한 조건부 유형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6-2> 박탈 경험에 따른 조건부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화

구분		사회적 위험(복지 욕구)			
		박탈 경험 있음		박탈 경험 없음	
		공적 지지			
		지원 안 받음	받음	지원받음	안 받음
사적 지지	도움 줄 사람 없음	[유형1] 공적, 사적 지지 미흡	[유형2] 공적 지지	공적 지지 있음	사적 지지 없음
	도움 줄 사람 있음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공적, 사적 지지 확보	공적 지지 있음	사적 지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교육, 돌봄, 건강, 주거영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으로 측정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 격차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계층-사회적 위험(박탈 경험)-지지체계-사회 불안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지지체계의 이중적 격차를 확인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양극화 양상, 지지체계에 따른 불안 강화 혹은 완화 기제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를 고려하여, 세 가지 가설을 상정하였다. 첫째,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박탈 경험 확률이 높으며,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 불안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소득 하층과 소득 상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는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 - 박탈 경험 -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는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과 모두 충족된 유형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나. 분석틀과 변수의 처리

〈표 6-3〉은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분석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을 세 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과 소득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감소 혹은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장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불안 인식,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5점 척도(1. 전혀 불안하지 않다~5. 매우 불안하다)로 측정하고, 여기서 4점과 5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해 분석하였다(이하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 둘째, 소득계층은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5점 척도(1. 최상, 2. 상, 3. 중, 4. 하, 5. 최하)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박탈 경험은 응답 대상 연령에 따라 포괄하는 시기가 다소 다르지만, 현재 시점의 박탈 수준을 포괄해 조사하였으므로 공통지표로 간주해 분석하였다. 셋째, 박탈 경험은 건강, 돌봄, 주거, 교육 4가지 영역의 박탈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박탈은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돌봄 박탈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돌봄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본 적이 있다'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거 박탈은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주거비 때문에 낸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있다'로, 교육 박탈은 '돈이 없어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학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지체계는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를 포함해 측정하였다. 사적 지지는, 2020년도 조사는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있는 경우', 2021년과 2022년 조사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금전 지원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은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공적 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학비지원, 주거지원, 취업 지원, 보육료 지원, 청년 관련 수당,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기타 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아동, 노인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공적 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며, 연령과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구의 복지 욕구에 따라 공적 지지를 구성하는 정책이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²²⁾

22) 19~34세 청년과 35~44세 초기중년은 공적 지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학비 지원, 주거지원, 취업 지원, 보육료 등 영유아 양육지원, 청년 관련 수당, 일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기타 상담이 포함되며, 45~64세 초기와 후기중년은 청년 관련 수당과 일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상담이 제외되고, 의료지원이 포함된다. 65세 노년층은 기초연금, 공적연금, 재정지원일자리, 장기요양 등 돌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포함된다.

〈표 6-3〉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분석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일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대상의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여부, 경제활동 상태, 소득계층(5점 척도 상, 중,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소득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 차이: 전체,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 공적, 사적 지지체계 실태와 유형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 선형확률모형 종속변수(영역별 박탈 경험) 독립변수(소득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특성 -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의 차이 - 소득계층-박탈 경험에 따른 공적, 사적 지지 현황 - 소득계층-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 선형확률모형, 다항로짓모형 종속변수(지지체계 유형) 독립변수(소득계층, 박탈 경험)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충효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 선형확률모형 종속변수(사회적 불안) 독립변수(소득계층, 지지체계 유형)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1. 분석 대상 일반 특성

〈표 6-4〉와 〈그림 6-2〉는 분석 대상의 주요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적 불안 점수는 노년층이 가장 낮았고, 청년과 중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청년(84.7%), 초기중년(84.3%), 후기중년(78.4%), 노년(59.3%)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거나, 낙담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응답자가 사적 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적 지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80.8%)과 초기중년(80.6%)보다 후기중년(84.2%)과 노년층(86.4%)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였는데, 이는 사적 지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공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후기중년층이 20.2%로 가장 낮았고, 노년층은 70.0%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과 초기중년층은 각각 40.1%, 37.2%였다. 공적 지지의 연령대별 차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당, 학비 지원, 취업 지원 등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대상 기초연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박탈 경험률은 교육 박탈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 박탈(26.2%), 건강 박탈(24.3%), 주거 박탈(23.1%)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교육 박탈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다른 세 가지 영역의 박탈률은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본인 소득계층 인식을 확인한 결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년, 후기중년, 청년, 초기중년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의 소득계층 인식이 초기중년보다 높은 것은 청년의 이행과 독립 지연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청년 (19~34)	초기중년 (35~49)	후기중년 (50~64)	노년 (65~)
사례 수(명, %)		7,692(100.0)	26.8	29.3	31.5	12.4
사회적 불안	평균(점)	4.0	4.1	4.1	4.0	3.5
	불안함 비율	79.5	84.7	84.3	78.4	59.3
지지체계 있음	사적 지지	82.5	80.8	80.6	84.2	86.4
	공적 지지	36.7	40.1	37.2	20.2	70.0
박탈 경험 있음	돌봄 박탈	26.2	17.0	37.8	29.4	10.6
	주거 박탈	23.1	27.8	25.9	22.8	16.7
	건강 박탈	24.3	22.2	27.2	21.8	18.5
	교육 박탈	36.2	40.1	37.4	31.6	-
본인 소득 계층	상	9.3	8.1	6.7	11.2	13.3
	중	38.3	40.5	39.4	37.2	33.7
	하	52.4	51.5	54.0	51.6	53.0
여성		49.2	47.2	48.8	50.1	52.4
평균연령(세, sd)		46.0	26.8	42.3	56.7	68.8
수도권 거주		20.2	22.6	19.8	18.9	19.1
배우자 있음		60.1	16.5	71.9	76.4	85.0
가구주		51.0	29.5	55.3	63.1	56.5
1인 가구 비율		14.1	15.6	11.2	16.1	12.4
건강상태 좋음		35.8	39.0	34.2	31.0	44.9
자가 거주		65.2	52.8	62.7	70.6	84.1
가구 균등화 소득(평균, 만 원)		297.0	273.3	283.7	328.8	298.7
본인 교육	중학교 졸업 이하	5.9	0.7	0.6	2.3	38.6
	고등학교 졸업	30.5	38.7	17.6	27.7	50.5
	대학교 졸업 이상	63.6	60.6	81.8	70.0	10.9
현재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2.9	40.5	59.3	42.9	8.9
	임시, 일용직	14.1	20.3	10.6	13.2	11.0
	고용주, 자영업	15.9	5.3	12.6	18.3	40.5
	실업자	5.3	8.3	3.8	6.4	-
	비경제활동	21.8	25.6	13.7	19.2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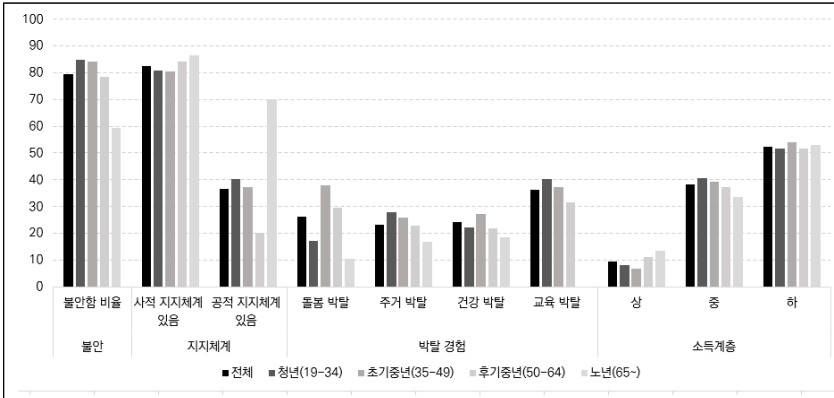
주: 1) 노년층은 구직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미취업자인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함.

2) 교육 박탈은 청년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2] 연령 집단별 주요 변수의 특성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

〈표 6-5〉는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소득계층 인식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박탈 경험률이 높았다.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주거였다.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주거 박탈 경험률은 32.2%로 상층(12.2%)의 2.6배였다. 교육은 2.4배, 돌봄과 건강은 1.2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박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에도 영역별 박탈을 경험하였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박탈로 측정한 사회적 위험이 계층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산하는 위험의 보편화도 일부 관측된 것으로 보인다.

〈표 6-5〉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단위: %)

구분	박탈 경험				
	돌봄	주거	건강	교육	
전체	26.2	23.1	24.3	36.2	
소득 계층	상	23.7	12.2	13.1	18.4
	중	23.6	13.3	14.8	28.7
	하	28.5	32.2	33.2	44.7
카이 검정	***	***	***	***	

주: 1) 교육 박탈은 19~64세 청년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이어서 사회적 위험이 계층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속지위인 원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재산 수준, 20세 이전 소득계층)를 고려한 박탈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귀속지위에 관한 정보 제약으로 청년과 초기중년, 후기중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6〉과 〈그림 6-3〉은 19~44세 청년과 초기중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재산과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영역별 박탈 경험률이 높았으며, 상층과 하층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주거(3.1배), 교육(2.1배) 박탈이었다. 청년과 초기중년기는 원가구에서 독립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험한 주거 박탈은 개인의 삶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박탈의 계층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박탈의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는 ‘가족배경(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는 전통적 사회이동 경로가 박탈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6-6〉 19~44세 청년 및 초기중년의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박탈 경험률

(단위: %)

구분		박탈 경험			
		돌봄	주거	건강	교육
청년 및 초기중년 전체		25.7	25.2	27.9	41.4
소득 계층	상	19.2	13.7	16.4	20.7
	중	21.7	15.6	19.4	33.0
	하	29.7	33.9	36.0	50.6
부모 재산 수준	상	18.4	11.4	16.7	19.5
	중	21.0	15.1	20.7	28.4
	하	30.9	35.8	35.9	56.1
	카이검증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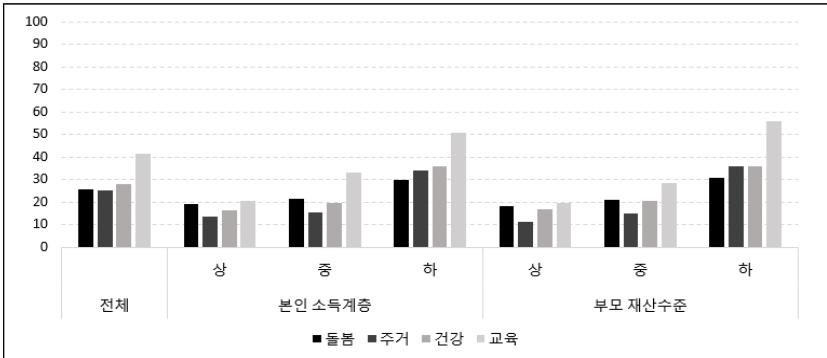
주: 1) 부모 재산 수준 정보가 있는 19~44세, 3,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3] 19~44세 청년 및 초기중년의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박탈 경험률

(단위: %)



주: 부모 재산 수준 정보가 있는 19~44세, 3,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6-7〉과 [그림 6-4]는 45~64세 후기중년을 대상으로 20세 이전 소득계층과 현재 본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돌봄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후기중년의 경우, 고령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 건강, 교육 박탈은 20세 이전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높아, 후기중년층에서도 박탈 경험이 귀속지위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7〉 45~64세 중년 현재 소득계층과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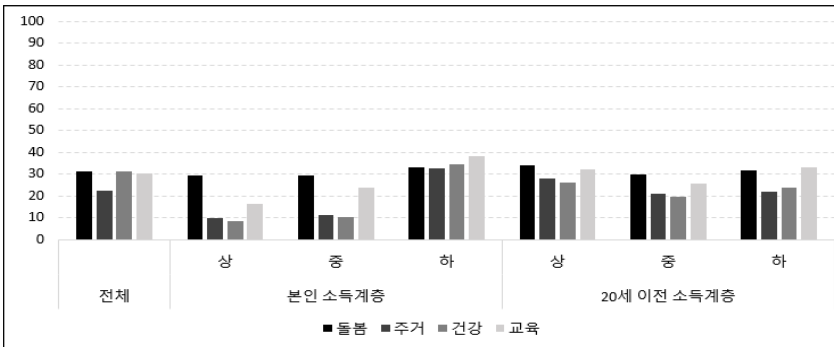
구분		박탈 경험			
		돌봄	주거	건강	교육
중년층 전체		31.4	22.2	31.4	30.4
소득 계층	상	29.4	9.8	8.6	16.6
	중	29.4	11.1	10.2	23.6
	하	33.2	32.7	34.3	38.1
20세 이전 소득 계층	상	34.2	27.8	26.3	32.3
	중	29.9	21.1	19.5	25.6
	하	31.7	21.8	23.8	33.2
	카이검증	-	*	**	***

주: 1)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인식 정보가 있는 45~64세, 3,5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4] 45~64세 중년 현재 소득계층과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률 (단위: %)



주: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인식 정보가 있는 45~64세, 3,5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의 관계를 선형확률모형으로 확인하였다. 소득계층 상층보다 하층이 건강과 교육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돌봄 박탈은 .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앞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주거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6-8〉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돌봄	주거	건강	교육
성별	여성	0.05***	0.05***	-0.02*	0.04***
	초기중년	0.21***	0.21***	-0.02#	-0.03*
	후기중년	0.12***	0.12***	-0.05***	-0.08***
	노년	-0.07***	-0.07***	-0.11***	-
소득 계층 (상)	중	-0.02	-0.02	0.01	0.09***
	하	0.03#	0.03	0.20***	0.25***
Constant		0.14***	0.14***	0.18***	0.21***
사례 수		7,692	7,692	7,692	6,692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3. 소득계층,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이어서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를 활용하여 지지체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6-9〉와 [그림 6-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이다. 전체 응답자 중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경우인 유형1은 10.9%였으며, 모두 있는 경우(유형4)는 30.1%였다. 공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2는 6.5%였으며,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은 52.4%로 지지체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6-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단위: 명, %)

구분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전체(100.0)		10.9	6.5	52.4	30.1
성	남성	12.3	6.4	52.7	28.6
	여성	9.5	6.7	52.1	31.7
연령	청년	11.3	7.9	48.6	32.2
	초기중년	11.7	7.7	51.1	29.5
	후기중년	12.1	3.7	67.8	16.4
	노년	5.6	8.0	24.4	62.0
거주지역	수도권 외	10.7	6.8	51.3	31.2
	수도권	11.8	5.7	56.6	25.8
배우자	없음	13.7	8.3	48.8	29.2
	있음	9.1	5.4	54.8	30.7
1인 가구	다인 가구	10.4	6.3	52.2	31.1
	1인 가구	14.4	7.8	53.8	24.0
건강상태	나쁨	12.9	7.9	49.3	29.9
	좋음	7.5	4.0	57.9	30.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7	16.3	16.8	61.2
	고등학교 졸업	11.4	7.0	46.3	35.4
	대학교 졸업 이상	11.2	5.4	58.6	24.8
현재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2.3	4.3	60.2	23.3
	임시, 일용직	10.4	7.0	46.6	35.9
	고용주, 자영업	10.0	5.2	53.6	31.2
	실업자	10.4	14.8	39.9	34.8
	비경제활동	9.5	9.6	42.9	3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위험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유형1은 남성이, 모두 있는 유형4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형2와 유형3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거주지역을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지체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외 지역보다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없거나, 사적 지지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공적 지지는 복지 욕구 혹은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응답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과, 공적 지지 혹은 사적 지지만 있는 유형2, 유형3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인 가구는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의 비율이 1인 가구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1인 가구의 지지체계가 다인 가구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을 확인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육수준은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와 사적 지지만 있는 유형3의 관계는 정반대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고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이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공적 지지만 있거나 둘 다 있는 유형4의 비율은 비경제활동, 실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나.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앞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박탈 경험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에 따라 지지체계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나는지 분석하였다.

〈표 6-10〉과 [그림 6-6]은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분포이다.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가 있는 경우인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적 지지인 소득 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 자격이 대부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득 하층이 공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표 6-10〉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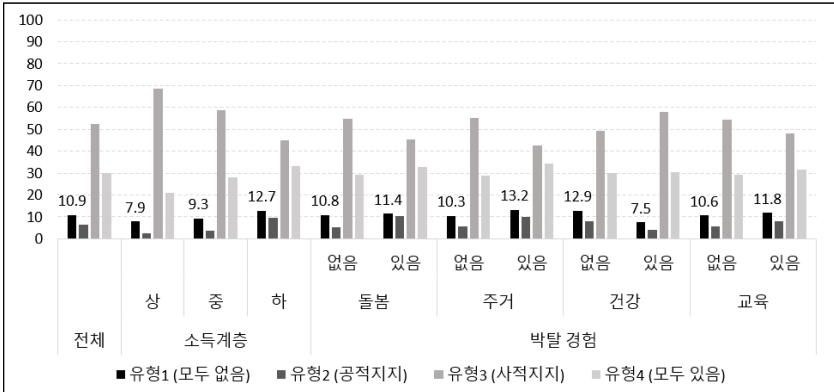
구분		지지체계 유형				카이검증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전체		10.9	6.5	52.4	30.1	-	
소득 계층	상	7.9	2.6	68.4	21.1	***	
	중	9.3	3.6	58.9	28.2		
	하	12.7	9.4	44.8	33.1		
박탈 경험	돌봄	없음	10.8	5.2	54.9	29.2	***
		있음	11.4	10.4	45.3	32.9	
	주거	없음	10.3	5.5	55.3	28.9	***
		있음	13.2	9.9	42.6	34.3	
	건강	없음	12.9	7.9	49.3	29.9	***
		있음	7.5	4.0	57.9	30.6	
	교육	없음	10.6	5.8	54.3	29.4	***
		있음	11.8	8.1	48.3	31.8	

주: 교육 박탈은 19~64세 청년, 초기, 후기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6] 소득계층,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공적 지지는 사회적 위협의 발생, 즉, 복지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을 조건부로 한 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6-11>과 [그림 6-7]은 영역별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박탈 모든 영역에서 소득 하층의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과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상층은 사적 지지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는 소득 중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1〉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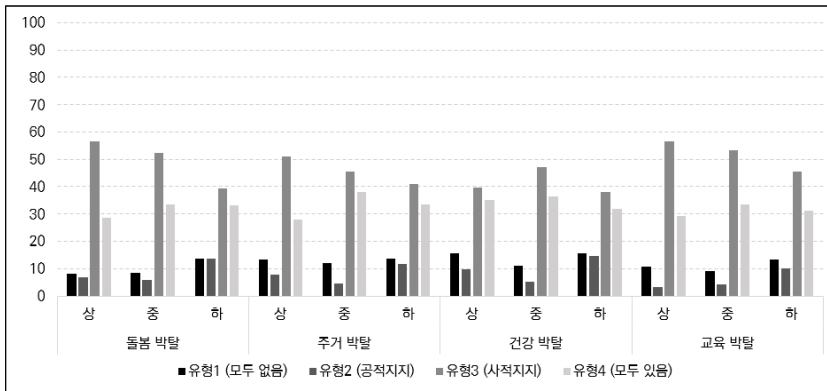
구분	지지체계 유형				카이검증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전체	10.9	6.5	52.4	30.1	-	
돌봄 박탈 (2,016명)	상	8.0	6.9	56.6	28.6	***
	중	8.3	5.9	52.4	33.4	
	하	13.8	13.6	39.4	33.2	
주거 박탈 (1,775명)	상	13.4	7.7	51.1	27.9	**
	중	11.9	4.6	45.5	38.0	
	하	13.6	11.7	41.1	33.6	
건강 박탈 (1,869명)	상	15.6	9.6	39.7	35.2	***
	중	11.2	5.2	47.1	36.5	
	하	15.6	14.5	38.1	31.8	
교육 박탈 (2,436명)	상	10.8	3.4	56.6	29.2	***
	중	9.0	4.3	53.2	33.6	
	하	13.2	10.2	45.4	31.2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7〉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마지막으로,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해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에 따라 지지체계 유형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네 개의 지지체계 유형이며, 기준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탈 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보다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의 지지체계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컸으며, 사적 지지만 있는 유형3보다는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 혹은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하층의 경우, 공적 지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지체계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한편,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과 모두 있는 유형4는 소득계층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과 돌봄 박탈은 지지체계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거 박탈은 지지체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소득계층,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관계(Multinomial logistic model)

구분		1유형(없음) (vs 4유형 모두 있음)	2유형(공적) (vs 1유형 모두 없음)	3유형(사적) (vs 1유형 모두 없음)	2유형(공적) (vs 3유형 사적 지지)
성별	여성	-0.32***	0.27*	0.25**	0.01
	초가중년	0.21	-0.23	0.06	-0.30*
연령 (청년)	후가중년	0.80***	-0.96***	0.29**	-1.24***
	노년	-1.36***	0.88***	-0.11	0.99***
소득 계층 (상)	중	-0.28	0.24	-0.31*	0.55*
	하	-0.17	0.83**	-0.78***	1.61***
박탈 경험	돌봄	-0.36***	0.71***	-0.15	0.86***
	주거	-0.07	-0.01	-0.14	0.13
	건강	0.25*	0.33*	-0.51***	0.83***
Constant		-0.69***	-1.40***	2.06***	-3.46***
사례 수		7,692	7,692	7,692	7,692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로 기준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비교유형의 계수 값만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지금까지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을 반영하는 박탈 경험은 소득 하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하층은 공적 지지만 있거나,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지지체계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연령과 성별, 박탈 경험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그리고 지지체계의 계층간 차이를 보여준다.

제3절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격차

이 절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 그리고 소득계층, 박탈,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소득계층별 사회적 불안 수준

〈표 6-13〉과 [그림 6-8]은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 하층의 불안 인식이 83.2%로 가장 높았고, 상층의 불안 인식(69.0%)이 가장 낮았다. 영역별 불안 인식도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소득 상층과 하층의 차이가 가장 큰 불안 영역은 불평등과 공정 영역이었다. 불평등 영역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 하층은 69.5%였는데, 상층은 49.6%로 소득 하층보다 약 20%p 낮았다.

〈표 6-13〉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득계층		
			상	중	하
사례 수(명, %)		7,692(100.0)	713(9.30)	2,945(38.29)	4,034(52.44)
사회적 불안	평균(점)	4.01	3.73	3.93	4.11
	불안함 비율	79.5	69.0	76.8	83.2
영역별 사회적 불안	불평등	63.7	49.6	59.1	69.5
	공정	52.7	37.8	46.6	59.8
	안전	22.3	15.5	19.5	25.4
	신뢰	45.3	38.7	44.0	47.5
	적응	19.3	11.6	14.3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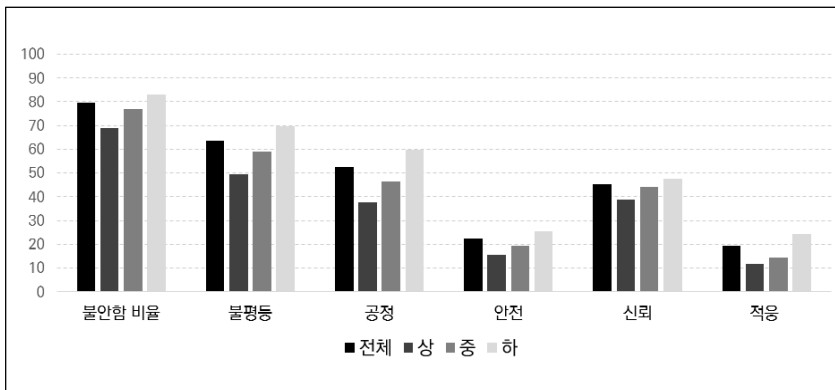
주: 1) 사회적 불안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영역별 사회적 불안은 각 영역 문항의 평균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8]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주: 1) 사회적 불안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영역별 사회적 불안은 각 영역 문항의 평균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

〈표 6-14〉와 [그림 6-9]는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9.5%였으며, 지지체계 유형 중 사적 지지 없이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가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고,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의 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영역별 불안 인식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의 불안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간의 불안 수준 격차도 컸다. 불안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은 불평등 불안으로 유형1의 69.5%가 우리 사회가 불평등 영역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사례 수(명, %)		7,692(100.0)	10.9	6.5	52.4	30.1
사회적 불안	평균(점)	4.01	4.08	4.10	4.01	3.97
	불안함 비율	79.5	79.6	82.1	79.6	78.6
영역별 사회적 불안	불평등	63.7	69.5	64.7	64.6	59.6
	공정	52.7	62.4	58.0	53.6	46.5
	안전	22.3	29.9	29.9	21.6	19.0
	신뢰	45.3	53.5	41.5	48.3	38.1
	적응	19.3	31.6	31.4	16.4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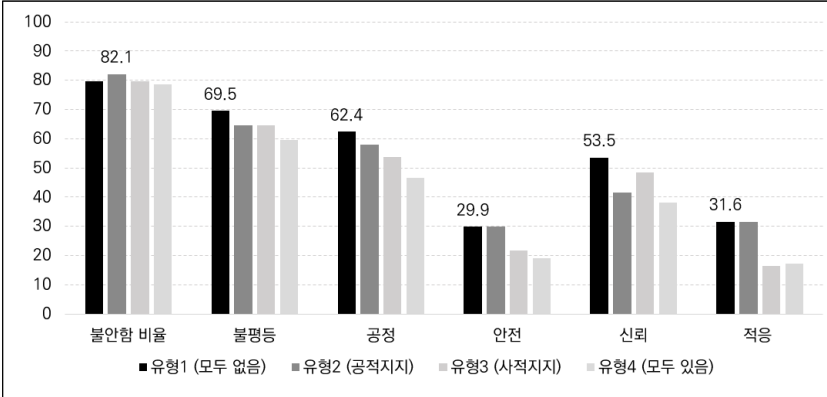
주: 1) 사회적 불안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영역별 사회적 불안은 각 영역 문항의 평균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9]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주: 1) 사회적 불안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영역별 사회적 불안은 각 영역 문항의 평균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6-15>와 [그림 6-10]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노년보다는 청년과 초기중년층,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일 때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의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았는데, 1인 가구,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는 사적, 공적 지지가 없는 유형1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한편, 후기중년층,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미미하지만,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편, 노년층은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유형4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표 6-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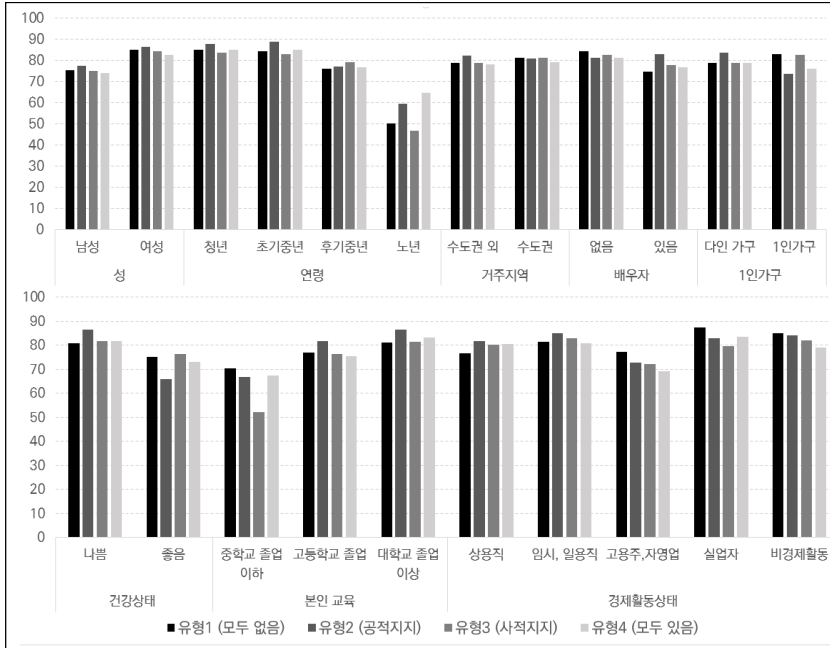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전체(100.0)		79.5	79.6	82.1	79.6	78.6
성	남성	75.1	75.4	77.7	75.1	74.2
	여성	84.0	85.2	86.4	84.3	82.6
연령	청년	84.7	85.0	87.9	83.9	85.1
	초기중년	84.3	84.3	89.0	82.9	85.3
	후기중년	78.4	76.3	77.3	79.3	76.7
	노년	59.3	50.3	59.7	46.9	64.8
거주지역	수도권 외	79.1	79.1	82.3	79.1	78.4
	수도권	80.9	81.2	80.9	81.5	79.4
배우자	없음	82.3	84.4	81.3	82.6	81.2
	있음	77.5	74.8	82.9	77.8	76.9
1인 가구	다인 가구	79.3	78.8	83.7	79.1	78.9
	1인 가구	80.4	82.9	73.9	82.6	76.0
건강상태	나쁨	82.0	81.0	86.6	81.7	81.7
	좋음	74.8	75.2	66.0	76.3	73.1
본인 교육	중학교 졸업 이하	64.9	70.5	66.7	52.3	67.3
	고등학교 졸업	76.6	77.0	81.9	76.5	75.5
	대학교 졸업 이상	82.2	81.3	86.5	81.5	83.2
현재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80.0	76.8	81.7	80.3	80.6
	임시, 일용직	82.2	81.5	85.0	83.0	80.9
	고용주, 자영업	71.7	77.2	72.7	72.1	69.2
	실업자	82.3	87.5	83.1	79.6	83.5
	비경제활동	81.5	85.0	84.3	82.2	79.2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한편, 연령별로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가 지지체계가 없는 유형1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은 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특성과 그간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된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에서 19~34세 청년의 청년 관련 수당 수급 경험률은 6.6%에 불과하였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47.7%였다. <표 6-16>은 청년

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선별적, 보편과 준 보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²³⁾ 분석 결과, 선별적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보편-준 보편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특히 노년층 중 선별적 지원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6-16〉 청년층과 노년층의 공적 지원 특성별 사회적 불안 경험자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공적 지지 특성			
		경험 없음	선별	보편 준 보편	모두 경험
전체	76.7	74.9	89.7	70.6	85.8
청년	84.7	82.7	89.1	83.9	87.4
노년	59.2	47.6	94.2	62.4	65.8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노년층 중 선별적 지원만 경험한 사례는 36명, 모두 경험한 사례는 35명이었음.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3. 소득계층, 박탈,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표 6-17〉과 [그림 6-11], [그림 6-12]는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층이면서 유형1인 경우,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3) 선별적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지원이 포함된다. 청년층의 경우는 근로장려제도와 청년수당도 선별적 정책에 포함하였다. 보편-준 보편적 정책에는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지원이 포함되며,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등 대상 기준 특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책은 제외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연금, 재정지원일 자리를 보편-준 보편 정책에 포함하였다.

86.7%였는데, 소득 상층(68.1%)보다 18.6%p 높았다. 이는 소득 하층이면서,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 상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1.3%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다. 한편, 소득 하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와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의 불안 인식 수준이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지체계의 유형이 사회적 불안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6-17〉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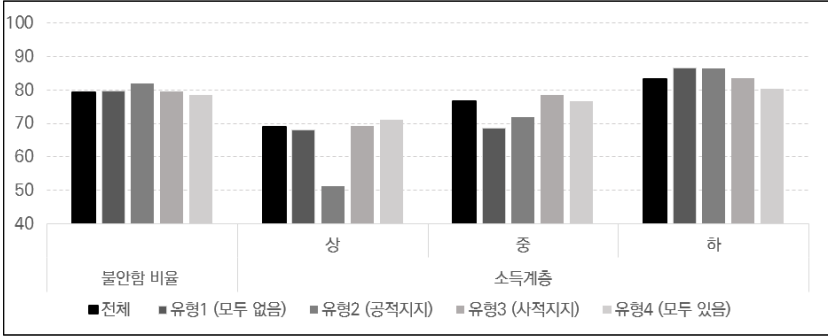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불안함 비율		79.4	79.6	82.1	79.6	78.6	
소득 계층	상	69.0	68.1	51.3	69.2	71.0	
	중	76.8	68.6	71.9	78.4	76.8	
	하	83.2	86.7	86.4	83.6	80.5	
박탈	돌봄	없음	77.6	77.8	80.0	78.1	76.2
		있음	86.6	84.4	85.0	84.9	84.5
	주거	없음	78.0	76.5	82.0	78.5	76.6
		있음	84.4	87.6	82.2	84.2	84.0
	건강	없음	77.9	77.6	80.2	78.5	76.3
		있음	84.4	83.8	84.4	84.2	84.8
	교육	없음	76.7	75.9	78.9	77.3	75.4
		있음	85.5	86.6	87.0	85.3	84.9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11]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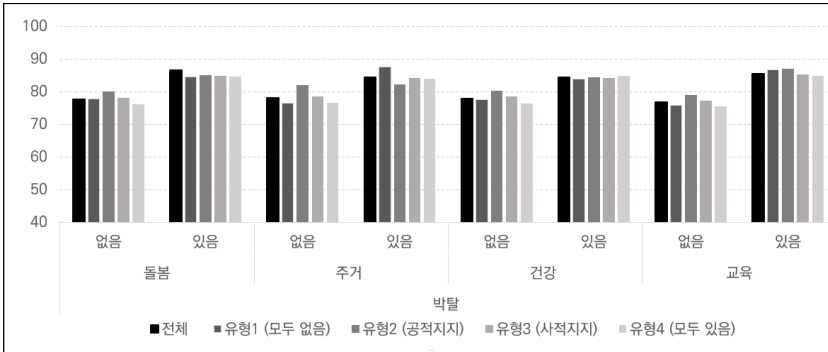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각 연도 통합자

[그림 6-12]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지체계 유형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돌봄과 건강 박탈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불안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거와 교육 박탈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불안 수준이 다소 다른 특성을 보였다. 주거 박탈이 있는 경우,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 박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편,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영역별 박탈로 확인하지 못한 복지 욕구로 인해 유형2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을 조건부로 한 계층별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을 확인하였다. <표 6-18>과 [그림 6-13]은 영역별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은 박탈 영역은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순이었다.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미흡한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 지지만 있거나(유형2),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유형3)에는 두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유형4와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6-18〉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전체		79.4	79.6	82.1	79.6	78.6
돌봄 박탈 (2,016명)	상	72.0	58.0	58.8	72.9	77.4
	중	83.3	72.2	86.0	84.6	83.6
	하	87.4	91.1	86.6	87.6	86.0
주거 박탈 (1,775명)	상	69.2	58.8	56.1	73.2	70.5
	중	81.3	77.6	79.0	82.9	80.8
	하	86.3	92.1	83.8	85.5	85.8
건강 박탈 (1,869명)	상	66.4	60.5	54.3	63.6	75.5
	중	79.8	69.3	76.9	81.6	81.1
	하	87.1	88.8	86.7	86.7	86.9
교육 박탈 (2,436명)	상	73.7	68.9	76.2	76.1	70.6
	중	82.8	76.8	78.9	85.3	81.0
	하	87.5	90.8	88.9	86.0	87.9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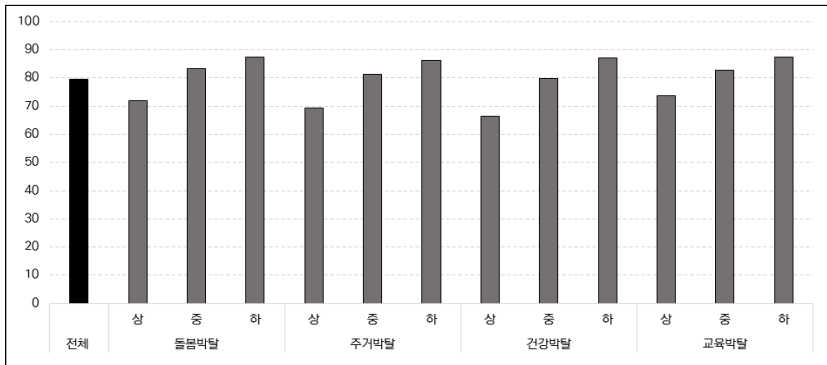
2) 교육 박탈은 19~64세 청년, 초기, 후기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3) 주거, 건강, 교육 박탈의 상층 유형2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13〉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4.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가?

가.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비교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6-19〉, [그림 6-14]).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를 기준 집단으로 하였을 때, 소득 하층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박탈 영역에서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이에 더해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6-19〉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단위: %)

구분	소득 상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돌봄	68.1	81.5	87.4	91.1	86.6	87.6	86.0
주거	69.0	81.7	86.3	92.1	83.8	85.5	85.8
건강	69.4	81.3	87.1	88.8	86.7	86.7	86.9
교육	68.2	80.4	87.5	90.8	88.9	86.0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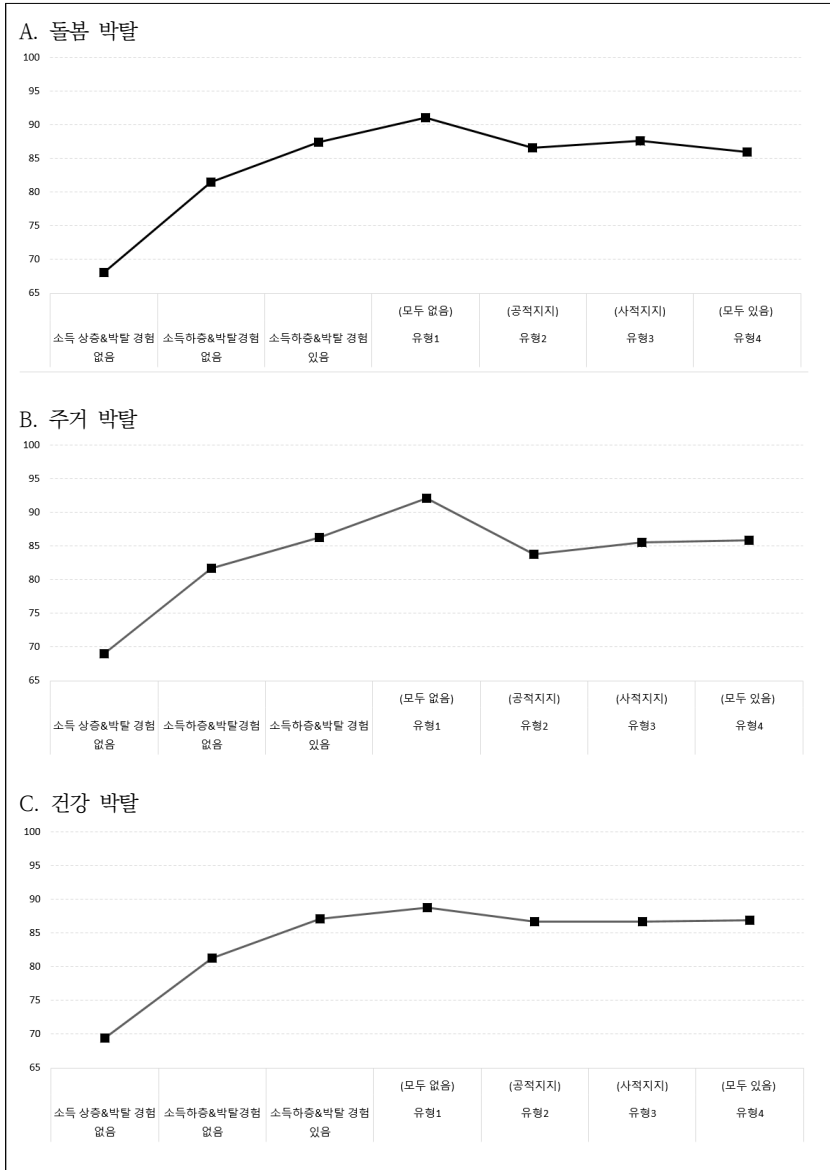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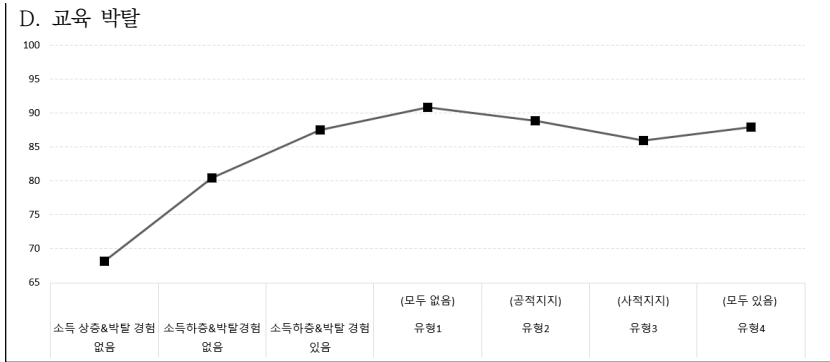
2) 교육 박탈은 19~64세 청년, 초기, 후기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6-14]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단위: %)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교육 박탈은 19~64세 청년, 초기, 후기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이러한 경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표 6-20〉, 〈표 6-21〉, [그림 6-15]). 청년층은 돌봄 박탈 중 지지체계 유형2의 사례 수가 적었고, 노년층은 소득 하층이면서 돌봄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지지체계 유형별 사례 수가 모두 30명 이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와 건강 유형1(공적, 사적 지지 없음)과 유형4(공적, 사적 지지 있음)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가 박탈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거와 건강 박탈을 경험한 소득 하층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 박탈은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도 주거와 건강 박탈에서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면서 박탈을 경험한 취약집단의 경우,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지지만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20〉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청년층
(단위: %)

구분	소득 상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돌봄	76.2	87.9	91.5	91.5	95.9	88.3	92.5
주거	77.4	87.5	88.9	93.2	89.1	90.0	93.5
건강	78.8	87.2	91.4	91.3	91.7	89.3	93.6
교육	77.4	87.1	90.3	95.2	93.9	87.9	90.0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의 유형2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표 6-21〉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노년층
(단위: %)

구분	소득 상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없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지지체계 유형			
				유형1 (모두 없음)	유형2 (공적 지지)	유형3 (사적 지지)	유형4 (모두 있음)
돌봄	54.0	63.9	66.4	68.2	68.2	51.6	67.5
주거	52.7	61.5	72.3	67.3	79.1	49.2	72.9
건강	63.9	60.7	78.3	66.8	82.3	70.9	78.5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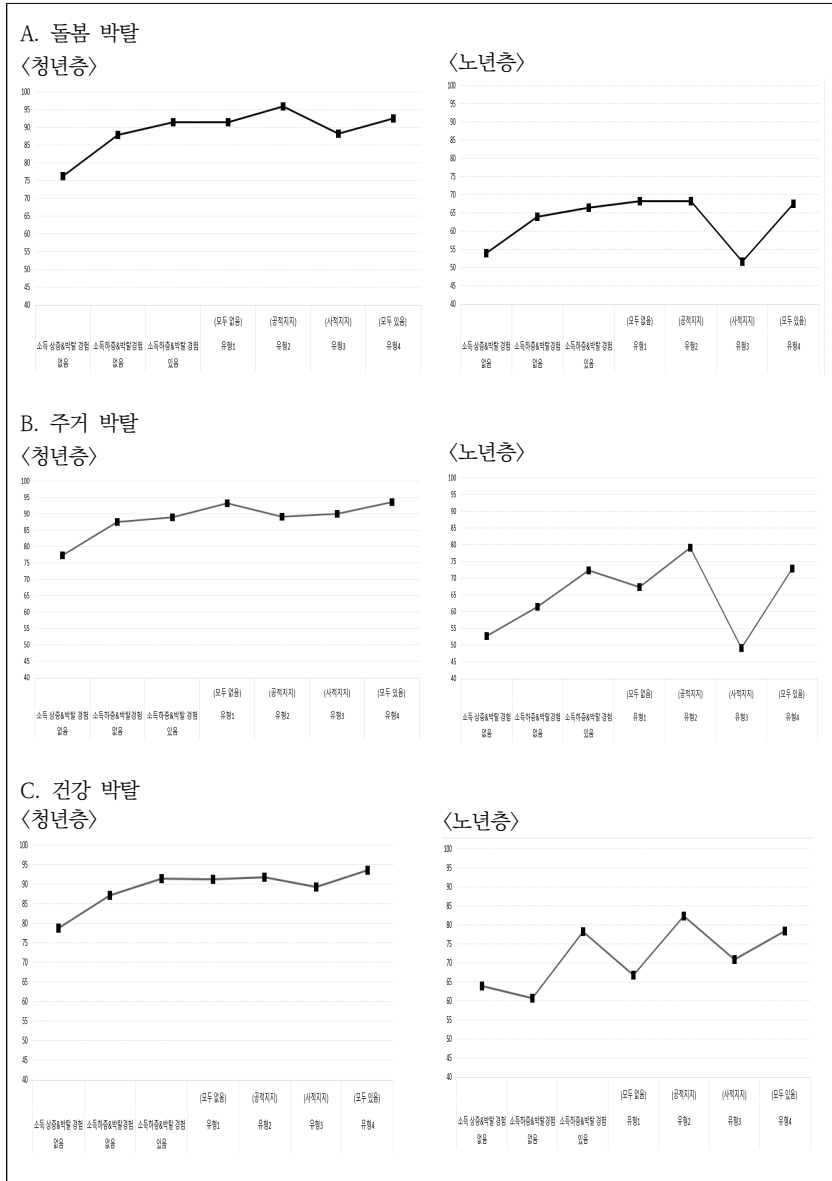
2)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은 각 유형별 사례 수가 30명 이하이고, 주거와 건강은 유형1과 유형3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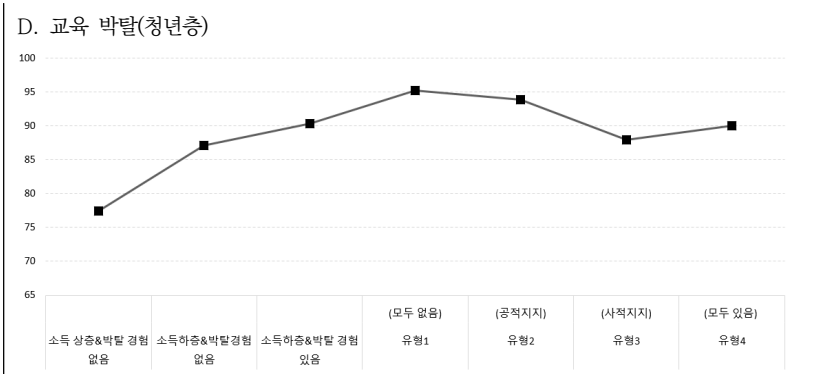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1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그림 6-15]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단위: %)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청년층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의 유형2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노년층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은 각 유형의 사례 수가 30명 이하이고, 주거와 건강은 유형1과 유형3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나.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된 이후에도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 인식 여부를 종속변수로, 소득계층과 박탈 경험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선형확률모형을 분석하였다(〈표 6-22〉).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소득계층만 투입한 모형1에서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 높았다. 세 가지 영역별 박탈 경험 여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 소득계층의 계수 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박탈 경험은 돌봄과 주거만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모형3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을 인식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박탈 경험을 투입한 모형4에서 지지체계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가 사회적 위험(복지 욕구)을 반영하는 박탈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22〉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모형1 소득계층	모형2 박탈 경험	모형3 지지체계	모형4 통합모형
성별	여성	0.08***	0.08***	0.08***	0.08***
연령 (청년)	초기중년	-0.02	-0.03	-0.02	-0.02
	후기중년	-0.00	-0.00	-0.00	-0.00
	노년	-0.13***	-0.12***	-0.13**	-0.12*
1인 가구(다인 가구)		0.00	0.00	0.00	0.00
배우자 있음(없음)		0.01	0.01	0.01	0.01
건강함(건강하지 않음)		-0.04***	-0.03***	-0.04***	-0.03***
거주지역	수도권	0.02	0.02	0.02	0.02
교육 (중졸)	고졸	0.02	0.02	0.02	0.02
	대졸 이상	0.06*	0.06*	0.06*	0.06*
임시		0.02	0.02	0.02	0.02
경활상태 (상용직)	자영	-0.01	-0.01	-0.01	-0.01
	실업	-0.01	-0.01	-0.01	-0.01
비경활		0.04***	0.04***	0.04**	0.04***
소득계층 (상)	중	0.04*	0.04*	0.04*	0.05*
	하	0.11***	0.10***	0.10***	0.10***
돌봄			0.03**		0.03**
박탈 경험	주거		0.03**		0.03*
	건강		0.01		0.01
지지체계 (모두 없음)	공직			0.02	0.01
	사직			0.02	0.02
	모두 있음			0.03#	0.03
Constant		0.88***	0.85***	0.78***	0.76***
사례 수		7,692	7,692	7,692	7,692

주: 1) #p<.10, * p<0.05, ** p<0.01, *** p<0.001.

2) 종속변수는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조사 연도별로 다른 연령집단을 조사하였으므로 연령집단 변수의 계수에는 시기 효과가 포함됨.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표 6-23〉).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령집단에 따라 지지체계 유형과 소득계층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별 모형을 마련해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원변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1에서 지지체계와 소득계층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형2와 모형5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년의 경우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보다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불안 인식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 하층이 상층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공적 지지체계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지지체계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한편, 초기중년과 후기중년은 소득계층과 지지체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중년층의 경우 공적 지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서 이로 인해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6-23〉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모형1 전체	모형2 청년	모형3 초기중년	모형4 후기중년	모형5 노년
연령집단 (청년)	초기중년	-0.02				
	후기중년	-0.08***				
	노년	-0.23***				
소득계층 (상)	중	-0.03	-0.32***	0.01	0.12	-0.17
	하	0.12	-0.15***	0.05	0.35**	0.16
	돌봄	0.03**	0.03	0.02	0.04*	-0.01
박탈 경험	주거	0.03**	0.02	0.01	0.02	0.08
	건강	0.01	-0.02	-0.01	0.03	0.12*
	교육		0.03	0.01	0.01	
지지체계 (모두 없음)	공적	-0.19	-0.70***	-0.1	-0.01	0.38*
	사적	0.00	-0.21***	-0.08	0.20	-0.07
	모두 있음	0.05	-0.21**	-0.03	0.13	0.09
소득 중층 x 지지체계	공적	0.20	0.77***	0.11	-0.09	-0.47*
	사적	0.10	0.34***	0.08	-0.05	0.21
	모두 있음	0.04	0.30**	0.04	-0.06	0.18
소득 하층 x 지지체계	공적	0.19	0.70***	0.12	0.00	-0.48*
	사적	-0.02	0.19**	0.07	-0.22	-0.13
	모두 있음	-0.06	0.19*	0.02	-0.19	-0.14
Constant		0.85***	0.72***	1.02***	0.64**	0.80
사례 수		7,692	1,793	2,183	2,716	1,000

주: 1) #p<.10, * p<0.05, ** p<0.01, *** p<0.001.
 2) 종속변수는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3) 〈표 6-22〉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모두 통제하였음.
 4) 조사 연도별로 다른 연령집단을 조사하였으므로 연령집단 변수의 계수에는 시기 효과가 포함됨.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공적, 사적 지지를 포괄하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를 고려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에 따라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계층 상층보다 하층이 건강과 교육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지체계 유형도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 하층이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연령집단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유형4 비율은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청년층은 노년층 다음으로 유형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득계층, 박탈 경험의 영향을 통제한 선행 확률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모든 박탈 영역에서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이에 더해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일부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박탈 경험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장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소득계층-박탈 경험(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에서 지지체계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박탈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계층을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일부 확인된 공적 지지의 사회적 불안 완화 효과는 노년층이 경험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 격차를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박탈 경험률은 모두 소득 하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사적 지지는 이러한 사회적 불

안을 낮추는 데 역부족이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대상과 급여 수준 등을 재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대응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를 줄이고, 공적 지지로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적 지지와 더불어 사적 지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사적 지지의 역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적 지지가 없는 집단은 사적 지지가 있는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특히,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 비중이 가장 낮았던 중년층은 사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증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의 전 세대로의 확장과 심화를 고려할 때, 사적 지지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과 가족 외에도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장치를 고안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제7장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 인식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제2절 사회적 고립의 유형과 사회적 불안

제3절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제4절 소결



제 7 장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 인식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 분석 내용

가.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고립의 유형을 재정의하고 그에 따라 고립을 측정하여 고립의 유형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고립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립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고립이 만연하고 있으며 고립이라는 현상이 고립을 경험하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고립이 일정 수준 이상 만연하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즉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 수준의 사회적 참여 위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영국의 한 연구(Fulton & Jupp, 2015; WHO, 2022, p. 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고독으로 인해 건강 및 장기요양에 발생하는 초과비용

은 15년간 1인당 11,725파운드로 추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연방지출 중 67억 달러가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산되었다(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2019; WHO, 2022, p. 5에서 재인용).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의 사회적 비용을 취업하였을 경우 조세기여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생계급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할 결과, 히키코모리 1명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경우 약 1억 5,294만 엔(한화 약 16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후생노동성, 2022. 2. 4; 김성아, 2022. p. 81에서 재인용). 고립이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려는 연구는 있지만 아직 과대 추정과 과소 추정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고립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이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고립이 사회적 불안을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개인 차원에서 고립은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립²⁴⁾을 제목으로 출간된 ‘고립의 시대(2020)’에서 저자인 노리나허츠(noreena Hertz)는 ‘외로움이 세계를 더 공격적이고 성난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외로움과 타인을 향한 적대감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저자는 ‘외로운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혹시 모를 위협요소를 찾아 주변을 살핀다’고 설명하고 생리적으로 보면 외로움으로 ‘뇌의 공감 능력과 관련된 측두정엽의 활성화도가 감소하고 주의력과 관련된 시각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지도 파악하는

24) 도서의 원제목은 정확하게는 ‘외로움’과 관련된다. 해당하는 도서의 번역된 제목은 ‘고립의 시대(The Lonely Century)’이다. 해당 도서의 본문에서는 고립과 외로움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고립이 불안과 관련성을 지니며, 둘째 고립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준다면, 고립의 부작용, 즉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고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고립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더 심화시키는지 파악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기존 논의

고립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정의되고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연결의 부재 또는 수준으로 측정된다. 최근에는 외로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의 개요는 <표 7-1>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p. 55).

〈표 7-1〉 사회적 고립 개념의 측정 방법

출처	개념 구분	측정 내용	비고
Cornwell & Waite(2009)	사회적 단절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및 범위, 상호 작용 빈도, 친구의 수, 참여(자원봉사 포함) 빈도 등	NSHAP 연구의 조사 지표 사용
	지각된 고립	가족/친구/파트너에게 마음을 털어 놓는 정도, 가족/친구/파트너에게 의지하는 정도, 외로움 등	
이상철, 조준영 (2017)	객관적 사회적 고립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 가구형태, 친구 및 가족 구성원 수, 사회참여 등	KSHAP 연구의 조사 지표 사용
	주관적 사회적 고립	가족/친구/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도, 의지하는 정도, 지각된 외로움 등	
Zavaleta et al.(2017)	외부적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친구/친척과의 접촉 빈도, 감정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원, 상호 호혜적 행동, 자원봉사활동 등	척도로 사용되거나, 조사 및 분석에 적용된 적 없음
	내부적 사회적 고립	삶/생활/관계에 대한 만족도, 외부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이웃/마을/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외로움, 이웃/지역사회/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	
Meeuwesen (2006)	관계망 크기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회적 교제 등	관계망 크기가 작고 외로움을 느끼는 집단을 사회적 고립 집단으로 정의
	외로움	de Jong Gierveld and Kamphuis (1985)의 외로움 척도	

자료: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p. 58.

주관적 사회적 고립, 또는 내부적 사회적 고립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외로움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한 측면으로 개념 정의가 되기도 하지만 외로움은 고립의 결과적인 정서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주관적 인식, 정서가 주요 요인이나 변인으로 포괄되어 있다. 외로움이 고립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관적 정서가 주요 투입 정보로 포괄되어 있어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 현상의 하나로 포괄하지는 않았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고 주기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몸이 아파 집 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 표시된다. 한편 통계개발원(통계개발원, 2021)의 발표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교류 빈도를 중심으로 정의, 측정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황, 사회단체 비활동 상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의 주요 지표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물리적 고립을 포함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1인 가구의 고립을 주목하여 분석하거나 1인 가구의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박민진, 김성아(2022)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현상에 주목하여 정신건강의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1인 가구가 물리적인 고립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추정에 근거한 관심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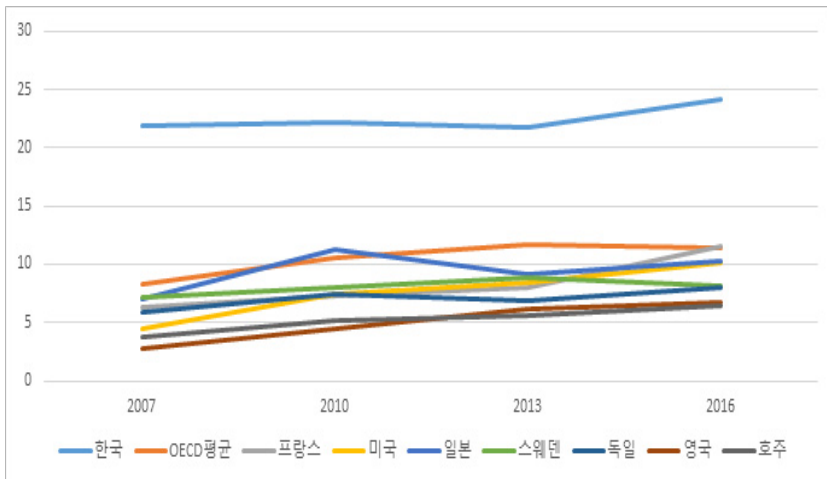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살펴본다면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립의 유형으로 포함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험이 높다는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발생하는 자살과 가족 동반자살의 반복이다. 1인 가구가 아닌 2인 이상의 가구라고 하여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고 나머지 가구원이 돌봄 부담으로 기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고립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외로움과 더불어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 가

증되면서 더 심각한 정서적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높고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적지 않다. 기존의 주요 정의별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 변화를 정리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의 유무’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고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7-1]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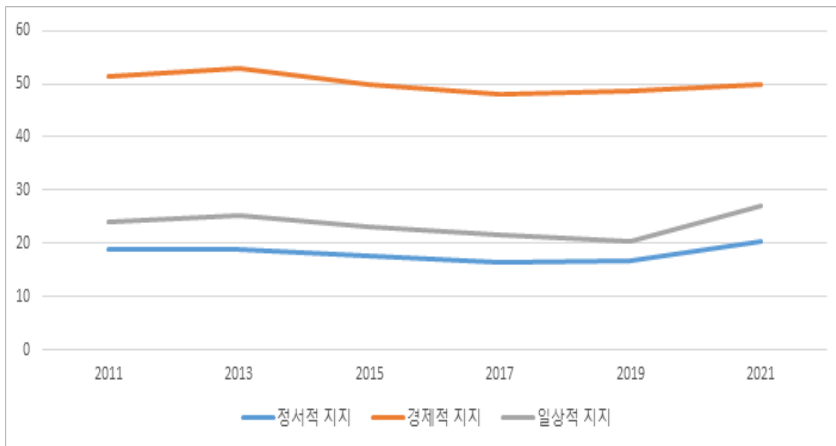
주: 1) 사회적 고립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7년은 2005~2007년 평균값이고, 2016년은 2014~2016년 평균값임.
 자료: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에서 2023. 10. 30. 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까지의 사회적 고립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발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사회적 고립도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 영역별로 사회적 고립이 2019년 이후 악화된다.

[그림 7-2] 사회적 지지 중심 사회적 고립의 변화

(단위: %)



주: 1)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의 경우 연령집단 13~18세는 15~19세이고, 19~29세는 20~29세임.

3) 2011년 이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2>에서 2023. 10. 30. 인출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7-2〉를 보면 사회적 지지의 내용별로 고립의 수준이 상이하고 사회적 지지의 내용별로 연령별 고립의 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019년 이후 사회적 고립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들의 고립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지만,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 낮지 않고 전체적으로 청소년, 청년의 2021년 사회적 고립이 크게 악화되었다.

〈표 7-2〉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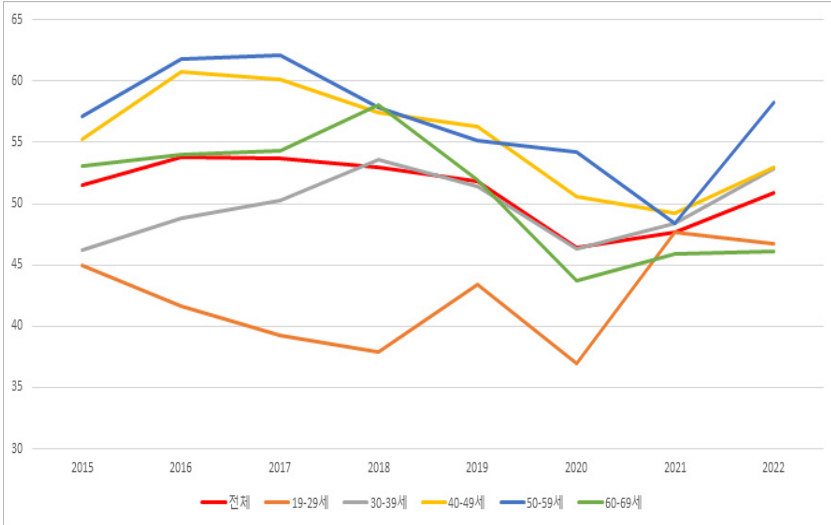
구분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경제적 지지)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체		51.4	53.0	49.9	48.1	48.6	49.9
연령 집단	13~18세	41.4	42.2	36.2	40.4	41.5	48.5
	19~29세	40.8	40.9	38.5	34.8	37.4	40.0
	30~39세	42.4	44.8	40.9	37.1	37.5	38.3
	40~49세	52.3	52.6	49.6	46.1	43.4	43.0
	50~59세	59.0	60.8	58.5	56.1	54.0	53.3
	60세 이상	67.1	69.0	64.3	62.9	64.5	64.6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일상적 지지)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체		24.1	25.3	23.2	21.6	20.4	27.2
연령 집단	13~18세	-	-	-	-	-	-
	19~29세	17.7	19.9	17.4	15.3	14.1	22.5
	30~39세	22.3	22.0	21.5	18.0	16.6	23.0
	40~49세	25.6	25.9	23.8	22.3	20.7	25.6
	50~59세	26.0	27.8	26.0	25.2	23.0	30.3
	60세 이상	28.2	29.9	26.0	25.2	24.9	31.1
구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정서적 지지)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체		19.0	18.9	17.6	16.4	16.7	20.4
연령 집단	13~18세	15.4	12.0	11.0	11.2	9.9	15.8
	19~29세	11.6	12.0	11.2	10.9	10.7	14.6
	30~39세	13.3	13.8	13.5	11.2	11.1	16.0
	40~49세	18.7	18.1	16.8	15.1	15.1	17.6
	50~59세	22.8	22.8	20.5	19.3	18.7	21.2
	60세 이상	30.2	30.0	26.7	24.4	25.5	2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진 활동 수준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7년 즈음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연령에서 사회적 활동의 위축이 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축의 완화 수준도 낮다.

[그림 7-3]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주: 1) 사회단체 참여율은 각각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의 비율임.
 2) 2020년부터 조사 대상이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3) 60세 이상의 경우 2019년까지는 60~69세 대상으로 2020년 이후에는 60세 이상으로 조사, 연령 구분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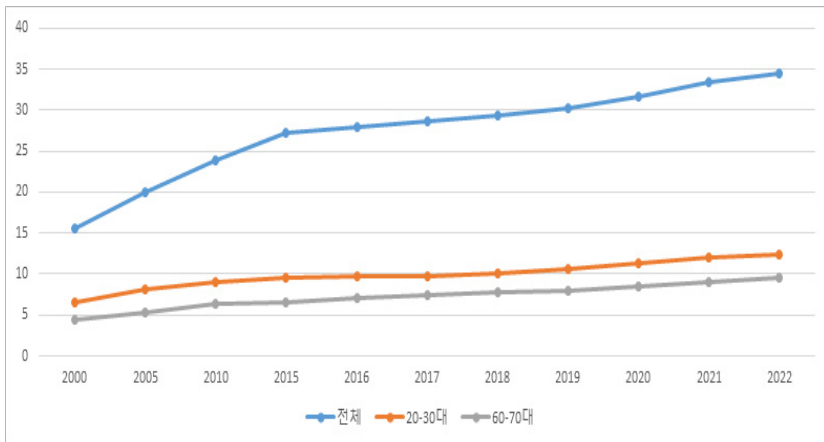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23. 10. 30. 인출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00년 일반 가구 중 15.5%에서 2022년 3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단지 노인가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20~30대 1인 가구의 증가도 노인가구와 유사하게 빠르게 증가하였다.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사회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환경변화 중 하나이다.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사회적 고립 위험과 연관되어 고립사 예방, 방문 및 상담 등의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책전략이 효과성을 가지자면 1인 가구라는 현상을 떠나 1인 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즉 원인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는 정책 개입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에서 1인 가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고립을 통계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림 7-4] 주요 연령집단별 1인 가구 비율



주: 1) 1인 가구 비율 = (해당 연령집단 1인 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2) 전수부문은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며, 2016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id=MT_ZTITLE&listid=A_4에서 2023. 10. 30. 인출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 질환자, 노인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지원이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돌봄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젊은 돌봄 제공자(young carer)에 대한 조사와 정책 구상이 크게 관심을 받을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과거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화와 이로 촉발된 자살 등의 사회적 사건이 자주 보도되면서 이미 사회정책에서 유의하여 온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 그리고 청년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현재로는 아동, 노인,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돌봄의 영향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현황을 파악할 정확한 자료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노혜진(2021)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돌봄자의 돌봄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가족 돌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족 돌봄자는 성별로 보면 여성이 63.4%로 미돌봄 집단보다 약 10%p 높고, 평균연령은 무려 11세 높으며, 전체 가족 돌봄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무려 59.9%로 나타나 가족 돌봄자의 고연령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배우자의 비율이 79.0%로 높았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 특성을 보면 비취업자가 거의 60%에 이르는 정도로 매우 높고, 취업상태여도 시간제 비중이 높았다. 가족 돌봄자의 시간 사용 패턴을 보면 돌봄 미제공자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이 약 60분 정도 길고 여가시간이나 유급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노혜진, 2021, p. 6).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을 돌보는 가구원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가구 내 체류시간이 길고, 기타 여가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분석 방법

가. 사회적 고립의 유형 분류와 측정

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측정은 다양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주로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무, 사회적 활동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외로움도 사회적 고립의 개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의 정서적 결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사회적 활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였다. 다만 3회의 조사에서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만 유사한 문항으로 조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로 한정하여 사회적 고립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정책에서 고립의 위험이 높은 이유로 1인 가구를 주된 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1인 가구 여부도 사회적 고립으로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이 돌봄 부담으로 비롯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위험도 고립의 유형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분석에 활용된 사회적 고립의 유형은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 ① 정서적 지지가 결여된 상태
- ② 사회적 활동이 없는 상태
- ③ 돌봄 부담으로 고립 위험에 처한 상태
- ④ 가구 구성의 물리적 특성으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상태

사회적 고립은 주로 사회적 지지망의 유무로 정의, 측정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반영하여 고립 유형1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태를 이 연구에서 시행한 3년 동안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3년 동안 유사한 수준으로 문항에 포함된 사회적 지지망 문항은 정서적 지지망의 유무와 수준을 묻는 문항뿐이었다. 2020년 청중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제적 도움이나 일상생활의 물리적 도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망을 파악하는 문항이 3년간의 조사에서 유지되지 않아 위의 두 문항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정서적 지지망 존재 유무를 구분하였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정서적 지지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중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사회적 활동 참여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모임이라도 참여하여 활동하면 사회적 활동 참여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고립에서 주요한 구분 정보로 포괄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포괄하여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용에 참여하는지는 고립의 현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고립의 또 다른 유형을 구분하였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에 처한 상태와 1인 가구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고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립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구분하여야 더 정확한 구분이 된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 상태는 돌봄 부담과 관련된 문항 2개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돌봄 부담으로 시간 사용에서 제약을 받거나 직장생활·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례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고립 위험 상태에 있는 사례로 구분하였다. 돌봄 부담으로 고립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극단적 선택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립의 상태에 놓일 위험이 높은 집단이 적지 않다고 추정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돌봄 필요자와 돌봄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지지망이나 사회참여 활동만으로 돌봄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의 수준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추정되어 별도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은 정책적인 대응이 구상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 유형이기도 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네 번째로 가구 규모에서 1인 가구를 구분하여 고립 위험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립 관련 정책 대응이 1인 가구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으로 1인 가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 참여활동이나 사회적 지지망에서 양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한 2인 이상의 다인 가구라 하여도 해당 가구의 가구 구성이나 가구 내 상황에 따라 고립의 위험이 높을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가구 내 돌봄 필요자가 있어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가 그러한 예가 된다.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는 1인 가구가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 차원에서 1인 가구를 고립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표 7-3〉 고립의 유형과 측정

고립의 유형	측정	관련 문항
정서적 지지망 결여	정서적 지지를 묻는 문항에 친한 사람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 없으면 0, 있으면 1로 처리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 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사회적 활동 비참여	세 가지 사회참여활동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0,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어느 하나의 활동이라도 참여하면 1로 처리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종교모임/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참여 및 활동 수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 ¹⁾	돌봄 부담으로 인한 영향을 묻는 2개 중 하나라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	돌봄 부담으로 시간 사용에서 제약을 받거나 직장생활·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 가구	가구 규모가 1인 가구. 1인 가구 1, 2인 이상 가구 0으로 처리	동거 가족 수

주: 1) 1인 가구 중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사례가 존재함. 이 사례들은 1인 가구 사례 중 거주를 달리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돌보는 사례에서 응답한 사례로 추정됨. 가구 규모 중 1인 가구는 거주 기준, 가구 소득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나. 사회적 고립의 영향 분석 방법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고립 유형을 분석에 투입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사회적 고립 유형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상이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 불안 영역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 합산 값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각 영역 별 불안 인식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도 병행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통제요인으로 투입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 또는 개인의 불안에는 성,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 학력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상황, 경제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연령은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계가 단선적이기보다 젊은 시절 미래가 불안정한 특성이 반영되어 불안 인식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 인식이 낮아지다가 노후에 경제활동의 위축과 소득빈곤이 가중되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령은 주요 요인으로 통제하되 사회적 불안 인식이 연령과 역U자 형태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을 분석에 투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실제 수준보다 소득계층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사회적 불안 인식 같은 주관적 인식에는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들이 스스로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서의 계층 의식(class consciousness)은, 개인들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별개로 그들의 주관적 위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undberg & Kristenson, 2008; 김자영, 김두섭, 2013; 김수아, 임동균, 2016, p. 50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객관적 소득보다 주관적 소득계층 의식을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재산 중 자가 여부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복지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자가 보유 여부를 별도의 통제 요인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연구한 이 연구의 1, 2, 3, 4차 연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탈이나 차별 경험이 그리고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다고 생각하는지도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변인으로 투입하되 조사 시점 3년간 조사문항이 유지된 차별 경험 여부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를 통제요인으로 투입하였다. 투입 변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7-4〉 투입 변수와 처리

변수	측정 및 계산
성별	여성 1, 남성 0
평균연령(세)	조사 시점-출생연도
도시 거주 여부	도시 1, 농촌 0
배우자 유무	무배우 1, 유배우 0.
평균 교육 연수(년)	무학은 0, 초등(국민)학교 졸업 6년, 중학교 졸업 9년, 고등학교 졸업 12년, 대학교 졸업 16년, 대학원 이상 졸업 18년으로 처리
실업·비경제활동 여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1, 그 밖의 경제활동 상태 0
자가 보유 여부	자가 보유 0, 자가 미보유 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 중하층 2, 중간층 3, 중상층 4, 상층 5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5점, 나쁘다 1점의 5점 척도
차별 경험 ¹⁾ 유무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차별 중 차별 경험 있는 영역의 합
차별 인식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의 합

주: 1) 차별 경험을 묻는 문항의 차별 경험 기한이 조사 연도에 따라 달리하였음을 밝힌다. 2020년 조사에서는 기간을 두지 않고 경험 여부를 묻고, 2021년은 지난 20년, 2022년은 지난 10년으로 경험의 기한을 설정하였다. 즉 조사 시점별로 조사 대상의 연령이 상이하였으므로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 연령에 따라 차별 경험의 경험 기간이 다르다는 변수 처리의 한계가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변수 외 조사 시점 또는 조사 시점별 조사 대상의 연령 구분²⁵⁾도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았다. 세 차례의 조사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사 시점이 갖는 특이성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였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려이다. 분석에 활용된 조사자료가 조사된 세 개 시점을 변수로 투입하여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조사 시점의 영향도 통제하였다.

제2절 사회적 고립의 유형과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사회적 고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수준²⁶⁾은 활동참여가 없는 집단, 1인 가구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모든 고립 유형에서 고립된 집단이 고립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고 그 차이가 가장 높은 고립 유형은 역시 사회적 활동참여가 없는 유형과 1인 가구였다. 이 불안 인식의 수준은 척도화된 다문항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 차이와 상이하였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돌봄 고립 위험을 경험한 집단으로 평균 3.87이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집단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서 평균 3.84였다. 정서적 지지망, 사회활동 참여, 돌봄 고립 유무, 1인 가구 여부를 포함, 모든 고립 유형에서 고립 상태가 고립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25) 2020년에는 청년과 중년 초기를, 2021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2022년에는 후기중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 대면 조사, 온라인 조사로 수행한 자료를 통합하면서 통합한 자료가 시점과 조사 방식에서 발생한 응답의 차이, 오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6)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문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안하다(5점)~전혀 불안하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사회적 고립 유형별 불안 수준을 비교해보면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불안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분명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안전 불안 인식, 사회적 신뢰 불안 인식에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서적 지지망 유무, 활동참여 여부, 돌봄 고립 위험 경험 유무에서는 불안 영역별로 여전히 유의미한 불안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고립을 경험하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적 불안 영역별로 불안 인식을 보면 사회적 고립의 유형 중 1인 가구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약하다.

〈표 7-5〉 고립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비교

(단위: 점)

불안	고립 유형			정서적 지지망			활동 참여			돌봄 고립 위험			가구 규모		
	유	무	평균 차이	유	무	평균 차이	유	무	평균 차이	유	무	평균 차이	1인 가구	2인 이상	평균 차이
사회적 불안 인식	3.99	4.08	.083***	3.95	4.10	.154**	4.04	4.01	.031**	4.10	3.95	.154**			
사회적 불안 척도	3.66	3.84	.178***	3.63	3.78	.143*** ¹⁾	3.87	3.68	.187*** ¹⁾	3.72	3.69	.033*** ¹⁾			
격차/경쟁	4.03	4.13	.096***	3.99	4.13	.143***	4.13	4.04	.083*** ¹⁾	4.06	4.04	.0151)			
불공정/불확실	3.87	4.05	.178***	3.84	3.99	.147***	4.06	3.89	.168*** ¹⁾	3.96	3.89	.066*** ¹⁾			
안전	3.35	3.54	.190*** ¹⁾	3.33	3.47	.146*** ¹⁾	3.61	3.37	.232***	3.40	3.38	.019 ¹⁾			
정부 불신	3.63	3.74	.118*** ¹⁾	3.62	3.69	.068***	3.80	3.64	.157*** ¹⁾	3.66	3.65	.017 ¹⁾			
적응/도태	3.21	3.54	.331*** ¹⁾	3.19	3.38	.191*** ¹⁾	3.59	3.25	.337*** ¹⁾	3.30	3.26	.038*** ¹⁾			
개인 불안	1.90	2.16	.257***	1.90	2.02	.118***	2.18	1.94	.246***	1.98	1.94	.039*** ¹⁾			
사례 수	6,347	1,345		4,594	3,098		350	7,347		141	7,552				

주: 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 유의수준: 유의확률<.005 *** 유의확률<.05 ** 유의확률<.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개인 불안의 경우도 유사해서 모든 유형의 고립 집단에서 개인 불안 수준도 높았다. 다만 1인 가구의 불안이 2인 이상 가구의 개인 정서불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로 높았다.

제3절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1. 기초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적 고립 유형별로 분석에 투입한 주요 변수의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6>과 같다. 정서적 지지가 있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없는 집단, 2인 이상의 가구의 응답자와 정서적 지지가 없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돌봄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 1인 가구 응답자 사이에 일목요연한 특성의 차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정서적 지지가 있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없는 집단, 2인 이상의 가구의 응답자가 정서적 지지가 없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돌봄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 1인 가구 응답자보다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리고 차별 경험과 차별의 심각성 인식, 개인의 불안도 낮았다.

〈표 7-6〉 사회적 고립 유형별 기초분석 결과

특성 비교 \ 고립 유형	정서적 지지망		사회적 활동		돌봄 부담 기인 고립 위험		가구 규모	
	무	유	무	유	유	무	1인 가구	2인 이상
여성 비율(%)	45.7	50.0	52.4	47.1	54.0	49.0	45.8	49.8
평균연령(세)	44.35	46.31	41.3	49.1	50.5	45.8	46.44	45.89
도시 거주 비율(%)	86.0	87.6	88.0	86.9	80.6	87.6	84.6	87.8
무배우자 비율(%)	50.2	37.7	50.2	66.9	57.6	39.0	89.1	31.8
평균 교육연수(년)	14.25	14.54	14.6	14.4	14.1	14.5	14.1	14.5
실업 비경험 비율(%)	31.5	26.2	30.7	24.7	27.2	27.1	25.9	27.3
자가 보유 비율(%)	58.4	66.6	59.2	69.2	49.7	65.9	31.5	70.7
주관적 소득계층	2.19	2.51	2.30	2.56	2.03	2.48	2.05	2.52
주관적 건강상태	2.96	3.28	3.09	3.32	2.91	3.24	3.00	3.26
차별 경험자 비율(5)	3.68	2.92	3.43	2.80	2.18	1.94	3.27	3.02
차별 심각성 인식 수준 평균	18.70	18.14	18.73	17.91	18.71	18.22	18.31	18.23
개인 불안	2.16	1.90	2.02	1.90	2.18	1.94	1.98	1.94
사례 수(%)	1,345 (17.5%)	6,346 (82.5%)	3,098 (40.3%)	4,594 (59.7%)	350 (4.5%)	7,473 (95.5%)	1,081 (14.1%)	6,611 (8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정서적 지지가 있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없는 집단, 2인 이상의 가구의 응답자와 정서적 지지가 없는 집단,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돌봄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 1인 가구 응답자 사이의 차이는 주관적 인식에서 차이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객관적 지표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거나 특성이 일정한 방향으로 요약되지 않았다.

고립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징, 경제적 수준, 그리고 주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관련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야 사회적 고립의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사회적 고립의 영향 분석 결과

최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합산 값인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고립 유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망 유무와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집단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반면 돌봄으로 인하여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과 1인 가구는 고립 위험이 없는 집단과 2인 이상 가구 응답자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사회적 고립 유형의 영향이 상이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주로 적응 불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불공정 불안과 안전 불안에는 정서적 지지망 유무만이 약한 수준의 영향을 주었다. 적응 불안에는 네 가지의 사회적 고립 유형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정서적 지지망 유무와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망이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집단의 적응 불안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적응 불안보다 낮았고 돌봄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도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반면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응답자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다.

불공정 불안과 안전 불안 영역에서는 정서적 지지망이 있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으나 그 유의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는 정서적 지지망의 영향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 여부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을 경험하는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수준도 다소 높았으나 정서적 지지망의 영향과 비교하여 영향 수준은 낮았다.

〈표 7-7〉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요인	(적도화) 사회적 불안 인식	불평등 불안	불공정 불안	안전 불안	불신 불안	적응 불안
	β	β	β	β	β	β
(Constant)	-154.111***	-22.355	-86.424***	-162.195***	-644.703** *	-75.226**
조사 연도	.135***	.020	.061***	.113***	.343***	.051**
성(남성 기준)	-.036***	.004	-.070***	.039***	-.080***	-.042***
연령	.047	.187*	.432***	-.192*	-.274**	-.142•
연령 ²	-.135•	-.323***	-.467***	.091	.161•	.179*
가구 규모	-.025*	-.009	-.027•	-.026•	-.013	-.025•
거주지역 (농촌 기준)	.017•	.025*	.009	.004	.014	.019*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기준)	-.039**	-.061***	-.030*	-.031*	-.021	-.005
학력	.072***	.117***	.079***	.050***	.023•	-.006
실업 비경험 여부(기타 기준)	.009	.010	.012	-.005	.005	.012
주관적 소득계층	-.097***	-.117***	-.122***	-.017	-.035**	-.079***
자가 보유 (보유기준)	-.019•	-.013	-.010	-.011	-.016	-.028**
주관적 건강상태	-.053***	-.048***	-.042***	-.050***	-.037**	-.032**
차별 경험	.083***	.058***	.065***	.088***	.018	.098***
차별 심각성 인식	.393***	.370***	.381***	.293***	.252***	.229***
(정서)불안	.239***	.079***	.127***	.259***	.142***	.383***
정서적 지지망 부재	-.023*	.004	-.020•	-.019•	-.006	-.054***
사회적 활동 비참여	-.023*	-.011	-.014	-.012	-.012	-.046***
돌봄 기인 고립 위험	.006	.000	-.003	.015	-.008	.021*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기준)	-.013	.004	-.004	-.014	-.011	-.034*
F(p)	257.219***	174.180***	170.824***	161.429***	92.561***	206.365***
R ² / adjusted R ²	.389/.388	.301/.300	.297/.296	.286/.284	.186/.184	.338/.337

주: • p<.1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1인 가구 여부를 기준으로 한 정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지망을 확대,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과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소결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앞의 2, 3, 4차 연구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객관적인 사회경제학적 요인보다 주관적 경험과 인식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율, 실업률 등 객관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불안 인식이 심화되면 건강한 정책 수용이나 정치 태도를 갖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망이 있는 응답자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다. 반면 1인 가구 여부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1인 가구를 표적으로 하는 고립과 관련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재고하고 사회적 관계의 강화,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라 하여도 사회적 관계망이 견고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라면 고립 상태에 놓이지 않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라 하여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 고립 상태에 빠지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고조될 수 있다. 즉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라 하여도 고립을 예방하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 결과가 견고하지는 않았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일 수 있으나 돌봄 부담이 있다고 하여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영 증 사회적 고립은 상대적으로 적응 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있는 집단에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술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적응력 향상은 이상적인 정책전략일 수 있다.





제8장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참여·활동을 초점으로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제2절 사회적 불안 대처성향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분석

제5절 소결



제 8 장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참여·활동을 초점으로

제1절 분석 내용과 방법

1. 분석의 내용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운 기분이나 경험을 하게 된다. 생애주기상, 청년은 원 가족의 품을 벗어나 가족을 형성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중년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부모를 봉양하면서, 일부는 퇴직이나 은퇴를 맞보기도 하면서 여러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이현주 외, 2020; 이현주 외, 2022). 노인은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 및 친한 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실감뿐만 아니라, 은퇴한 노인은 사회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곽윤경 외, 2021).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고독감과 외로움 등을 경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태진 외, 2022).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련의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을 통해 적응하고자 하였다(이현주 외, 2020). Lazarus & Folkman(1984, p. 141)은 대처를 “개인의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 외부 및 내부의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 및 행동적 노력”이라고 보았다. Skinner & Zimmer-Gembeck(2007, p. 124)는 대처성향(coping strategies)을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와 부딪치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대처성향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상황과 맥락에서 다르기에, 학자들의 의견 역시 다양하다. Lazarus & Folkman(1984)이 분류한 문제 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 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가 가장 대표적이다(Lazarus & Folkman, 1984). 전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 자신의 행동 및 조건 등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을 말한다(이현주 외, 2020, p. 187). 후자인 정서 중심 대처법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이현주 외, 2020, p. 187).

한편, 사회참여와 사회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대처성향으로 이전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곽윤경 외, 2021). 전자인 사회참여는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김수영, 이민홍, 손태홍, 2015, p. 455). 여기서 사회참여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공공여가문화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참여를 통해 개인들은 고립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게 된다(Choenarom, Williams, & Hagerty, 2005). 후자인 사회관계(사회관계망)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유형화된 것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사회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망의 크기, 구성원의 동질성이나 접촉의 빈도와 서로 간에 지지를 주고받는 기회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장혜경, 2021, p. 393).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 대처하는 성향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어,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이번 장에서 활용되는 변수는 <표 8-1>과 같다. 사용된 자료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이다. 다만, 2020~2022년 조사된 각 시점에 따라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은 문항도 있기에, 이럴 경우, 해당 연도 조사 대상 혹은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분석한 부분도 일부 있음을 밝힌다.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 관련 변수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역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대처성향은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은 단문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 변수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공공여가·문화시설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의 보기 문항은 2020년 19~44세 청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2022년 45~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포함된 바 있다. 그 외,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은 3년 연속 조사 문항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 변수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 등 소득 변화,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였는지 여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8-1〉 주요 활용 변수

구분		주요 문항 및 세부 설명
사회적 불안 대처성향	그냥 참기	-그냥 참는다
	전문적 도움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심리상담을 받는다
	수면, TV, 흡연, 과식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희, 과식/폭식/미식 등을 한다
	사회적 교류	-가족과 교류한다(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기타 지인과 교류한다(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여가문화종교활동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종교 활동을 한다
사회참여 (단체· 모임활동)	정치·사회모임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종교모임	
	친목모임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 학부모 모임	
사회관계망	공공여가문화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회관 등
	몸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각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		

구분	주요 문항 및 세부 설명
코로나19 경험	일자리 불안 등, 소득 감소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정서적 문제
자아 존중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챌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했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통제변수로는 성별(남/여), 세대(19~34세/35~64세/65~44세)²⁷⁾ 혹은 연령(청년: 19~34세, 초기중년: 35~44세, 후기중년: 45~64세, 노년: 65~74세), 혼인상태(유배우자/무배우자), 교육수준(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나쁨/보통/ 좋음),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은 19~7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분석에서는 청년(19~34세), 중년(35~64세), 초기 노인(65~74세)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 대처성향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성향, 그리고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대처성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사건 경험자의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참여 특성과 사회적 불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

27) 세대 구분은 조사 시점으로 인한 집단 구분과 동일하여 시점 통제라는 의미도 갖는다.

막으로,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절 사회적 불안 대처성향

1. 대처성향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떤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수면/TV/흡연/과식이 41.22%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냥 참기는 24.08%로 2위를, 사회적 교류는 15.25%로 3위를, 여가·문화·종교활동은 13.28%로 4위를 차지하는 등의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그냥 참는 청년이 40.16%로 가장 많았고, 중년은 수면/TV/흡연/과식이 44.65%로 가장 많았고, 노인은 사회적 교류가 33.93%로 가장 많았다.

〈표 8-2〉 전체, 청년 및 중년의 대처성향¹⁾

(단위: %)

구분	전체	전체 성인		
		청년	중년	노년
그냥 참기	24.08	40.16	17.77	20.59
전문적 도움	6.02	5.15	7.32	1.58
수면/TV/흡연/과식	41.22	37.63	44.65	32.56
사회적 교류	15.25	8.85	14.32	33.93
여가문화종교활동	13.28	8.22	15.95	11.34
전체	100.00 ²⁾	100.00	100.00	100.00

주: 1) 중복응답 문항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2) 결측치 0.15%를 포함하여 총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전체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대처성향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8-3>과 같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응하는 반면, 남성은 그냥 참거나,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면/TV/흡연/과식 혹은 여가문화종교활동으로 대처하는 성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수면/TV/흡연/과식, 사회적 교류,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무배우자는 그냥 참거나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 중졸 이하 집단에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수면/TV/흡연/과식 다음으로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거주자는 수면/TV/흡연/과식 다음으로 사회적 교류를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는 수면/TV/흡연/과식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8-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성향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TV/ 흡연/과식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여가문화· 종교 활동
전체		24.08	6.02	41.22	15.25	13.28
성별	남성	25.41	6.56	43.05	11.26	13.72
	여성	22.80	5.47	39.43	19.41	12.88
혼인 상태	유배우	18.70	5.60	41.60	18.90	15.20
	무배우	32.32	6.70	40.75	9.80	10.4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22	4.67	36.22	29.56	7.33
	고졸	27.12	6.18	39.06	16.25	11.39
	대졸 이상	22.86	6.08	42.81	13.48	14.77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쁘다	24.98	10.59	43.49	10.89	10.05
	보통	25.31	5.84	41.83	14.27	12.75
	좋다	22.17	4.07	39.53	18.68	15.55
거주 지역	대도시	24.85	5.93	41.10	15.04	13.09
	중소도시	21.09	6.60	41.46	16.07	14.78
	농어촌	16.62	6.81	44.41	17.98	14.17

구분	그냥 참기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TV/ 흡연/과식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여가문화· 종교 활동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26.67	8.24	40.39	13.40	11.31
	2분위	27.24	5.36	41.38	15.11	10.91
	3분위	25.03	5.35	41.97	14.93	12.72
	4분위	21.53	6.11	42.61	15.86	13.89
	5분위	20.08	5.13	40.03	17.09	17.67

주: 중복응답 문항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4〉 참조). 그 결과, 전문적 도움을 통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대응하는 집단에서 개인 불안과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안할 때 그냥 참는 대처성향을 가진 집단은 격차/경쟁 불안이 유독 높았다.

〈표 8-4〉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그냥 참기	2.05	3.75	4.12	3.98	3.44	3.62	3.37
전문적 도움	2.31	3.83	4.05	3.98	3.60	3.82	3.55
수면/TV/흡연/과식	1.95	3.71	4.06	3.91	3.41	3.67	3.28
사회적 교류	1.79	3.55	3.93	3.74	3.22	3.53	3.12
여가문화종교활동	1.79	3.64	4.01	3.88	3.30	3.69	3.11
전체	1.95	3.69	4.05	3.90	3.39	3.65	3.27

주: 1) 중복 응답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2)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세대별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을 살펴 보았다(〈표 8-5〉 참조). 우선,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청년은 개인 불안이

가장 높았고,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냥 참는 청년은 격차/경쟁 불안과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다른 불안 대처성향의 사람보다 높았다. 불안할 때 사회적 교류를 하거나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대처성향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체 청년의 불안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8-5〉 청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그냥 참기	2.10	3.80	4.19	3.99	3.53	3.61	3.41
전문적 도움	2.42	3.83	4.08	3.94	3.66	3.66	3.62
수면/TV/흡연/과식	2.03	3.71	4.14	3.88	3.44	3.51	3.29
사회적 교류	1.91	3.66	4.12	3.83	3.44	3.44	3.18
여가문화종교활동	1.90	3.60	4.02	3.80	3.33	3.45	3.12
전체 청년	2.05	3.74	4.14	3.92	3.48	3.55	3.33

주: 1) 중복 응답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2)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청년의 개인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참는 청년은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교류를 하거나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통해 대처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8-6〉 중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그냥 참기	2.03	3.80	4.17	4.07	3.47	3.68	3.35
전문적 도움	2.28	3.85	4.07	4.02	3.60	3.89	3.55
수면/TV/흡연/과식	1.92	3.77	4.12	4.00	3.45	3.79	3.29
사회적 교류	1.77	3.65	4.04	3.90	3.30	3.68	3.11
여가문화종교활동	1.77	3.70	4.07	3.96	3.35	3.81	3.14
전체 중년	1.92	3.75	4.10	3.99	3.43	3.76	3.27

주: 1) 중복 응답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2)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노인 역시 개인 불안이 가장 높았고, 안전 불안도 가장 높았다. 사회적 교류를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성향을 지닌 노인은 격차/경쟁 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냥 참는 노인과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인식하는 격차/경쟁 불안 인식 수준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남들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약화 등으로 인해 기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곽윤경 외, 2021). 그냥 참는 대처성향을 가진 노인은 불공정/불확실 불안, 정부 불신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 역시 높았다.

〈표 8-7〉 노년의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그냥 참기	1.98	3.36	3.58	3.52	2.96	3.35	3.28
전문적 도움	2.11	3.31	3.38	3.37	3.20	3.26	3.27
수면/TV/흡연/과식	1.92	3.31	3.51	3.41	3.06	3.31	3.18
사회적 교류	1.76	3.27	3.59	3.35	2.91	3.28	3.09
여가문화종교활동	1.80	3.25	3.58	3.45	2.95	3.23	2.87
전체 노년	1.87	3.30	3.56	3.42	2.98	3.30	3.14

주: 1) 중복 응답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2)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한편,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15.76%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인이 8.95%, 정부가 7.05%, 국민 개개인은 4.54%, 언론계는 3.7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는 0.8%, 사법부는 0.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의 해결 주체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8〉 참조). 사법부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해야 할 주체라고 보는 이들은 정부 불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 정치인과 기업 및 정재계가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격차/경쟁 불안이 높았다.

〈표 8-8〉 해결 주체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대통령	1.90	3.85	4.13	4.10	3.47	4.09	3.33
정부 (지방정부 포함)	1.90	3.75	4.07	3.92	3.46	3.87	3.28
정치인(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1.90	3.74	4.07	3.94	3.42	3.82	3.27
사법부 (대법원, 법원 등)	1.91	3.75	3.91	4.02	3.39	4.08	3.29
기업 및 정재계	1.87	3.68	4.13	3.78	3.34	3.77	3.23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1.83	3.67	3.98	3.92	3.36	3.78	3.15
국민(주민) 개개인	1.83	3.67	3.99	3.90	3.38	3.77	3.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삶의 만족도와 대처성향

전체 응답자 중, 삶의 만족도가 '상'인 사람은 30.83%였고, '중'인 사람은 40.48%, 그리고 '하'인 사람은 28.69%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차이는 약 2%p에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작았다.

삶의 만족도별 불안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표 8-9〉와 같다. 그 결과, 불안할 때,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삶의 만족도 '상'인 집단인 경우가 많았다. 그냥 참거나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수면/TV/흡연/과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중'인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8-9〉 대처성향 별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삶의 만족도			전체
	상	중	하	
그냥 참기	20.14	41.09	38.77	100.00
전문적 도움	26.57	39.96	33.48	100.00
수면/TV/휴연/과식	28.57	40.56	30.87	100.00
사회적 교류	44.55	40.97	14.48	100.00
여가문화종교활동	43.19	38.79	18.02	100.00

주: 중복응답이나, 1순위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10〉 참조). 삶의 만족도가 '상'인 집단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가 '하'인 집단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8-10〉 삶의 만족도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삶의 만족도 '상' 집단	1.73	3.48	3.86	3.67	3.19	3.47	2.98
삶의 만족도 '중' 집단	1.93	3.67	4.00	3.87	3.36	3.64	3.26
삶의 만족도 '하' 집단	2.20	3.96	4.32	4.19	3.62	3.85	3.59

주: 1) 단체모임활동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2)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3) 해당 문항은 2021년도(노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삶의 만족도별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11〉 참조). 우선, 삶의 만족도가 '상'인 집단에서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적 도움을 요청

하는 집단에서 개인 불안이 가장 높았다. 그냥 참는 대처성향을 지닌 집단에서는 격차/경쟁 불안이 가장 높았으나, 수면/TV/흡연/과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집단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집단에서 불공정/불확실 불안과 정부 불신 불안 또한 가장 높았지만,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통한 불안 대처성향을 지닌 집단과는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표 8-11〉 삶의 만족도 '상'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그냥 참기	1.84	3.51	3.90	3.69	3.23	3.43	3.06
전문적 도움	2.17	3.59	3.74	3.72	3.48	3.53	3.36
수면/TV/흡연/과식	1.74	3.49	3.88	3.67	3.22	3.48	2.98
사회적 교류	1.63	3.41	3.82	3.61	3.07	3.40	2.94
여가문화종교활동	1.65	3.47	3.85	3.71	3.16	3.52	2.87

주: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삶의 만족도가 '중'인 집단에서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8-12〉 참조),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집단에서 개인 불안뿐만 아니라 안전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문화종교활동의 대처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정부 불신 불안이 가장 높았다.

〈표 8-12〉 삶의 만족도 '중'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그냥 참기	1.98	3.66	3.99	3.88	3.37	3.56	3.27
전문적 도움	2.22	3.72	3.99	3.85	3.46	3.73	3.44
수면/TV/흡연/과식	1.92	3.69	4.02	3.89	3.40	3.66	3.26
사회적 교류	1.85	3.58	3.93	3.76	3.26	3.57	3.19
여가문화종교활동	1.82	3.69	4.04	3.92	3.34	3.76	3.21

주: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삶의 만족도가 '하'인 집단에서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8-13〉 참조),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개인 불안을 포함하여,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삶의 만족도 '하'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 경쟁	불공정/ 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 도태
그냥 참기	2.24	3.98	4.36	4.22	3.63	3.77	3.64
전문적 도움	2.52	4.14	4.37	4.35	3.86	4.15	3.85
수면/TV/흡연/과식	2.17	3.94	4.29	4.17	3.59	3.86	3.57
사회적 교류	2.08	3.87	4.24	4.06	3.56	3.82	3.45
여가문화종교활동	2.08	3.94	4.32	4.19	3.58	3.94	3.48

주: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3. 코로나19 경험과 대처성향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나 소득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3.85%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고립으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20.49%였고,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응답은 16.04%, 학습 환경 악화나 학업 중단을 경험한 사람은 14.36%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경험 여부에 따른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14) 참조).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가족 돌봄 부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전체 성인보다 개인 불안 및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개인 불안 및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은 정부 불신이 유달리 높았다.

〈표 8-14〉 코로나19 경험 여부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	있음	2.08	3.85	4.21	4.06	3.55	3.74	3.44
	없음	1.84	3.65	4.02	3.87	3.33	3.65	3.13
학습 환경 악화 및 학업 중단	있음	2.14	3.84	4.28	4.03	3.58	3.59	3.43
	없음	1.98	3.68	4.10	3.91	3.39	3.44	3.25
가족 돌봄 부담	있음	2.14	3.83	4.26	4.06	3.53	3.54	3.41
	없음	1.97	3.68	4.10	3.89	3.41	3.46	3.25
정서적 문제	있음	2.21	3.89	4.30	4.10	3.60	3.62	3.52
	없음	1.88	3.60	4.04	3.82	3.33	3.38	3.13
전체 성인		1.95	3.69	4.05	3.90	3.38	3.65	3.27

주: 1)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해 a)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 b) 학습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c) 가족돌봄 부담, d) 정서적 문제 中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사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변화,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가족 돌봄 부담, 정서적 문제 중 1개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15〉 참조). 그 결과, 각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표 8-15〉 코로나19 부정적 경험자의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그냥 참기	2.10	3.82	4.24	4.03	3.53	3.58	3.40
전문적 도움	2.13	3.82	4.24	4.03	3.53	3.58	3.41
수면/TV/흡연/과식	2.08	3.82	4.22	4.03	3.52	3.63	3.39
사회적 교류	2.09	3.81	4.24	4.02	3.52	3.56	3.38
여가문화종교활동	2.09	3.81	4.24	4.03	3.52	3.58	3.39

주: 1) 코로나19로 인해 a)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 b)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c) 가족 돌봄 부담, d) 정서적 문제 중 1개 이상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2) 개인 불안 문항은 4문항이고, 나머지는 5개 보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1. 사회참여 유형별 불안 비교

응답자의 단체·모임활동의 참여 특성은 〈표 8-16〉과 같다. 친목모임 참여율(50.8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종교모임(19.87%), 주민 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10.84%), 정치·사회모임(8.12%), 공공여가 문화시설(3.07%) 등의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실태를 살펴보면(〈표 8-16〉 참

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치·사회모임, 친목모임의 참여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종교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과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가 더 높았다. 세대별로는 중년이 청년과 노년에 비해 정치·사회모임 참여가 높았고, 노년은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나,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율은 무배우자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은 정치·사회모임 참여가 높았고, 중졸 이하는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도가 높았다. 보통은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에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이 높았다. 다만,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에서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후기중년(45~64세)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현주 외, 2022).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대도시 거주자는 친목모임 참여율이 높았다. 다만, 중소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모두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율이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 집단은 종교모임과 공공여가 문화시설 참여율이 높았고, 소득 4분위는 정치·사회모임과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참여율이 높았다. 소득 5분위는 친목모임 참여율이 높았다.

〈표 8-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단위: %)

구분	단체·모임활동 ¹⁾						
	정치·사회 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²⁾	공공여가 문화시설 ³⁾	계 ⁴⁾	
전체	8.12	19.87	50.89	10.84	3.07		
성별	남성	16.98	28.74	84.68	16.05	26.57	52.08
	여성	9.07	36.08	80.36	27.49	29.28	47.92
세대	청년	10.65	27.07	83.14	9.09	-	20.42
	중년	14.96	32.52	79.75	25.49	-	61.79
	노년	9.85	37.37	91.93	-	28.00	17.80
혼인 상태	유배우	13.58	33.01	83.57	27.87	26.80	67.45
	무배우	12.32	30.72	80.67	10.19	35.29	32.5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57	34.36	88.83	32.56	32.59	7.56
	고졸	10.93	32.21	82.98	17.88	25.81	28.77
	대졸 이상	14.25	32.05	81.74	22.40	23.23	63.68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12.08	30.89	77.79	15.18	36.25	13.80
	보통	13.68	31.69	82.96	21.93	30.95	45.82
	좋다	13.02	33.40	83.90	23.10	23.44	40.38
거주지역	대도시	13.31	31.30	84.08	20.57	21.56	42.82
	중소도시	12.79	32.63	82.78	20.25	31.77	43.87
	농어촌	14.10	34.07	77.34	27.68	31.77	13.31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11.96	39.09	74.69	17.51	32.50	17.11
	2분위	12.60	31.91	80.35	21.02	26.83	18.27
	3분위	12.20	31.87	81.34	21.64	27.91	19.22
	4분위	14.37	28.90	84.39	24.73	26.96	21.89
	5분위	14.18	30.97	89.50	20.62	24.58	23.51

주: 1) 보기 문항 중,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가끔 활동한다'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를 합산한 결과임.

2)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3) 해당 문항은 2021년도(노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4) 단체·모임활동 유형 중에서 1개 이상 참여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단체·모임활동별 사회적 불안 수준은 〈표 8-17〉과 같다. 정치·사회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개인 불안,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주민참여나 활동 및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정부 불신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7〉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단체모임활동 ¹⁾	1.90	3.64	3.99	3.84	3.33	3.62	3.20
정치·사회모임	2.11	3.68	3.92	3.87	3.45	3.65	3.33
종교모임	1.92	3.61	3.94	3.80	3.32	3.61	3.18
친목모임	1.89	3.63	3.99	3.83	3.32	3.62	3.18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²⁾	1.99	3.72	4.05	3.93	3.44	3.69	3.26
공공여가문화시설 ³⁾	1.91	3.35	3.67	3.48	2.97	3.31	3.19

주: 1) 단체모임활동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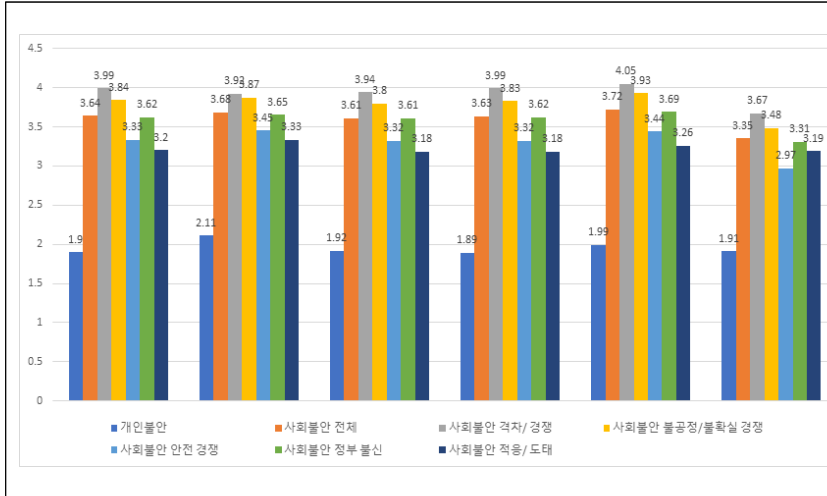
2)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3) 해당 문항은 2021년도(노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그림 8-1〉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주: 1) 단체모임활동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2)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3) 해당 문항은 2021년도(노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사회관계 유형별 불안 비교

사회관계망별 사회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관계망은 ㄱ)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ㄴ)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ㄷ)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후기중년과 노인의 77.94%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60.48%는 갑자기 큰돈을 빌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의 81.95%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 즉,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있었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은 이에 비해 미흡하였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기중년과 노인은 53.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을 비교 분석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세대별로는 노년이 후기중년보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과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후기중년이 노년보다 큰돈을 빌릴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대졸 이상 집단이 기타 학력 집단보다 세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수준이 좋은 집단에서 세 가지 상황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8-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단위: %, 명)

구분		사회관계망 유무 ¹⁾			
		몸 아파 집안일 부탁(A)	큰돈 빌림(B)	이야기 상대 필요(C)	A~C 모두 해당 ²⁾
전체		77.94 (1.22)	60.48 (1.39)	81.95 (1.15)	53.29
성별	남성	77.94	60.47	81.95	48.63
	여성	78.58	62.11	87.46	51.37
세대	청년	-	-	-	-
	후기중년	77.53	62.17	84.26	76.20
	노년	80.76	58.40	86.34	23.80
혼인상태	유배우	79.40	63.79	87.48	83.10
	무배우	65.86	52.52	74.95	16.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4.77	52.34	79.25	9.34
	고졸	77.31	58.57	83.69	30.16
	대졸 이상	79.40	64.40	86.24	60.50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67.28	47.70	75.82	13.46
	보통	77.83	59.83	84.75	46.38
	좋다	84.77	70.66	89.49	40.16
거주지역	대도시	79.97	63.88	85.75	44.17
	중소도시	77.73	59.17	84.46	40.30
	농어촌	75.34	60.30	82.81	15.53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67.69	48.23	75.00	15.14
	2분위	75.61	59.60	82.77	14.78
	3분위	79.15	61.68	84.64	17.23
	4분위	82.87	65.41	88.54	23.40
	5분위	83.89	69.39	90.60	29.44

주: 1) A, B, C,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임.

2) 21년도(노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이고, 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8-19〉와 같다. 대체로 사회관계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에 격차/경쟁 불안과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다른 유형의 사회적 불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9〉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전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사회관계망 ¹⁾	있음	1.80	3.58	3.90	3.77	3.26	3.70	3.13
	없음	2.10	3.79	3.95	4.03	3.50	3.86	3.48
몸 아파 집안일 부탁할 사람(A)	있음	1.84	3.63	3.94	3.82	3.29	3.75	3.19
	없음	2.03	3.78	4.01	4.00	3.46	3.89	3.42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B)	있음	1.82	3.61	3.92	3.80	3.28	3.73	3.16
	없음	1.98	3.74	4.01	3.95	3.40	3.86	3.36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C)	있음	1.85	3.63	3.94	3.83	3.30	3.76	3.19
	없음	2.08	3.81	4.02	4.03	3.51	3.91	3.48

주: 1)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무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분석

1.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모형 1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대처성향의 경우,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그냥 참기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경우에 사회적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

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경쟁 영역(모형2)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부적 관계로 자아존중감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대처성향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불확실 영역(모형3)의 경우, 삶의 만족도만 부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대처성향 변수 중에서는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그냥 참는 경우에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2분위와 3분위 집단이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0〉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4.160***		4.010***		4.192***		
대처 성향 (ref= 여가문화 종교 활동)	자아존중감	-.018***	-.086	.009**	.038	-.006*	-.024	
	삶의 만족도	-.172***	-.247	-.190***	-.258	-.204***	-.236	
	그냥 참기	.057**	.046	.031	.023	.056*	.036	
	전문적 도움	.067*	.030	-.035	-.015	-.008	-.003	
	수면/TV/흡연/과식	.014	.012	.010	.009	-.016	-.012	
	사회적 교류	-.021	-.014	.002	.001	-.041	-.022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061***	.056	.089***	.079	.015	.011	
	연령 (ref=노년)	청년	.296***	.244	.444***	.347	.323***	.215
		초기중년	.259***	.190	.424***	.293	.376***	.221
		후기중년	.356***	.327	.371***	.323	.438***	.324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0***	-.046	-.068***	-.059	-.046*	-.034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03	-.002	.005	.003	.008	.004
		중소도시	-.010	-.005	-.014	-.007	.026	.0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096**	-.042	-.164***	-.068	-.125**	-.044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ref=대졸 이상)	고졸	-.051***	-.044	-.086***	-.070	-.077***	-.053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105***	-.098	-.101***	-.089	-.122***	-.091	
	좋음	-.159***	-.142	-.125***	-.106	-.157***	-.113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15	.011	-.002	-.001	.036	.022	
	2분위	.040*	.030	.037	.026	.049*	.030	
	3분위	.031	.023	.023	.016	.068**	.041	
	4분위	.016	.012	.021	.015	.025	.015	
F(p)		91.933***		87.292***		69.871***		
R2 (수정된 R2)		.201(.199)		.193(.191)		.161(.158)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안전 영역(모형4)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안전 불안과 부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대처성향 중에서는,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경우, 안전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불신 영역(모형5)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 정부 불신은 부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대처성향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도태 영역(모형6)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관계로 드러났다.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그냥 참는 경우,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경우, 수면/TV/흡연/과식하는 경우, 적응/도태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모형4, 모형5와 달

리,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인 경우, 소득 2분위인 경우, 소득 3분위인 경우, 적응/도태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21〉 대처성향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상수		3.874***		4.149***		4.705***		
대처 성향 (ref= 여가문화 종교 활동)	자아존중감	-.031***	-.115	-.013**	-.036	-.066***	-.237	
	삶의 만족도	-.109***	-.125	-.171***	-.151	-.174***	-.193	
	그냥 참기	.055*	.035	.056	.027	.102***	.063	
	전문적 도움	.163***	.058	.019	.005	.250***	.086	
	수면/TV/흡연/과식	.041	.030	-.021	-.012	.055*	.039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152***	.113	-.042*	-.024	.048**	.034
	연령 (ref=노년)	청년	.408***	.269	.114**	.058	.030	.019
		초기중년	.322***	.188	-.024	-.011	-.026	-.015
		후기중년	.373***	.274	.532***	.301	.055	.039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5**	-.040	-.041	-.023	-.030	-.021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16	-.008	-.017	-.007	-.003	-.002
		중소도시	-.028	-.012	-.031	-.010	-.020	-.008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47	-.017	-.061	-.016	-.040	-.014
		고졸	-.043*	-.029	.003	.001	-.013	-.008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097***	-.072	-.123***	-.070	-.082***	-.059
		좋음	-.187***	-.134	-.168***	-.092	-.169***	-.117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00	.000	-.053	-.024	.081**	.046
		2분위	.010	.006	-.005	-.002	.101***	.058
3분위		-.009	-.005	-.003	-.001	.063**	.036	
4분위		-.019	-.011	.009	.004	.044	.025	
F(p)		59.106***		49.657***		87.834***		
R2 (수정된 R2)		.139(.137)		.120(.117)		.194(.192)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2.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우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조사문항에 포함된 사회참여, 즉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형1의 경우, 정치·사회모임 참여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비 남성의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고, 노년 대비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은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인 사람 대비,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인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격차/경쟁 영역(모형2)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격차/경쟁 불안과 부적 관계로, 자아존중감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격차/경쟁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불확실 영역(모형3)의 경우, 사회참여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2분위와 소득 3분위는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 사회참여(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4.198***		4.028***		4.208***		
자아존중감		-.019***	-.089	.008**	.035	-.007*	-.025	
삶의 만족도		-.175***	-.251	-.189***	-.257	-.207***	-.239	
사회참여 (ref= 미참여)	정치·사회모임	.045*	.023	-.066**	-.032	.030	.012	
	종교모임	-.022	-.016	-.043**	-.031	-.032	-.019	
	친목모임	-.006	-.006	.023	.020	-.008	-.006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059***	.055	.088***	.078	.014	.010
	연령 (ref=노년)	청년	.307***	.254	.447***	.349	.333***	.221
		초기중년	.270***	.197	.430***	.297	.385***	.226
		후기중년	.355***	.326	.369***	.321	.429***	.318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48**	-.044	-.068***	-.059	-.045*	-.033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00	.000	.003	.002	.011	.006
		중소도시	-.007	-.004	-.015	-.008	.030	.013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95**	-.042	-.164***	-.068	-.126**	-.044
		고졸	-.049***	-.042	-.086***	-.070	-.075***	-.052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6***	-.099	-.098***	-.087	-.120***	-.090
		좋다	-.162***	-.144	-.123***	-.104	-.157***	-.113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16	.012	.001	.001	.035	.021
		2분위	.038*	.029	.038*	.027	.046*	.028
3분위		.030	.022	.024	.016	.066**	.039	
4분위		.015	.011	.021	.015	.022	.014	
F(p)		95.486***		92.602***		72.406***		
R2 (수정된 R2)		.199(.197)		.194(.192)		.159(.157)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안전 영역(모형4)의 경우, 정치·사회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안전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 불신 영역(모형5)의 경우, 사회참여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도태 영역(모형6)의 경우, 정치·사회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적응/도태 불안은 높아지지만,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적응/도태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인 경우, 소득 2분위인 경우, 소득 3분위인 경우 적응/도태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23〉 사회참여(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상수		3.918***		4.168***		4.813***		
자아존중감		-.032***	-.120	-.013**	-.039	-.066***	-.239	
삶의 만족도		-.117***	-.134	-.174***	-.153	-.179***	-.199	
사회참여 (ref= 미참여)	정치·사회모임	.142***	.058	-.009	-.003	.155***	.061	
	종교모임	.004	.002	-.006	-.003	-.018	-.010	
	친목모임	-.003	-.002	-.006	-.004	-.052**	-.038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151***	.112	-.047*	-.027	.047**	.034
	연령 (ref=노년)	청년	.434***	.286	.130**	.066	.035	.022
		초기중년	.344***	.201	-.009	-.004	-.026	-.015
		후기중년	.387***	.284	.530***	.299	.049	.035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0**	-.037	-.039	-.022	-.027	-.019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13	-.006	-.014	-.006	.003	.001
		중소도시	-.023	-.010	-.028	-.009	-.014	-.006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46	-.016	-.058	-.016	-.037	-.013
		고졸	-.038*	-.026	.005	.002	-.009	-.006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4***	-.077	-.122***	-.070	-.088***	-.064	
	좋다	-.197***	-.140	-.169***	-.093	-.177***	-.122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05	.003	-.055	-.025	.079**	.046	
	2분위	.010	.006	-.008	-.004	.097***	.056	
	3분위	-.008	-.005	-.006	-.003	.061**	.035	
	4분위	-.019	-.011	.006	.003	.043	.025	
F(p)			61.579***		51.456***		90.833***	
R2 (수정된 R2)			.138(.136)		.118(.116)		.191(.189)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다음으로, 19~64세 참여자의 주민참여나 활동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1, 격차/경쟁 영역(모형2), 그리고 불공정/불확실 영역(모형3)에서, 사회참여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후기중년 대비, 청년과 초기중년의 사회적 불안은 낮았고, 불공정/불확실 불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중년 대비 청년과 초기중년의 격차/경쟁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4> 사회참여(주민참여나 활동)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4.573***		4.462***		4.667***		
자이론중감		-.020***	-.100	.004	.020	-.008*	-.032	
삶의 만족도		-.182***	-.269	-.197***	-.284	-.215***	-.256	
사회참여 (ref= 미참여)	주민참여나 활동 및 학부모 모임 ¹⁾	.014	.009	-.038	-.023	-.003	-.002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062***	.059	.101***	.094	.012	.009	
	연령 (ref=후기중년)	청년	-.044**	-.039	.083***	.071	-.090***	-.064
		초기중년	-.086***	-.068	.059***	.046	-.044*	-.028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3***	-.050	-.084***	-.078	-.056**	-.043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07	.005	.024	.015	.014	.007
		중소도시	-.020	-.011	-.024	-.013	.021	.009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01	.000	-.109	-.023	-.027	-.005
		고졸	-.052***	-.044	-.089***	-.074	-.075***	-.052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3***	-.099	-.098***	-.091	-.117***	-.090
		좋다	-.165***	-.151	-.114***	-.102	-.160***	-.117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18	.014	-.015	-.011	.038	.023
		2분위	.043*	.034	.031	.024	.052*	.032
		3분위	.039*	.030	.024	.018	.079**	.049
4분위		.025	.020	.026	.020	.034	.022	
F(p)		69.335***		51.237***		44.822***		
R2 (수정된 R2)		.149(.147)		.115(.112)		.102(.100)		

주: 1)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안전 영역(모형4)의 경우, 주민참여나 활동 및 학부모 모임 참여는 안전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불신 영역(모형5)의 경우, 사회참여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

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도태 영역(모형6)의 경우, 주민참여나 활동 및 학부모 모임 참여는 적응/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그리고 소득 4분위인 경우, 적응/도태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25> 사회참여(주민참여나 활동)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상수		4.254***		4.676***		4.920***		
자아존중감		-.030***	-.115	-.012**	-.035	-.070***	-.255	
삶의 만족도		-.115***	-.135	-.184***	-.160	-.192***	-.212	
사회참여 (ref=미참여)	주민참여나 활동 및 학부모 모임 ¹⁾	.053*	.027	.003	.001	.073**	.035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154***	.117	-.047*	-.027	.046**	.033	
	연령 (ref=후기 중년)	청년	.044*	.031	-.399***	-.208	-.012	-.008
		초기중년	-.047*	-.030	-.540***	-.251	-.074***	-.044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44*	-.033	-.041	-.023	-.020	-.014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08	-.004	-.006	-.002	.002	.001
		중소도시	-.041	-.018	-.038	-.012	-.033	-.013
	교육수준 (ref=대졸 이상)	중졸 이하	.022	.004	.078	.010	.125	.020
		고졸	-.043*	-.029	.004	.002	-.014	-.009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0***	-.076	-.117***	-.066	-.081***	-.058
		좋다	-.215***	-.156	-.163***	-.087	-.189***	-.128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25	.015	-.057	-.025	.088**	.049
		2분위	.023	.014	-.004	-.002	.107***	.062
		3분위	.008	.005	-.002	-.001	.072**	.041
		4분위	-.006	-.004	.007	.003	.061*	.036
F(p)		42.190***		46.140***		103.333***		
R2 (수정된 R2)		.096(.094)		.104(.102)		.207(.205)		

주: 1)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마지막으로, 65~74세 노인의 공공여가문화시설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격차/경쟁 영역(모형2)에서만 공공여가문화시설 참여가 격차/경쟁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여가문화시설 참여가 격차/경쟁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26〉 사회참여(공공여가문화시설)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3.899***		3.276***		3.844***			
자아존중감	-.011	-.050	.043***	.179	.002	.008		
삶의 만족도	-.108***	-.150	-.135***	-.165	-.139***	-.152		
사회참여 (ref= 미참여)	공공여가문화시설 ¹⁾	.069	.061	.146***	.114	.087	.061	
	성별 (ref=여성)	-.005	-.005	-.018	-.016	-.005	-.004	
인구 사회학적 요인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08	.006	.049	.032	.057	.033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49	-.038	-.093	-.062	.007	.004
		중소도시	.075	.048	.059	.033	.099	.051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66	-.067	-.080	-.071	-.136	-.108
		고졸	-.004	-.005	.019	.018	-.060	-.049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4	-.107	-.061	-.055	-.109	-.088
		좋다	-.107	-.110	-.103	-.093	-.098	-.080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23	-.022	-.013	-.011	.011	.009
		2분위	.001	.001	.029	.019	.024	.014
		3분위	-.029	-.022	-.005	-.004	-.011	-.006
4분위		-.064	-.045	-.079	-.049	-.055	-.030	
F(p)		3.123***		4.980***		2.414**		
R2 (수정된 R2)		.048(.032)		.074(.059)		.037(.022)		

주: 1) 해당 문항은 2021년도(65~74세)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안전 영역(모형4), 정부 불신 영역(모형5), 적응/도태 영역(모형6)에서 공공여가문화시설 참여는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표 8-27> 사회참여(공공여가문화시설)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상수	4.322***		4.326***		4.067***		
자아존중감	-.052***	-.184	-.027*	-.089	-.046***	-.166	
삶의 만족도	-.090**	-.095	-.101**	-.097	-.049	-.051	
사회참여 (ref=미참여)	공공여가문화시설 ¹⁾						
	-.016	-.011	.014	.009	.071	.048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056	.044	-.036	-.026	-.037	-.029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0	-.028	-.026	-.013	-.031	-.017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94	-.054	-.061	-.033	-.003
		중소도시					
		.069	.034	.045	.020	.092	.045
	교육수준 (ref=대졸 이상)	중졸 이하					
			.010	.007	-.157	-.111	.031
	고졸						
	-.005	-.004	-.024	-.018	.059	.046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23	-.096	-.159*	-.114	-.095	-.074
	좋다						
	-.097	-.075	-.209*	-.150	-.063	-.049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137*	-.098	-.044	-.029	.070	.050
	2분위						
		-.087	-.049	-.018	-.009	.051	.029
	3분위						
	-.117	-.065	-.021	-.011	.009	.005	
	4분위						
	-.079	-.042	.025	.012	-.104	-.055	
F(p)	4.397***		2.467**		3.826***		
R2 (수정된 R2)	.066(.051)		.038(.023)		.058(.043)		

주: 1) 해당 문항은 2021년도(65~74세)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2)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3.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1의 경우, 사회관계망에서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경우에도, 모형1과 마찬가지로,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격차/경쟁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3분위인 경우,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8〉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4.258***		4.029***		4.286***		
자아존중감		-.019***	-.088	.009**	.038	-.006	-.023	
삶의 만족도		-.170***	-.245	-.190***	-.258	-.202***	-.234	
사회 관계망 (ref= 없음)	집안일 부탁	-.030	-.028	.019	.016	-.054*	-.040	
	큰돈 빌림	-.043*	-.038	-.046*	-.038	-.052*	-.037	
	이야기 상대 필요	-.034	-.032	.001	.001	-.039	-.029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058***	.054	.089***	.079	.014	.010
	연령 (ref=노년)	청년	.238***	.196	.437***	.342	.239***	.159
		초기중년	.198***	.145	.417***	.289	.287***	.169
		후기중년	.359***	.331	.368***	.320	.435***	.321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모형1)		격차/경쟁 (모형2)		불공정/불확실 (모형3)	
		B	β	B	β	B	β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2***	-.048	-.068***	-.059	-.050**	-.037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01	-.001	.004	.002	.010	.005
	중소도시	-.009	-.005	-.015	-.008	.028	.012
교육수준 (ref=대졸 이상)	중졸 이하	-.098**	-.043	-.164***	-.068	-.129**	-.046
	고졸	-.050***	-.043	-.085***	-.069	-.075***	-.052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103***	-.096	-.098***	-.086	-.116***	-.087
	좋다	-.158***	-.141	-.122***	-.103	-.153***	-.110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09	.007	-.006	-.004	.026	.015
	2분위	.035	.026	.035	.025	.042	.025
	3분위	.027	.020	.021	.015	.063**	.037
	4분위	.014	.010	.019	.014	.021	.013
F(p)		96.386***		91.676***		73.558***	
R2 (수정된 R2)		.201(.199)		.193(.191)		.161(.159)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모형4의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 안전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의 경우, 사회관계망 변수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6의 경우,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 큰돈을 빌리는 경우 적응/도태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9〉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계속)

구분		사회 불안						
		안전 (모형4)		정부 불신 (모형5)		적응/도태 (모형6)		
		B	β	B	β	B	β	
상수		4.024***		4.202***		4.896***		
자아존중감		-.032***	-.118	-.013**	-.038	-.068***	-.243	
삶의 만족도		-.108***	-.124	-.171***	-.151	-.172***	-.191	
사회 관계망 (ref= 없음)	집안일 부탁	-.038	-.028	-.024	-.014	-.062*	-.044	
	큰돈 빌림	-.025	-.017	-.055	-.030	-.037	-.025	
	이야기 상대 필요	-.080**	-.059	-.003	-.002	-.046	-.033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ref=여성)		.147***	.109	-.045*	-.026	.043**	.031
	연령 (ref=노년)	청년	.322***	.212	.082	.041	-.051	-.032
		초기중년	.230***	.134	-.059	-.027	-.112**	-.063
		후기중년	.388***	.285	.534***	.301	.068*	.048
	혼인상태 (ref=무배우자)		-.057**	-.041	-.042	-.023	-.032	-.023
	거주지역 (ref=농어촌)	대도시	-.014	-.007	-.015	-.006	-.001	.000
		중소도시	-.026	-.011	-.029	-.010	-.018	-.007
	교육수준 (ref=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50	-.018	-.062	-.017	-.039	-.013
		고졸	-.041*	-.028	.005	.002	-.009	-.006
	주관적 건강상태 (ref=나쁨)	보통	-.098***	-.073	-.120***	-.068	-.084***	-.061
		좋다	-.191***	-.136	-.166***	-.091	-.173***	-.120
	소득분위 (ref=5분위)	1분위	-.005	-.003	-.059	-.027	.076**	.044
		2분위	.005	.003	-.010	-.005	.096***	.056
		3분위	-.013	-.008	-.007	-.003	.060*	.034
4분위		-.020	-.012	.005	.002	.043	.025	
F(p)		61.041***		51.790***		89.621***		
R2 (수정된 R2)		.137(.135)		.119(.117)		.189(.187)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선택하는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 전체 성인은 주로 수면/TV/흡연/과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였다. 다만, 세대별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청년은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년은 수면/TV/흡연/과식을 선택하였고, 노년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안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차이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격차/경쟁 불안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았다. 이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 전문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경우 사회적 교류 대처성향을 가진 이가 격차/경쟁 불안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불안 대처성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불안이 대체로 낮은 반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았다. 삶의 만족도를 상, 중, 하 크게 3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불안 대처성향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 '상'인 집단에서는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개인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이 높은 편이었다. 삶의 만족도가 '중'인 집단에서는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정부 불신 불안이 높았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가 '하' 집단에서는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집단에서 개인 불안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가 단일하거나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는 이현주 외(2019, p. 214)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사회적 불안과 생활 만족도는 양극단에 있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나 소득 감소,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가족 돌봄 부담, 그리고 정서적 문제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사회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처성향이, 사회참여가,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8-30>과 같다. 대처성향과 사회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종교활동 대비 그냥 참는 경우는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불확실 인식,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참여와 사회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공공여가문화시설을 포함한다. 사회참여 유형별로 사회적 불안 수준은 달랐다. 예를 들어, 정치·사회모임 참여자는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을 상대적으로 높이지만, 격차/경쟁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격차/경쟁 불안이 낮았다.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

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유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경쟁 불안 그리고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상대는 있는 경우는 안전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0〉 연구 결과 종합

구분	사회 불안					
	평균 점수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정부 불신	적응/도태
대처성향 (ref=여가 문화종교 활동)	그냥 참기	(+)		(+)	(+)	(+)
	전문적 도움	(+)			(+)	(+)
	수면/TV휴연/과식					(+)
	사회적 교류					
사회참여 (ref= 미참여)	정치·사회모임	(+)	(-)		(+)	(+)
	종교모임		(-)			
	친목모임					(-)
	주민참여나 활동 ¹⁾				(+)	(+)
	공공여가문화시설 ²⁾		(+)			
사회 관계망 (ref= 없음)	집안일 부탁			(-)		(-)
	큰돈 빌림	(-)	(-)	(-)		
	이야기 상대				(-)	

주: 1) 해당 문항은 2020년도(19~44세), 2022년도(45~64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2) 해당 문항은 2021년도(65~74세)에 포함되었던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을 구축 및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사회관계망 유무가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1인 가

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회참여 사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들은 청년 혹은 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집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균형적 영향을 받은 바 있기에(박경현 외, 2021),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점은 당연히 이해되는 바이다. 다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프로그램은 해당 집단을 분리하고 낙인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성인 중 일부 집단만이 대상이므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회구조적 변동,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개인 및 가족 간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다양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참여 유형별 그리고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사회참여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는 하지만, 일부 유형의 사회참여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모임참여는 격차/경쟁 불안을 낮추지만, 안전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세대별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의 여가문화시설 참여가 격차/경쟁 불안을 높인다는 점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74세 노인의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은 10% 남짓이었고, 해당 시설은 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진, 2021, pp. 25-26). 이러한 점은 공공여가문화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개선점에 대해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사회참여 유형별 그리고 세대별로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이 설계되어야 사회적 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지원이 단지 한 개인의 생계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시행된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큰돈을 갑자기 빌릴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31%로 해당 조사가 시행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이태진 외, 2022, p. 72). 이번 연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나 소득감소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돈을 빌릴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었던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평소와 달리 많은 불안정성을 경험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자체가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맞춘 그리고 위기상황에 맞춘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이들을 위한 소액금융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9장

결론

제1절 주요 분석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과제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제 9 장 결론

제1절 주요 분석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이 연구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한국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 중 5차년의 연구로,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 이유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정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파악이 일천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은 객관적인 사회적 불안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수준과 변동의 폭이 상이하며 심지어 인식은 미래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을 담보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로 진행된 5차년 연구인 이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이전의 1, 2, 3, 4차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서로 다른 시점의 조사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이슈와 통합 방식, 그리고 통합자료의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사

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요 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조사 문항은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불안 인식의 주제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적응/도태 불안이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 불안 인지는 평균 4.01로 평균이 '불안하다'의 수준이다.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한 4점 이상 응답자 비율은 거의 80%였다. 사회 불안 척도는 불안의 수준이 평균이 3.69이고 4점 이상의 응답은 29.9%였다.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응답한 불안의 수준도 높았다.

사회 불안 인식의 영역별로 보면 격차/경쟁 불안은 응답 평균이 '불안하다' 이상으로 높고 4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64%였다. 불공정/불확실 불안도 높아서 응답 평균은 3.90이고 4점 이상 응답한 비율도 53.7%였다. 다만 적응/도태 불안의 경우 4점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낮아 19.3%이다. 개인적인 도태를 우려하는 불안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은 실제 생활상의 불안 요인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불안 인식의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회 불안 인지와 격차/경쟁 불안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사회적 불안 인식의 핵심적인 불안은 격차/경쟁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격차/경쟁 불안은 전체 사회 불안 인식 척도에서도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불안 영역이다. 개인 불안과 상관관계가 높은 불안은 적응/도태 불안과 안전 불안이었다.

인구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실업자와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았고 비자가인 집단이 자가인 집단과 비교하여 불안 수준이 높았다. 하위 소득집단의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소득 1분위에서는 불안의 영역 중 적응/도태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차별, 박탈의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높았으나 박탈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험의 종류는 대체로 돌봄 영역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때였다. 그러나 불공정/불확실과 특히 적응/도태 불안 및 개인 불안은 건강 영역 중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았는데 적응/도태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는 외모, 학력/학벌, 소득/자산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 불신 불안은 직업 및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을 때 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박탈 경험과 차별 경험 여부를 비교해볼 때 경험 유무 자체보다는 차별 혹은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안 수준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박탈과 차별의 각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불안 수준 차이가 약 0.1~0.4점 이내였다면, 차별과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0.1~0.9점까지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코호트별로 비교하였다. 불안 인식의 구조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재구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 영역뿐 아니라 미시와 거시 수준의 불안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호트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에서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 '빈부격차의 심화'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코호트를 막론하고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위기관리 역량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 해소에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불안의 핵심 요소들에서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1986~2001년 출생 코호트(19~34세)에서는 취업불황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이, 1976~1985년 출생 코호트(35~44세)에서는 집단이기주의나 편법사회로 인한 불안이, 1968~1977년 출생 코호트(45~54세)에서는 조직적응에 대한 불안과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이, 1957~1967년 출생 코호트(55~64세)의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그리고 1947~1956년 출생 코호트(65~76세)의 경우 범죄피해와 정보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불안이 핵심 요소였다.

둘째,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이, 1975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의 불안이 높았다. 셋째, 모든 코호트에서 사회적 신뢰는 체계 불안에, 심리적 불안은 생활세계 불안에 연결되어 있었다. 체계 불안과 생활세계 불안이 높은 집단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체계 불안과 생활세계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체계 불안이 높은 집단과 생활세계 불안이 높은 집단의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차별 경험,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과 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 간에 불안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연령대별 개인 불안심리와 사회 불안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첫째, 청중년은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낮은 자존감과

회복력)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둘째,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 및 차별과 관련한 인식은 개인 불안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개인 불안은 사회적 불안 영역 중 적응/도태 불안과 관련이 가장 높으며 양의 관계를 가진 반면 격차/경쟁 불안과는 부의 관계를 가졌다. 불평등 인식 또한 개인 불안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응/도태 영역에서의 사회 불안은 결국 개인 불안으로 내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주의적인 사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불안심리 유형과 개인 차원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정서불안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구조에서의 지나친 경쟁주의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경험'이 개인 불안심리에 주는 영향이 높으며, 사회 불안 또한 사건 경험을 통해 불안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공적, 사적 지지를 포괄하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위협의 계층화를 고려하려,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 상층보다 하층이 건강과 교육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

적, 공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 하층이 공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연령집단별 지지체계 유형 분포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유형4 비율은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청년층은 노년층 다음으로 유형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득계층, 박탈 경험의 영향을 통제한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 그리고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일부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계층-박탈 경험(사회적 위협)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에서 지지체계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박탈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공적 지지가 있는 유형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계층을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일부 확인된 공적 지지의 사회적 불안 완화 효과는 노년층이 경험하는 준 보편적 지원제도 등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고립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고립의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사회적 고립 유형을 네 가지-정서적 지지의 부재, 사회적 활동 비참여, 1인 가구,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 경험-로 구분하여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1인 가구 여부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고립 위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 결과가 견고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 중 사회적 고립은 상대적으로 적음 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제8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선택하는 대처성향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인은 주로 수면/TV/흡연/과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대처성향이 조금 상이한데 청년은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년은 수면/TV/흡연/과식을 선택하였고, 노년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처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차이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격차/경쟁 불안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 전문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경우 사회적 교류 대

처성향을 가진 이가 격차/경쟁 불안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사회참여와 사회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유형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사회모임 참여자는 안전 불안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그리고 정부 불신 불안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유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망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2절 정책과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고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삶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정책과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불평등 대응 정책 강화
- 둘째, 정책 신뢰 제고
- 셋째,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 넷째, 주관적 인식지표의 주기적 관리
- 다섯째, 사회정책 운영의 합리화 모색

정책과제 중 첫 번째는 불평등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았고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불안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의 강도중심성을 살펴보면 '빈

부격차 심화(e4),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t2)'이 강도중심성이 가장 높아 네트워크의 중요 노드로 확인되었다. 불안의 내용 중 대체로 빈부격차 불안이 가장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여 볼 때 소득이 낮은 집단은 개인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응/도태 불안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책 중 불평등에 대응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서 누락된 지원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안의 확산을 고려할 때 보편적, 준 보편적 정책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합리화, 재구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정책 신뢰로 국한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부 신뢰는 여러 정책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신뢰를 높이는 제안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신뢰가 정부 신뢰의 중요한 근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교체되어도 정책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다. 분석 결과에서 정부 신뢰는 중요한 불안의 영역이고 불안 수준이 높은 영역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개인 불안 및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1차 연구에서 정부, 대통령은 불안 연관어의 관계에서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 중심적 위치로 이동해왔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데 정부의 사회적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은 신뢰를 확보할 수준에 있지 않다면 정부 신뢰, 정책 신뢰는 더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이다. 개인의 정서적 역량은 사회적 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불안 인식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은 사회적 불안 인

식을 낮추고 정책적 태도의 왜곡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적 현상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주관적 인식지표의 주기적 관리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연령별로 상이하였으며 객관적인 불안 요인의 경험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정치적, 정책적 입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같은 주관적 인식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객관적 사회 조건만을 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환경을 판단할 때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사회정책 운영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회정책 중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구성원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과 개인의 생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인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상에 대응하여 부차적인 문제 발생이 유발될 위험이 있는 정책 등에 대하여 유심히 검토하고 제도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1차년의 빅데이터 분석과 이후 인터뷰에서 가족은 계속 지지체제이자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취약한 상황의 가족은 특히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은 가족체계의 기능을 전제로 가구 단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현상 대응도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은 낳기도 하는데 청년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1인 가구를 표적으로 할 경우 다인 가구의 유사 문제 경험자를 지원에서 누락하기도 한다. 분석 결과에서 보면 1인 가구와 같이 현상을 중심으로 한 표적화 대응은 실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응과 완전하게 등치되기 어렵다. 일선 실무자 FGI에서 1인 가구 지원을 담당하였던 실무전문가는 1인 여성 가구가 1인 가구임을 노출하기를 꺼려 1인 가구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고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위의 5가지 정책과제는 주요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제안하는 정책과제와 정책전략의 개요는 <표 9-1>과 같다.

<표 9-1>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전략

정책과제	정책전략
불평등 대응 정책 강화	주거지원과 돌봄 지원의 안정성 확보, 준 보편화 추진
	청년의 취업과 이행기 고려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 강화
	보편적, 준 보편적 제도의 의의 재확인과 준 보편, 보편적 제도 적정수준 확보
정책 신뢰 제고	정책 안정성 제고
	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 가시성 제고
	정부의 재난, 위기 관리와 대응의 책임성 제고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사회적 지지, 활동참여 제고
	도태, 적응 불안 대응, 예방
	사회적 연대, 문제의식 강화
인식지표의 주기적 관리	주관적 인식의 의의 수용과 지표 개발
	인식지표의 주기적 파악과 반영
사회정책의 운영 합리화	현상 중심의 특정 집단 표적화를 넘어 원인 대응으로 정책 대응 전환
	사회변화를 반영 지원 단위의 개선 모색(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자료: 저자 작성.

정책과제별로 정책전략과 정책전략의 배경이 되는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는 우선 소득격차, 자산격차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인식 중 자산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은 상황에 있었다. 소득빈곤과 자산빈곤뿐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 인식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중요한 현상이자 원인이다. 따라서 조세정책과 소득지원정책 등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최상위소득집단과 기타 소득계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분배정책의 설계에서 국민의 수용도와 결과의 정당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단일 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조세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조세정책이 재원을 마련하는 기제이자 불평등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지출의 합리화 논의 이전에 조세정책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주거 박탈과 돌봄 박탈이 높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특히 높았다. 주거와 돌봄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준 보편화를 지향하여 불안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해당 박탈이 극빈층 이상으로 확산된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매우 기초적 성격의 서비스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서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집단도 주거, 건강, 교육 박탈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10%를 넘었다. 돌봄 박탈은 전 계층에서 20%를 넘기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인터뷰 참여자가 돌봄 불안으로 지자체를 찾았어도 빈곤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불안을 완화하는 정책 중 청년은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연령집단이다. 청년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며 개인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청년의 불안 인식은 주로 개인의 생활세계의 불안과 연관이 깊었다. 개인 불안이 높으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인식이 강한 집단인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은 청년(중년 초기 포함) 약 55.3%, 후

기중년 약 34.2%, 노년 10.5%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특이성을 주목하되 지원 대상 집단을 표적화할 때는 정책 특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 케어러’ 지원과 같이 연령을 넘어서는 문제 경험, 즉 보편성이 강한 경우 연령 기준 대상 표적화보다 문제 또는 원인에 집중하여 정책 대응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년의 경우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이 정책의 경우 선별적 지원을 넘어서는 지원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높았고 불안정 근로는 불안 인식의 시작점과 유사하여 대체로 개인의 심리적 불안, 차별 경험, 복지수혜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었다. 청년 지원의 경우 이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설계하되 지원은 낙인과 자괴감을 예방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괴감을 가지게 하는 정책의 경우 자립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청년 지원정책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Jo, 2019).

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의 수용도를 높이는 정책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준 보편적 지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공적 지원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Sjöberg(2010)는 사회보험이 소득대체와 더불어 마음의 안정을 제공한 점을 들어 주관적 웰빙이 실업급여의 관대함에 의하여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reznau, 2021. p. 544). Breznau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기 각국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강력한 복지국가의 경우 대응력의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강한 복지국가의 긍정적 영향(strong welfare state spillover effect)을 설명하기도 하였다(Breznau, 2021. p. 544).

〈표 9-2〉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불평등 대응 정책강화

정책과제	정책전략	관련 분석 결과
불평등 대응 정책 강화	소득격차, 자산격차에 대응 강화	높은 수준의 빈부격차 불안과 이 불안의 중심적 위치 빈곤층의 높은 불안 인식
	주거지원과 돌봄 지원의 안정성 확보, 준 보편화 추진	주거 박탈과 돌봄 박탈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과 극빈층 이상의 박탈 경험 분포
	청년의 취업과 이행기 특성 고려한 청년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 강화	취업 불안정의 청년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청년의 높은 불안 수준과 낮은 정부 신뢰
	보편적, 준 보편적 제도의 의의 재확인과 준 보편, 보편적 제도 적정 수준 확보	보편적 제도 수급자의 낮은 사회적 불안 인식 공적 지원의 전체적 영향의 유의성 부족

자료: 저자 작성.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은 중요한 불안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불안 중 ‘낮은 정부 신뢰의 불안’은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신뢰는 정책 신뢰로 표현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대응력, 정부의 책임성 등이 정부 신뢰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에서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정책의 너무 빠른 변경은 그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되었다. 정부의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신설, 변경 기제의 강화가 중요하다. 복잡다단해진 복지정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정화 기제는 합리화 기제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표 9-3〉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 신뢰 제고

정책 과제	정책전략	관련 분석 결과
정책 신뢰 제고	정책 안정성 제고	정부 신뢰 및 대응력에 대한 높은 불안 적용/도태 불안과 개인정서 불안 낮은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불안 토로
	정책 투명성 제고	낮은 정부 대응 신뢰 높은 수준의 법 등 사회 기제에서의 편법, 불공정 불안
	정책 가시성 제고	낮은 정부 신뢰와 정부 대응력 신뢰 질적 연구 참여자들의 정책 불신(극빈층으로의 전략만이 정책지원의 조건이라 여김)
	정부의 재난, 위기 관리와 대응의 책임성 제고	사회적 재난 등 경험자의 높은 불안 인식

자료: 저자 작성.

공정성 불안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공정성 불안은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소득분배의 공정성 의심과 연관되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이며 결국 정부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불신,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에서 정책의 기획,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 정책이 어떻게 제안되고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되고 정책 성과는 어떠한지 등 정책운영과 관련된 제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모두 이러한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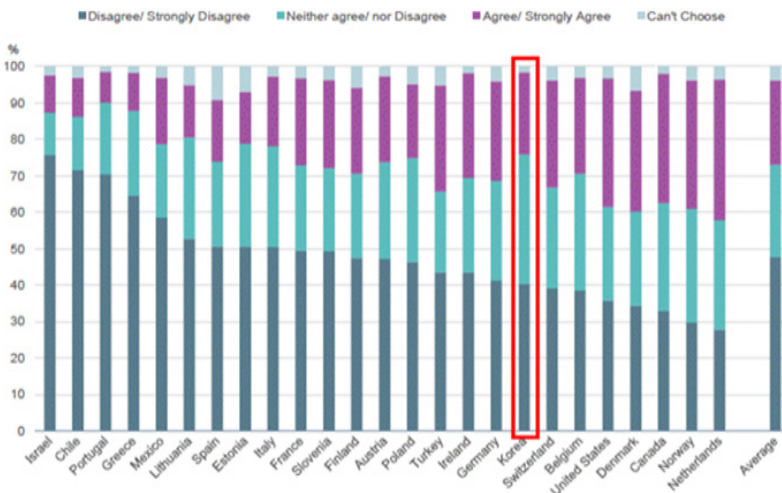
한편 정책의 가시성도 정책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정책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해당 정책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정책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정책 기준이 매우 어려운 복잡한 것이거나 다수의 작은 정책으로 파편화되어 실제 정책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정책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정책은 정책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개인 불안 및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은 정부 불신이 유달리 높았다.

국민의 불안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 및 위험 발생 시 정부 대처가 중요하며 이는 곧 정부 신뢰와 연결된다. 다양한 사건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일 것을 우려하면서도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OECD, 2020). 정부의 책임성, 대응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9-1]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



자료: OECD. (2021). Main Findings from the 2020 Risks that Matter Survey. Paris: OECD. <https://doi.org/10.1787/b9e85cf5-en> p. 38에서 2023. 10. 30. 인출.

〈표 9-4〉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정책 과제	정책전략	관련 분석 결과
국민의 정신건강 강화	사회적지지, 활동참여 제고	높은 소극적 대처성향의 선택 비율 사회적 지지와 활동 참여자의 낮은 불안 인식
	도태, 적응 불안 대응, 예방	개인정서적 불안과 적응/도태 불안의 높은 상관 관계
	사회적 연대, 문제의식 강화	사회적 원인의 문제양상에 대한 개인 문제로의 체화

자료: 저자 작성.

고불안심리부정형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개인의 정신적 건강 함양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적 건강함을 유지, 강화하는 정책으로 우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교류를 하거나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대처성향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그렇지 않은 청년의 불안 수준보다 낮았다.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사회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삶의 만족도 ‘상’인 집단 비율도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의 가장 일반적인 대처성향은 수면/TV/흡연/과식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등은 불안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 같은 좀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대처성향을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필요하다. 문화센터, 도서관, 공공 공간과 체육 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이동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적응/도태 불안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고불안심리부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응/도태 불안 인식이 낮을수록 저불안심리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으로 도태 불안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각종 심리상담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심리상담에서 도태/적응 불안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 체계 정당성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탐지되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주의적인 사회구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의 수용도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내부화하게 되면서 개인의 심리정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참여기회를 늘려 함께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는 시민사회의 기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풀뿌리에 기초하는 초심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한 연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전환하고 시민사회의 내부 민주화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적 운영은 일반 국민의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이기도 할 것이다.

〈표 9-5〉 사회적 불안 인식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인식지표의 관리와 사회정책 합리화

정책과제	정책전략	관련 분석 결과
주관적 인식 지표의 주기적 관리	주관적 인식의 의의 수용과 지표 개발	주관적 인식의 객관적 조건과의 상이성 주관적 인식 사이의 상이성(삶의 만족 수준과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의 불일치성)
	인식지표의 주기적 파악과 반영	인식의 정책 태도에 대한 영향 잠재력 인식의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 잠재력
사회정책의 운영 합리화	현상 중심의 특정 집단 표적화를 넘어 원인 대응으로 정책 대응 전환	1인 가구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유의한 영향 확인 안 됨. 계층 등에 따른 차별보다 성, 연령에 따른 높은 차별 인식
	사회변화 반영 지원 단위의 개선 모색(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가족의 불안 완화 역할과 불안 악화 영향 저소득 가구의 사적 지지체계 취약성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지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정책개입의 유형, 노동시장제도의 구조,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그리고 수많은 맥락요인들에 의존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국가 단위의 요인들과 개인의 요인들 모두 개인의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Anderson & Pontusson, 2007; Chung & van Oorschot, 2011; Akaeda & Schöneck, 2022, p. 311에서 재인용). 인식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 중요하다. 점검하여야 하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산출, 공유하고 정책에서 이를 고려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 삶의 만족 같은 최종적 추상적 인식 외 기초적 보장과 관련이 있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나 불안 관련 지표들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들은 대변하는 내용도 서로 상이하므로 이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합리화도 도모되어야 한다. 우선 현상 중심의 대응인 정책을 점검하고 원인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이 효과가 낮으면서 사회 내 갈등을 심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구 규모 구분, 연령 구분, 성 구분 등 정책 대상을 원인이 아니라 현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다소 도전적인 정책과제일 수 있지만, 가족 내 지지라는 전통적 전제를 넘어 가족 내 부담의 전가 위험을 고려한 정책 전환도 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일수록 사적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가족의 지원 여력도 취약하다.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큰돈을 갑자기 빌릴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31%로 해당 조사가 시행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이태진 외, 2022, p. 72). 그나마 사적 지지체계는 계

속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결국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가구 단위 지원은 가구 내 자원의 균등 분배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가구의 분리,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조차 가지고 있다. 가능한 경우 개인단위의 정책지원을 설계,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갖는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요 문항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선행연구의 한계였던 표본 대표성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의 척도와 내용 구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구체적 측정 지표를 구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가 내 요인으로 한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관련 인식을 포괄하여 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하고 요인들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에서 객관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인식의 영향 비교,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객관적 조건에서 사회적 경험, 인식, 그리고 사회적 불안 인식으로 이어지는 요인의 구조,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의 관계 구조 등 제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향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정책 설계

에서 고려할 요인들, 정책 설계 방향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완화하는 정책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반 구성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주관적 인식 등을 고려하는 의의를 공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가 사회적 불안 인식을 규명하고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첫 번째 한계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조사의 실시에서 조사 시점과 조사 방식을 달리 한 자료를 통합하여 해석의 엄밀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둘째,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민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해 국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추후 국가 비교와 횡단면 비교 등 이를 보완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 강병호. (2020). 생활세계와 체계-하버마스의 이단계 사회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철학, 144, 203-227.
- 강은나, 김혜진, 정병오.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 (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현섭, 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행정논총, 52(1), 145-175.
- 김문조, 박형준. (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21, 611-643.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305, 74-86.
- 김세진. (2021).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보건복지포럼, 10월호, 22-34.
- 김수아, 임동균. (2016). 위험사회의 사회심리학: 위험 인식의 주관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2), 45-75.
- 김수영, 박준혁, 권하늬. (2022). 1인 가구 노동자의 생산-재생산 활동에 대한 사례분석: 개인화된 사회의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사회정책, 29(4), 105-150.
-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 (2015).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451-479.
- 김승연, 변금선, 김상일, 오은주, 김진하, 김호기, ..., 임아름. (2022).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서울: 서울연구원.
- 김자영,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 김청택. (2016).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1), 83-107.
- 남재현, 이래혁.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소득을 통해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2(1), 175-200.
- 남춘호. (2014). 압축근대와 생애과정의 구조 변동. *지역사회연구*, 22(2), 1-28.
- 노연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집단 분류와 개인 및 학교요인 검증. *조사연구*, 18(2), 67-98.
- 노연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노혜진. (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노혜진. (2021). 성인가족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1-12. <http://dx.doi.org/10.22626/jkfrma.2021.25.2.001>.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 박경현, 이혜민, 민성희, 강민조, 김수진, 최예술, 이상호, 박주영, 박재희.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2), 1-29.
- 박수애, 홍영오, 송관재. (2003). 사회 불안의 유발요인. 미발표 자료.
- 박영란, 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백지선, 심규호, 홍영택, 장덕현. (2017).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추정: 선택효과와 측정효과와의 분리 방법. *통계연구*, 22(3), 1-24.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 년과 2019 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변금선, 이해림. (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2), 127-156.
- 서정아. (2018).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85-113.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송기숙.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8, 36-66.
- 엠브레인 공식 블로그. (2016. 5. 25.).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감', 몇 년째 높은 수준에서 유지. <https://m.blog.naver.com/mkresearch/220719145055>에서 2023. 10. 22. 인출.
- 여성가족부. (각 연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원경혜, 이상혁. (2015). 노인의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6), 3787-3796.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상립, 이철희, 오신휘. (2019).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 김효진. (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안준기. (2022).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음성: 한

국고용정보원.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249-274.
- 이재열. (2010). 이론적 배경: 위험사회와 위험의 사회적 구성. 위험사회, 위험정치 (pp. 1-36).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정아, 김수현. (2017).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 사회, 114, 194-224.
-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 (1984). 불안척도에 의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영남대학교학술지, 1(1), 121-128.
-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림, 변금선. (2023). 코로나19와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비경제적 영역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202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pp. 237-258).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 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서울: 법문사.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혜경. (2021). 중년후기 성인의 건강상태, 노화불안, 사회관계망, 생성감 및 행복.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4), 392-401.
-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 사회연구, 32(4), 249-272.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최재식. (1999).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와 “체계” 이론 및 이에 관한 사회·문화 현상학적 비판. 현상학과 현대철학, 13, 184-220.
-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53-78.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 환경 변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3, 51-75.
-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대전: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2. 8.). 장래추계인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23. 10. 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2>.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A_4.
-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3. 10. 1. 인출.
-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23. 10. 1.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2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4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계정.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에서 2023. 10. 1.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23. 10. 30. 인출.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 황정미. (2022).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 젠더리뷰, 67, 4-16.
- 후생노동성. 貧困・格差の実態を総合的・継続的に把握するための指標の開発に関する経費. <https://www.mhlw.go.jp/topics/2012/01/dl/tp0118-1-10.pdf>에서 2022. 2. 4. 인출.
- Akaeda, N, & Schöneck, N. M. (2022). *Socio-economic insecurity perceptions and their societal determinants: Europe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Recession. European Societies, 24(3)*, 310-332, DOI: 10.1080/14616696.2022.2043406.

- Anderson, C. J., & Pontusson, J. (2007). Workers, worries and welfare states: social protection and job insecurity in 15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2), 211-235.
- Barrett, L. F. (2017).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호영, 옮김). 서울: 생각연구소.
- Breznau, N. (2021). The welfare state and risk perceptions: the Novel Coronavirus Pandemic and public concern in 70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23(S1), S33-S46. <https://doi.org/10.1080/14616696.2020.1793215>.
- Borsboom, D., & Cramer, A. O. (2013). Network analysis: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91-121.
- Borsboom, D., Deserno, M.K., Rhemtulla, M., Epskamp, S., Fried, E. I., McNally, R. J., ... Waldorp, L. J. (2021). Network analysis of multivariate data in psychological science. *Nature Reviews Methods Primers*, 1, 58. <https://doi.org/10.1038/s43586-021-00055-w>.
- Branden, N. (2021). *The power of self-esteem*. Health Communications, Inc..
- Choenarom, C., Williams, R. A., & Hagerty, B. M.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and Depression in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1), 18-29.
- Chung, H., & Mau, S. (2014). Subjective insecurity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4), 303-318.
- Chung H., & van Oorschot W. (2011). 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Explaining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European Individuals During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4), 287-301.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the NSHAP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4B(suppl_1)*, i38-i46.
- Costantini, G., Epskamp, S., Borsboom, D., Perugini, M., Mõttus, R., Waldorp, L. J., & Cramer, A. O. J. (2015). State of the aRt personality research: A tutorial on network analysis of personality data in 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4*, 13-29, <http://dx.doi.org/10.1016/j.jrp.2014.07.003>.
- Dalege, J., Borsboom, D., van Harreveld, F., & van der Maas, H. L. J. (2018). The Attitudinal Entropy (AE) Framework as a General Theory of Individual Attitudes. *Psychological Inquiry, 29*(4), 175-193. doi: 10.1080/1047840X.2018.1537246.
- Epskamp, S., Borsboom, D., & Fried, E. I. (2018). Estimating psychological networks and their accuracy: A tutorial paper. *Behavior Research Methods, 50*(1), 195-212. <https://doi.org/10.3758/s13428-017-0862-1>.
- Fulton, L., & Jupp, B. (2015). *Investing to tackle loneliness: a discussion paper*. London: Social Finance. https://www.socialfinance.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investing_to_tackle_loneliness.pdf.
- Green, F., Dickerson, A., Carruth, A., & Campbell, D. (2001). *An Analysis of Subjective Views of Job Insecurity*.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01/08, Canterbury: University of Kent.
-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2019). The "loneliness epidemic". Washington DC. <https://www.hrsa.gov/enews/past-issues/2019/january-17/loneliness-epidemic>.
- Heinz, B. (2015). 불안의 사회학: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미옥, 옮김). 파주: 동녘.

- Hertz, N. (2021). *고립의 시대: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 (홍정인, 옮김).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 Huber, C. (2019). *Latent class analysis using stata*. University College London(October, 16, 2019.). <https://www.ucl.ac.uk/population-health-sciences/sites/population-health-sciences/files/lca.pdf>에서 2023. 10. 1. 인출.
- ILO. (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2019).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9*.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svoranu, A.-M., & Epskamp, S. (2023). Which estimation method to choose in network psychometrics? Deriving guidelines for applied researchers. *Psychological Methods, 28*(4), 925-946. <https://doi.org/10.1037/met0000439>.
- Isvoranu, A.-M., Epskamp, S., Waldorp, L., & Borsboom, D. (2022). *Network psychometrics with R: A guide for behavioral and social scientists*. New York: Routledge.
- Jedidi, K., Jagpal, H. S., & DeSarbo, W. S.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 39-59.
- Jo, Y. M. (2019). *Psycho-Social Dynamics of Shame in Poverty: A South Korean Case Study*.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Oxford, Oxford). Available from Oxford University Research Archive. Retrieved from <https://ora.ox.ac.uk/objects/uuid:7dcc6dc9-7a3b-47ff-a993-140762c66077>.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Ni Sullivan, B.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 10.1111/j.1751-9004.2007.00054.x
- Lazarsfeld, P. F. (1950). The logical and mathematical foundation of latent structure analysi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World War I: Measurement and prediction* (Vol. 4, pp. 361-41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 F., & Henry, N. W. (1968). *Latent structure analysis*. Boston: Houghton Mil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46-159.
- Lieberman, M. A. (198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responses to stres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764-784). New York: The Free Press.
- Lundberg, J., & Kristenson, M. (2008). Is Subjective Status Influenced by Psychosocial Fac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3), 357-90.
- Mau, S., Mewes, J., & Schöneck, N. M. (2012). What determines subjective social-economic insecurity: context and cla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o-Economic Review*, 10(4), 655-682.
- Meeuwesen, L. (2006). A typology of social contacts. *Social Isolation in*

- Modern Society* (pp. 37-59). Abingdon: Routledge.
- OECD. (2005).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05-en.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에서 2023. 10. 30. 인출.
- OECD. (2021). *Main Findings from the 2020 Risks that Matter Survey*. Paris: OECD. <https://doi.org/10.1787/b9e85cf5-en>에서 2023. 10. 30. 인출.
- Oishi, S., Kesebir, S., &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 Pekari, N., Rosset, J., & Schmid, F. (2018). Economic Context and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nemployment Risk and Demand for Social Policy. *Social Dynamics in Swiss Society* (pp. 215-229). Cham: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89557-4_15.
- Robinaugh, D. J., Hoekstra, R. H. A., Toner, E. R., & Borsboom, D. (2020). The network approach to psychopathology: A review of the literature 2008-2018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Medicine, 50*(3), Advance on 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17/S0033291719003404>.
- Ryan, O., Bringmann, L. F., & Schuurman, N. K. (2022). The Challenge of Generating Causal Hypotheses Using Network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9*(6), 953-970, DOI: 10.1080/10705511.2022.2056039.
- Sjöberg, O. (2010). Social insurance as a collective resource: unemployment benefits, job insecu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Forces, 88*(3), 1281-1304.
- Skinner, E. A., & Zimmer-Gembeck, M. J. (2007). The Development of

- Coping.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8, 119-144.
-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25-338.
- Stephens, M. (2004). Job Loss Expectations, Realizations, and Household Consumption Behavi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1), 253-269.
- Taylor-Gooby, P., & Zinn, J. O. (2006). Current directions in risk research: new developments in psychology and sociology. *Risk Analysis*, 26(2), 397-411. doi: 10.1111/j.1539-6924.2006.00746.x.
- Trzesniewski, K. H., Robins, R. W., Roberts, B. W., & Caspi, A. (2004).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aging* (pp. 163-185). Amsterdam: Elsevier Science.
- Van der Toorn, J., Feinberg, M., Jost, J. T., Kay, A. C., Tyler, T. R., Willer, R., & Wilmoth, C. (2015). A sense of powerlessness fosters system just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authority, hierarchy, and government. *Political psychology*, 36(1), 93-110.
- WHO. (2022).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옮김).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Licence: CC BY-NC-SA 3.0 IGO. (원서출판 2021).
- Wilkinson, R., & Pickett, K. (2011).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USA.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ume 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 Zimmerman, M. A., Copeland, L. A., Shope, J. T., & Dielman, T. E.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17-141.





〈부표 1〉 사회적 불안 요소 간 부분 상관관계

	e1	e2	e3	e4	e5	e6	j1	j2	j3	j4	j5	j6	s1	s2	s3	s4	s5	t1	t2	t3	a1	a2	a3	
e1	0.161																							
e2	0.122	0.092																						
e3	0.071	0.098	0.268																					
e4	0.084	0.039	0.119	0.101																				
e5	0.081	0.044	0.285	0.056	0.053																			
e6	0.049	0.051	0.105	0.255	0.118																			
j1	0.052	0.081	0.041	0.039	0.087	0.255																		
j2	0.051	0.055	0.108	0.042	0.077	0.042	0.132	0.382																
j3	0.048	0.068	0.092	0.230	0.035	0.047	0.034	0.081	0.183															
j4	0.068	0.052	0.052	0.048	0.048	0.048	0.058	0.110	0.074	0.142	0.050	0.075	0.067	0.064	0.200									
s1	-0.093												0.064	0.064	0.036	0.071	0.123							
s2	0.039	0.042	0.032	0.045	0.092	0.076	-0.050				0.051		0.195	0.094	0.363									
s3						0.067					0.089		0.064	0.036	0.071	0.123	0.058							
s4						0.067					0.043		0.064	0.036	0.071	0.123	0.058	0.073	-0.043					
t1						0.067					0.086		0.078	0.061	0.061	0.061	0.045	0.073	-0.043	0.670				
t2						0.067					0.043		0.078	0.061	0.061	0.045	0.045	0.133	0.129					
t3						0.067					0.043		0.078	0.061	0.061	0.045	0.045	0.133	0.129					
a1	0.299	0.096	0.059	0.059	0.062	0.062	0.037	0.034	-0.052	0.053	0.086		0.078	0.061	0.036	0.055								
a2	0.072	-0.076	0.033	0.033	0.033	0.062	0.062	0.104	-0.038	0.047	0.062		0.078	0.061	0.039	0.119								
a3	0.091	-0.043	-0.049	-0.046	-0.046	0.057	0.090	-0.051	-0.046	0.135	0.062		0.078	0.061	0.039	0.119								
a4	-0.061	-0.043	-0.049	-0.046	-0.046	0.057	0.090	-0.051	-0.046	0.135	0.062		0.078	0.061	0.039	0.119								

주: e4: 빈부격차 심화, t2: 정부 위기관리 능력 불신, a4: 미래불망, a2: 미래불안, j4: 조직 적응 불안, j6: 직업 적응 불안, j5: 미래 불확실, j3: 법 집행 불공정 s4: 범죄피해 두려움, j1: 연중사회, j2: 비정상적 성공, e2: 경쟁사회, e6: 교육 방향 혼란, a1: 정보 소외, t3: 정치 불신, e1: 낙오 불안, s1: 사기 걱정, e5: 집값 감당, s2: 경찰 불신, j6: 집단이기주의, e3: 취업 불황 지속, s3: 안전사고위험, a3: 변화 속도 적응 불안, s5: 진쟁 발달 위험.

〈부표 2〉 사회적 불안 영역과 설명변수 간의 부분 상관관계: 전체 샘플 대상

	LS	LI	SS	SI	age	fem	eqinc	vwrk	univ	anx	trust	deprv	discm	event
LS														
LI	0.302													
SS	0.165	0.148												
SI	0.119	0.432	0.271											
age		-0.062	0.150	-0.082										
fem	0.127		-0.071		0.057									
eqinc	-0.033		0.034	-0.041	0.078									
vwrk					-0.079	0.038	-0.106							
univ					-0.172	-0.061	0.161	-0.047						
anx	0.274	0.168			-0.135	-0.115	-0.065		-0.079					
trust			-0.303	-0.147	0.040				0.042	-0.074				
deprv			-0.034	0.085	0.065		-0.082		0.069	0.128		0.186		
discm		0.038		0.047	-0.297	0.063		0.068		0.062		0.177	0.136	
event		0.037		0.036	0.177	-0.041			0.046	0.115				
welf			-0.076				-0.178	0.045	-0.149					0.083

주: SS-기버너스 불안(체계-거시), SI-체계의 작동원리 불안(체계-미시), LI-개인의 삶의 불안(생활세계-거시), LS-사회관계 불안(생활세계-거시), trust-사회적 신뢰, anx-심리적 불안, fem-여성, vwrk-불안정 노동, univ-대졸, eqinc-균등화 가구소득, discm-차별 경험, deprv-박탈 경험, event-사회적 사건 경험, welf-정부 지원 수혜 경험.

〈부표 3〉 코호트별 사회적 불안 영역과 설명 변수 간의 부분 상관관계

구분	코호트1			코호트2			코호트3			코호트4			코호트5		
	LS	LI	SI	LS	LI	SI	LS	LI	SI	LS	LI	SI	LS	LI	SI
LS															
LI	0.265			0.248			0.319			0.323			0.321		
SS	0.159	0.134		0.14	0.244		0.171	0.132		0.129	0.138		0.211	0.177	
SI	0.145	0.485	0.201	0.135	0.462	0.117	0.082	0.375	0.375	0.1	0.368	0.384	0.1	0.453	0.245
fem	0.267	-0.141		0.086			0.094	-0.073		0.06	-0.118				
eqinc							-0.063				-0.071				
vwrk															0.061
univ	-0.06	0.111	-0.058												
anx	0.254	0.194	-0.104	0.32	0.22	-0.133	0.269	0.176	-0.107	0.244	0.18	-0.078	0.244	0.106	-0.159
trust			-0.351	-0.134		-0.375	-0.134	-0.079	-0.258	-0.153		-0.251	-0.164	0.086	-0.195
deprv			-0.072	0.111					0.05						
discm	0.062				0.083		0.062	0.085		0.071		0.128		0.065	
event					0.088										0.078
welf									-0.042		-0.049		-0.109		0.093

주: SS-거버넌스 불안(체계-거시), SI-체계의 작동원리 불안(체계-미시), LI-개인 삶의 불안(생활세계-미시), LS-사회관계 불안(생활세계-거시), trust-사회적 신뢰, anx-심리적 불안, fem-여성, vwrk-불안정 노동, univ-대학, eqinc-균등화 가구소득, discm-차별 경험, deprv-박탈 경험, event-사회적 사건 경험, welf-정부 지원 수혜 경험.